력사를 통해 본

민족의 우수성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력사를 통해 본
민족의 우수성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차 례

책을 내면서 ······ 3

1. 력사편 ······ 5
◇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 ······ 6
◇ 경제의 발전 ······ 15
◇ 우수한 문명 ······ 30
◇ 력사와 지리도서 편찬 ······ 44

2. 과학기술편 ······ 57
◇ 발명과 발견 ······ 58
◇ 기상천문학 ······ 67
◇ 고려의학 ······ 80
◇ 군사과학과 무장장비 ······ 92

3. 문학예술편 ······ 109
◇ 우수한 문학유산 ······ 110
◇ 건축과 조각 ······ 124

◇ 회화와 공예 ········ 145
◇ 민족음악과 무용 ········ 156

4. 민속편 ········ 169
◇ 민족음식 ········ 170
◇ 옷차림과 생활풍습 ········ 184
◇ 민족체육과 민속놀이 ········ 193

책을 내면서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민족은 자기의 꾸준한 노력과 창조적활동으로 인류력사발전의 려명기로부터 훌륭한 물질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왔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우리 나라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삼천리금수강산입니다.》

장구한 력사적기간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선조들은 남들이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수성을 지니였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로운 민족이다.

유구한 력사를 이어오며 선조들이 이룩한 성과와 발명들은 우리 겨레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우수성은 세기가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있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실생활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느끼고있으며 조선사람으로 태여난것을 더없는 긍지로 여기고있다.

도서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우수한 성과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들을 추려서 묶어놓았다.

이 도서가 겨레의 가슴속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다소나마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

1. 력 사 편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 ······················· 6

경제의 발전 ·································· 15

우수한 문명 ·································· 30

력사와 지리도서 편찬 ······················· 44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

조선은 인류발상지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은 인류발생의 첫 시기인 100만년 이전부터 살아왔다.

지구상에서 인류가 발생하던 시기에 이 땅에서 사람이 발생하여 발전해왔다는것은 구석기시대의 전기, 중기, 후기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에 산 원인, 고인, 신인, 조선옛류형사람들이 남긴 유적유물과 인류화석들이 여러곳에서 발굴되고있는것을 보고 알수 있다.

특히 평양일대의 대동강류역에서는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마지막시기까지의 유적유물들이 다 발굴되였다.

이 땅에서 원인들이 생존한 구석기시대 전기는 100만년 이전시기부터 30만년전까지를 포괄하고있는데 그 대표적유적들로는 황해북도 상원군 흑우리 검은모루유적,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유적,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의 점말룡굴유적 등을 들수 있다.

아직까지 구석기시대 전기유적들에서 원인의 머리뼈화석은 알려지지 않았고 다만 점말룡굴유적 아래층에서 아래팔뼈가

나왔을뿐이다.

그러나 이 유적들에서는 타제석기들과 동물뼈화석들이 많이 나왔다.

검은모루유적에서는 원인들이 잡아먹고 버린 짐승뼈화석들과 그들이 쓰던 주먹도끼형석기, 제형석기, 뾰족끝석기 등 타제석기들이 나왔다.

구석기시대 전기에 산 원인들은 원시무리를 이루고 채집과 사냥을 하였으며 주로 자연동굴에 거처지를 정하고 살았다.

인류발생의 다음 단계인 고인들이 생존한 구석기시대 중기는 30만년전부터 5만년전까지를 포괄하는데 대표적유적들로는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리유적, 라선시 굴포리 굴포문화 1기층유적,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유적 아래문화층,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유적 등을 들수 있다.

이 유적들에서는 고인의 인류화석과 함께 각종 석기들, 동물뼈화석들, 불무지자리 등이 발굴되였다.

고인단계의 화석으로서는 《화대사람》과 《력포사람》, 《덕천사람》이라는 학명으로 불리우는 화석들이 있다.

신인이 산 구석기시대 후기는 약 5만년전부터 B.C. 7 000년전까지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들로는 라선시 굴포문화 2기층유적과 부포리유적, 황해북도 승호군 만달리유적,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유적 웃문화층, 황해북도 상원군 룡곡동굴유적

등을 들수 있다.

이 시기에 산 신인들은 신체구조에서뿐아니라 로동도구를 만드는 수법과 생산활동, 사회적 제 관계와 사회적의식에서 원인, 고인보다 뚜렷한 전진을 가져왔다.

신인의 대표적화석들로는 《만달사람》, 《승리산사람》, 《룡곡사람》 등이 있다.

신인화석들의 발견은 검은모루유적을 남긴 원인이 《화대사람》, 《력포사람》, 《덕천사람》을 거쳐 《승리산사람》으로 발전하여 조선옛류형사람과 현대조선사람으로서의 특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 과학적근거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신인들로부터 조선옛류형사람으로 인류가 발전하였는데 그때 이 땅에 신석기시대가 도래하였다.

신석기시대는 종전의 타제석기보다 발전된 갈아서 만든 마제석기와 질그릇을 쓴것이 특징이며 B.C. 7 000년기부터 B.C. 4 000년기 전반기까지 해당된다.

신석기시대의 유적들로는 평양시 삼석구역 남경유적과 표대유적,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등이 있다.

이 시대에 산 조선옛류형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생김새가 뚜렷이 구별되였다.

조선옛류형사람들의 생산활동에서 주목되는것은 정착생활을 하면서 원시적인 농업을 시작한것이다.

청동기시대는 B.C. 4 000년기 후반기부터이며 대표적인 유적들로서는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삼석구역 남경유적과 표대유적 등이다.

이 시기 유적에서 기본은 집자리와 무덤이며 특징은 생산활동에서 청동기를 리용한것이다.

이처럼 조선은 우리 민족의 원조상인 원인과 고인, 신인, 조선옛류형사람들이 100만년이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유적유물들을 모두 남긴 세계에 몇개밖에 안되는 인류발상지이다.

반만년민족의 정통성을 이어온 국가들

조선(고조선)은 B.C. 30세기초에 단군에 의해 동방에서 제일먼저 성립된 첫 고대국가이다.

고조선의 성립에 대해서는 단군신화에 반영되여있다.

그후 고조선의 력사와 문화는 천년강국 고구려에 의해 계승되였으며 그후 발해와 고려를 거쳐 다시 조선봉건왕조에 의해 국호와 력사가 면면히 이어져왔다.

단군신화에서는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때 평양일대에 부족련맹이 이루어져있었고 사람들은 공동체추장과 씨족적귀족, 공동체성원들로 갈라져있었으며 형벌이 적용되는 등 국가성립의 제반 조건들이 성숙되여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단군이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것이 반영되여있다.

그후 고조선은 단군조선(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으로 바뀌면서 B.C. 108년까지 존재하였다.

고조선의 령토와 주민을 계승한 고구려는 봉건시기에 들어와서 천년동안 동방의 강대한 나라로 존재하였다.

이 시기 백제, 신라 등 동족의 나라들이 존재하였는데 세나라시기의 력사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B.C. 277년에 동명왕에 의하여 세워진 고구려는 B.C. 2세기초 후부여봉건국가성립과 B.C. 1세기말 백제봉건국가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A.D. 1세기 초중엽에 신라봉건국가성립과 A.D. 1세기 중엽에 가야봉건국가성립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는 건국후 주변소국통합을 추진하여 1세기 70년대까지 소국통합을 끝내고 3세기 70년대까지는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았으며 5세기말～6세기초에는 세나라통일을 거의 완성단계에 올려세웠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광활한 령토를 가진 강대국으로 되였으며 이 과정에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고구려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침입을 용감하게 쳐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였다.

또한 주변나라들과 다양한 외교 및 무역관계를 맺고 주동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였다.

봉건시대에 고구려와 같이 하나의 국호로 근 천년동안 존재하면서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높은 대외적지위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발해는 고구려가 무너진 후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698년에 세워져 근 230년동안 존재한 고구려계승국이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고구려유민들의 투쟁은 압록강이북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고조되였다.

고구려유민들의 줄기찬 투쟁과정에 점차 고구려를 계승한 새 나라를 세울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여갔으며 그 과정에 의주일대를 중심으로 고려국이 새로 섰다. 태백산(백두산)일대에서도 진국이라는 고구려유민들의 소국이 출현하였다.

특히 영주지방 고구려유민들의 투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696년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은 그들을 폭동에로 궐기시켜 영주성을 들이친 다음 고구려땅을 향해 동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들은 698년 천문령에서 추격하는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료하와 송화강상류를 건너 동모산일대에 도착하여 발해국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발해는 건국후 통치기구를 정비하고 국력을 강화하면서 경

제와 문화를 발전시켜 고구려의 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빛내여나갔다.

918년 고구려사람의 후손인 왕건에 의하여 세워진 고려는 1392년까지 존재하였다.

고려는 건국후 대동강이남지역의 후백제, 신라와 함께 그 이북의 옛 고구려땅을 통합하여 고구려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울 국토통일정책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고려는 중심지로 될 평양을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청천강계선까지 령토를 넓히였다.

고려는 북방진출과정에 국력이 강화됨에 따라 대동강이남의 후삼국지역을 통합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934년 발해의 세자 대광현의 귀속, 935년 김부왕의 투항과 후기신라의 통합, 936년 후백제에 대한 공격과 신검의 항복으로 고려는 국토통일을 일단락짓게 되였다.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래침략자들을 쳐몰아내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내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그후 1392년부터 500여년간 존재한 조선봉건왕조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여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 나라이름도 조선이라고 지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

상 식

민족의 시조릉 단군릉

고조선의 건국자인 단군은 우리 민족의 원시조이다.

1993년에 단군릉이 발굴되고 그안에서 나온 뼈를 감정한 결과 5 011년전의 사람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고 단군이 5 000여년전에 산 사람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이리하여 단군이 B.C. 31세기 말엽에 평양의 강동지방에서 출생하여 B.C. 30세기초에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며 죽어서도 평양의 강동지방에 묻힌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1994년에 단군릉이 시조릉답게 훌륭히 개건되였다.

개건된 단군릉의 밑단의 한변 길이는 50m, 높이는 22m이며 모두 9개 단으로 차례줄임을 하였다.

릉안에는 단군과 그 안해의 뼈가 실물로 전시되여있다.

지구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자기 민족의 원시조들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있지만 우리 민족처럼 자기의 원시조부부의 유골과 시조왕릉을 가지고있는 민족은 찾아볼수 없다.

세계5대문명의 하나 대동강문화

대동강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발생하고 번성한 고대문화이다. 대동강문화는 그 내용과 우수성에 있어서 이미 알려진 4대문명보다 앞서거나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세계최초의 고대문명의 하나이다.

대동강류역에는 단군조선시기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무덤이 가장 많이 분포되여있고 청암동토성과 평양외성아래성벽, 황대성과 지탑리토성, 성현리토성 등 고대성곽들과 도시를 방불케 하는 남경유적, 표대유적을 비롯한 큰 부락터들이 집중분포되여있다.

이 고대유적들에서는 비파형단검, 청동창끝, 청동거울, 철기 등 많은 금속유물들과 벼, 콩, 조, 기장, 수수와 같은 오곡작물, 높은 수준의 질그릇들과 질그릇가마터, 종이유물과 유리제품, 비단, 고대천문학의 면모를 보여주는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에 표시된 별자리그림 등이 알려졌다.

또한 대동강류역의 고대무덤들에서 나온 청동2인교예장식품과 청동방울들을 통해 이 지역에서 음악과 무용, 교예가 상당한 수준에서 발전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고대글자인 신지글자가 사용된 사실은 고대문화의 높은 수준을 말해주고있다.

경제의 발전

오래전부터 시작된 오곡농사

우리 선조들은 국가성립이전인 청동기시대부터 오곡농사를 하여 벼, 콩, 조, 기장, 수수를 재배하였다.

태고적부터 이 땅에서 오곡농사를 지어왔다는것은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에서 불에 타서 숯으로 된 벼, 콩, 조, 기장, 수수가 발굴되고 석탄리유적에서 불에 탄 조와 팥이, 표대유적에서 벼와 콩이 발굴된데서 알수 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가시대에 들어와서야 오곡을 재배하거나 그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 농사를 지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청동기시대부터 오곡농사를 지어왔다.

고대시기부터 진행된 소금생산

우리 선조들은 인류발생과 더불어 남먼저 소금을 만들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해왔다.

평양시 삼석구역 표대유적이나 황해북도 승호군 리천리유적의 가마터시설들은 신석기시대의 조선옛류형사람들이 바다물

이나 짠물을 증발시켜 소금결정을 얻어낼수 있는 기술적수단들에 기초하여 소금을 생산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천군 원읍로동자구유적에서는 조선후국과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유적이 발굴되였다.

세나라시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소금생산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콩을 발효시켜 된장을 만들 때 거기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구려시기의 기록들에 반영되여있다.

바다물에서 소금을 추출하는 방법은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고려시기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발전하였다. 즉 그전에는 주로 가마에 바다물을 넣고 불을 때서 졸이였다면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바다물을 잡아두었다가 자연적으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썼다.

소금유적의 발굴은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소금을 어떻게 생산하였는가를 알수 있게 한다.

우리 선조들의 첫 질그릇생산

신석기시대에 들어와 우리 선조들은 처음으로 질그릇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쓰임새에 따라 여러가지 크기와 종류의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대체로 독과 항아리는 물건을 저장하는

데 썼고 대접, 보시기, 잔 등은 식기로 썼으며 작은 단지는 흔히 음식을 끓여먹는데 썼다.

질그릇의 모양도 쓰임새에 따라 여러가지로 만들었는데 만드는 방법도 빚기, 서리기, 테쌓기 등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신석기시대 질그릇의 특징은 거의 모든 질그릇들이 갈색이며 그 형태와 장식무늬가 매우 다양한 것이다.

이 시기 질그릇에서 주류를 이루는것은 새김무늬그릇이였다. 새김무늬그릇은 끝이 각이한 무늬돋치개로 그릇겉면을 긋거나 눌러서 무늬를 새긴 그릇을 말한다.

다른 나라의 질그릇과 다른 갈색새김무늬질그릇은 우리 선조들의 고유한 문화의 독자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선조들은 질좋은 재료를 가지고 도기를 생산하여 널리 리용하였으며 그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 연질도기로부터 경질도기를 생산하였다. 이 과정에 도기에 유약을 입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였다. 유약의 발명은 진흙을 주성분으로 하는 그릇제작기술의 완성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국가발생이전인 신석기시대에 벌써 다양한 질그릇들을 만들어 리용하였으며 그 전통은 고려자기와 같은 세계적인 보물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고대시기의 발전된 청동제품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남보다 먼저 발전된 금속제련기술과 가공기술을 소유하고있었다.

원시사회 후반기부터 평양일대에서 창조된 청동합금 및 가공기술은 단군조선시기에 더욱 발전되였고 후조선과 부여, 구려, 진국시기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청동합금에서 석과 연이 노는 역할을 파악하고 동－석－연의 3원합금에 속하는 청동합금을 얻어냈다.

동에 석과 그밖의 합금원소를 첨가하면 금속조직이 변하면서 굳은 성질이 나타날뿐아니라 여기에 연을 첨가하면 잘 늘어나고 펴지는 성질이 더해지기때문에 제품의 주조성도 높아진다.

고대시기 청동합금기술과 함께 그 가공기술도 훨씬 발전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많은 종류의 청동제품들을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었다. 당시 정밀한 주조품을 얻기 위해 여러가지 거푸집을 만들어 썼다. 이 시기 청동가공기술의 발전면모는 0.25㎜밖에 안되는 아주 가느다란 청동실을 뽑아낸 사실에서도 알수 있다.

그후 청동제품은 놋제품으로 발전하였다.

고대로부터 발전한 제철, 제강업

고대시기부터 제철, 제강기술을 개척해온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철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야금업을 발전시켰다.

우리 선조들은 후조선시기에 벌써 제철, 제강기술을 새롭게 개척하였다.

B.C. 2 000년기말것으로 인정되는 황해북도 황주군 고연리유적의 2호집자리에서 쇠슬라크와 쇠쪼각이 발굴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후조선시기에 련철생산단계를 뛰여넘어 용해로에서 쇠를 뽑아내는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후조선사람들은 제철기술과 함께 제강기술도 개척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B.C. 1 000년기 후반기의 고조선유적들에서 주강제품과 단조한 강철제품들이 적지 않게 발굴된데서 알수 있다.

평안북도 녕변군 세죽리유적에서 발굴된 고리자루손칼은 열처리를 두번 한 탄소공구강이였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제철시설과 송풍장치를 만들어 용해로에서 강철제품들을 생산하였다. 후조선 말기 제철 및 철가공업은 독자적인 중요한 수공업분야로 출현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무기들과 생산활동, 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물품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철을 생산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철로 만든 칼, 창, 검, 극(갈구리창) 등 철제무기들과 전투때 착용하는 갑옷과 투구 등 여러가지 장구류들을 만들었다. 또한 철을 생산하여 농기구들과 공구들도 만들었다.

당시 철을 생산한 방법을 보면 처음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산중턱에 흙과 돌로 원시적인 로(생취로)를 쌓고 그속에 쇠돌과 숯을 넣고 불을 지핀 다음 로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의하여 절반쯤 녹은 상태의 련철을 얻었는데 이것을 두드려 농쟁기나 무기를 만들었다. 후에 생취로에 손풀무가 리용되고 뒤이어 수차로 돌리는 풀무가 리용됨으로써 련철생산법은 더욱 발전하였다.

생취로는 비탈진 곳에 돌로 쌓아 만든 원시적인 제철로로서 아궁이로라고도 하였다.

생취로는 인류가 처음으로 쇠돌과 숯으로 련철을 생산하던 로로서 용광로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다. 당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련철덩어리는 다른 나라들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고대시기부터 생산된 비단

고조선사람들은 일찍부터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쳤는데 고조선의 고유한 석잠누에에서 얻은 명주실로 짠 비단은 그 질이 좋아 널리 알려졌다.

고조선의 석잠누에는 자라는 기간이 짧고 병에 잘 견디며 생활력이 강하여 키우기도 쉬웠다.

특히 누에고치는 실이 잘 풀리고 질기며 여기에서 나온 누에고치실은 부드럽고 가벼우며 물감을 들이기 쉽고 물들이면 아주 고운것이 특징이다.

이웃나라의 력사책들에 고조선과 진국의 삼한사람들이 뽕누에리치에 밝았으며 조선에서 누에치기와 천짜기가 농사와 함께 중요시되고 장려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비단의 질이 좋았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세나라시기에도 비단제작기술이 발전하였다.

대성산의 고구려성벽터에서 발굴된 누에고치실로 짠 비단천은 성글게 짠 평짜임조직으로서 실오리가 고르롭고 천의 평활도가 높았는데 그것은 당시의 비단천짜기기술수준이 높았다는것을 보여준다.

발해에서도 여러 종류의 비단천이 생산되였는데 그중에서 룡주의 비단이 제일 유명하였다고 한다.

고려시기에 들어와 비단의 종류가 더욱 늘어나고 그 질도 높았다. 옛 기록에 의하면 고려비단은 그 종류가 무려 70여종이나 되였다고 한다.

개성시의 불일사5층탑에서 고려의 비단이 발굴되였는데 그것의 날실과 씨실의 섬유직경이 10.4㎛밖에 안될 정도로서 당시 비단짜는 기술이 매우 섬세하였음을 알수 있게 한다.

고려비단은 고려자기, 고려종이, 고려먹 등과 함께 멀리 아라비아반도에까지 수출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사, 라, 릉, 단 등 여러가지 비단천들을 짰다.

이처럼 오랜 력사를 가진 조선비단은 종류가 다양하고 질이 높아 천하의 명물로 이름떨치였다.

고구려의 발전된 농업

고구려는 농업을 위주로 한 나라로서 당시 농업이 경제에

상 식

역삼을 리용한 베천생산

베는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리용한 옷감이다.

원시시대부터 가락바퀴를 리용하여 역삼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기 시작한 때로부터 실은 옷을 짓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고조선사람들은 일찌기 수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역삼을 심어 베천을 생산하였는데 그 질이 높아 주변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고구려에서는 30새뿐아니라 40새나 되는 섬세한 베도 생산되였다.

고려에도 마포, 세포, 청포, 금총포, 록포 등 여러가지 베가 있었다.

베천생산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다.

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였다.

고구려에서는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과 세나라통일을 위한 남방진출과정에 비옥한 농경지를 많이 차지하였다.

고구려의 령토확장과정은 농경지의 증대과정으로서 고구려의 농업생산력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되였다.

고구려에서는 제철, 제강기술의 발전에 토대하여 보습을 비롯한 철제농기구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고구려유적들에서 고대시기에 볼수 없었던 철제보습들이 많이 나오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당시 베는 주로 기후가 찬 북쪽지방인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였는데 특히 명천, 경성, 회령, 종성에서 생산된 가는베는 그 질이 특별히 좋아 《북포》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북포》는 발이 매우 가늘고 고왔으므로 18세기 학자인 홍량호는 가는베의 얇기가 매미의 날개와 같고 한필의 부피는 한줌에 쥘수 있을 정도라고 하였다.

강원도지방에서 짠 《강포》, 경상도지방에서 생산된 《령포》, 안동지방에서 생산된 《안동포》들도 색갈이 곱고 광택이 있어 고급베로 널리 알려졌다.

우리 선조들이 짠 베들은 일반적으로 껍질섬유로 평짜임하여 뻣뻣한감이 있지만 올이 비교적 굵은것으로 하여 천짜임이 뚜렷이 안겨와 자연적인 느낌을 주었다.

또한 땀을 잘 빨아들이면서도 살에 잘 붙지 않아 여름철옷감으로 적합하였다.

북쪽의 료녕성 무순시 고이산성과 집안 그리고 평양의 정릉사터와 황해북도 상원군 읍 2호무덤 등에서 고구려시기의 크고작은 철보습들이 나왔다. 대형 및 중형보습에는 흙이 잘 번져지도록 《볏》이라는 철판을 덧대였다.

고구려시기 농작물의 품종도 고대시기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송화강류역의 유적들에서 발견된 탄화된 곡식들은 종류가 다양하였는데 보리에는 늦보리와 쌀보리가 있었고 밀에도 보통밀과 함께 귀밀, 메밀 등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고구려의 농업생산력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광개토왕릉비에 《오곡이 풍요하게 무르익고 나라가 부유하다.》고 기록되여있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상 식

오랜 관개저수지－벽골제

벽골제는 세나라시기에 건설된 관개용저수지유적이다.

백제에서는 일찍부터 농업기술이 발전하였다. 백제에서는 앞선 시기의 벼농사방법을 이어받아 벼농사를 지었다.

백제에서는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안전하게 짓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고 뚝을 쌓는 일을 크게 벌렸다. 백제에서는 222년에 뚝을 수리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렸다.

세나라시기 귀금속생산과 가공기술

우리 선조들은 세나라시기에 발전된 귀금속생산기술과 가공기술을 가지고있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이 만든 숙동은 동광석을 녹여 얻은 생동을 다시 정련로에서 녹여 불순물인 철과 류황을 뽑아낸것이였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금, 은, 동 등을 생산하여 그것으로 각종 세공품들을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도금기술을 발전시켰다.

세나라시기의 순금 및 금동제관들은 모두 얇은 박판으로 만든것인데 박판을 밀어내고 붙인 기술이 매우 높았다.

이것은 백제에서 뚝을 쌓는 일과 그에 필요한 기술이 벌써 3세기초 또는 그 이전부터 발전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백제에서는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330년에 벽골제를 오늘의 전라도 김제시에 쌓았다.

벽골제는 호남벌의 넓은 면적의 논을 적시던 당시 제일 큰 저수지였다. 그후 여러차례 벽골제를 증축하였다.

백제에서 이런 저수지를 건설하였다는것은 당시 우리 선조들의 수리공학지식수준과 시공기술이 대단히 높았음을 알수 있게 한다.

땅속에 천수백년이나 묻혀있었으나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여러가지 도금제품들은 당시의 도금술이 상당히 높았다는것을 알수 있게 해준다.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 고구려무덤떼의 7호무덤에서 고구려시기 금귀걸이가 나왔다.

7호무덤은 하나의 큰 무덤봉분안에 3개의 무덤칸이 평행으로 나란히 남쪽을 향하여 놓여있는 독특한 형식의 무덤인데 동쪽칸에서 금귀걸이가 발굴되였다.

새로 알려진 금귀걸이 역시 굵은 고리식(태환식)의 기본고리와 련결고리 그리고 드림장식으로 이루어져있는 우아하고 정교하며 완성된 조형미를 갖춘 보기 드문 귀금속공예품이다.

특히 련결고리와 둥근 구형의 중간장식에 화려한 련꽃무늬를 돋을새김하여 형상하고 직경이 0.15㎜정도인 아주 미세한 금알들로 루금장식을 한것으로서 고구려금세공술의 뛰여난 발전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고려의 발전된 상업과 대외무역

국토통일을 이룩한 고려인민들은 민족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농업과 수공업, 상업을 발전시켰다.

개경을 비롯한 큰 도시들에 적지 않은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상품류통은 이전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

개경에 큰 점포(상점)들이 나오고 장거래상업과 행상에 의

한 민간상업도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 동국통보, 해동통보 등 구리돈이 나오고 상품류통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 주변나라들과의 대외무역이 발전하면서 고려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고려와 송나라간의 무역이 활발하였는데 두 나라 상인들은 많은 물건들을 배에 싣고 오가며 무역을 크게 진행하였다.

이 시기 고려가 송나라에 수출한 상품은 인삼, 금은세공품, 비단, 자기, 자개박이세공품, 꽃방석, 여러가지 책, 종이,

상 식

코레아의 유래

고려는 대외무역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크게 떨치였다.

11세기에 고려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지고 경제, 문화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대외무역이 전례없이 활기를 띠였다. 이 시기 고려는 송나라, 녀진, 일본, 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 사람들과 무역거래를 하였다.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는 외국의 사신과 상인들이 그칠새없이 찾아들었고 례성강하구의 벽란도는 무역항으로 크게 발전하여 여러 나라 배들이 머물러있어 돛대가 숲을 이루었다.

이처럼 고려는 군사적으로 강대할뿐아니라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된 나라로 세계에 이름떨치게 되였다.

그리하여 《고려》(코레아)라는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먹, 붓, 병풍, 부채 등이였는데 그것들은 중앙아시아와 남방, 유럽에까지 재수출되였다.

이처럼 고려는 동방무역의 중심적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으며 이 과정에 그 명성을 크게 떨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농업발전을 보여주는 서적들

우리 선조들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수한 농업기술과 경험을 많이 창조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것을 집대성한 농업전서들이 많이 나왔다.

대표적인 농서들로서 《농사직설》, 《금양잡록》, 《농가집성》, 《농정신서》, 《림원십륙지》, 《증보산림경제》, 《과농소초》, 《잠상촬요》 등을 들수 있다.

《농사직설》은 1429년에 정초 등에 의하여 편찬되였는데 각지의 농사경험들을 모아 출판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오랜 농업서적이다.

이 서적에는 알곡종자의 준비 및 처리방법, 밭갈이방법, 김매기, 거름내기, 논에 물대는 방법과 벼(논벼, 밭벼)를 비롯하여 기장, 조, 피, 밀, 보리, 콩, 팥, 록두, 메밀과 참깨, 삼 등 알곡과 공예작물의 겸종법이 들어있다.

《금양잡록》은 강희맹이 경기도 금양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적용되던 영농기술과 농민들의 생활을 수록한 농업

기술관계책이다.

여기에는 농가(농사군의 집), 농담(농사와 관련된 이야기), 농자대(농사군의 대답) 등 5편과 농구(농부가) 1편으로 구성되여있다.

《농가집성》은 신숙이 1655년에 편찬한 농업관계책이다.

이 책은 상, 하 두편으로 구성되여있는데 상편에는 앞서 편찬한 《농사직설》과 《금양잡록》 등이, 하편에는 《구황촬요》, 《사시찬요》 등이 실려있다. 《구황촬요》와 《사시찬요》 등에는 흉년에 낟알대신 먹을수 있는 식료품과 병치료법 등이 기록되여있다.

《농정신서》는 안종수가 19세기에 편찬한 근대적인 농업기술서적이다.

이 책의 1권에는 토양, 제2권에는 비료, 제3권과 4권에는 작물재배법이 기록되여있다. 책에서는 농작물을 뿌리, 줄기, 껍질, 잎, 꽃, 열매 등 사람들이 리용하는 부위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고 해설하였다.

이러한 농업전서들은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과정에 풍작을 기원하며 세밀한 관찰과 연구를 진행하여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산물이다.

중세시기에 이처럼 우수한 영농방법을 해설소개한 농업전서들을 가지고있은 나라가 몇개 되지 않는다고 볼 때 이는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된다.

우수한 문명

고구려의 최고교육기관—태학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교육사업을 발전시켜왔다.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이름떨치였던 고구려의 강대성은 경제, 군사력의 발전과 함께 교육의 발전과도 많이 련관되여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남자들이 무술을 련마하고 숙련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국가적으로나 전사회적으로 널리 조직하여 진행하였다. 그러한 고구려의 교육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의 하나는 태학이였다.

태학에서는 여러가지 과목을 배워주었는데 주되는 과목은 유교와 력사, 무술, 글쓰기였고 그외 일정한 자연과학기술도 배워주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국학에서 철경, 삼개, 구장, 륙장 등을 가르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국학이라는것은 봉건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구려시기 태학의 설치와 운영은 고구려에서 강대국의 체모에 어울리게 교육이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고있었음을 보여주고있다.

상 식

고구려의 경당

경당은 고구려의 민간교육기관이였다.

고구려사람들은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나 궁벽한 동네에서 땔나무를 하고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나 모두가 배우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경당이라고 부르는 큰집을 거리와 마을, 깊은 산중에 지어놓고 거기에 자식들을 보내여 공부시켰다.

경당에는 결혼전의 미성년들이 다녔으며 그들은 이곳에서 밤낮으로 글을 배우고 력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였다. 중요하게는 경당에서 활쏘기, 말타기, 칼쓰기 등 여러가지 무술을 익히는 동시에 체력을 단련하였다.

이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곳곳에 경당과 같은 민간교육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청소년들을 고상한 조국애와 향토애로 교양하였으며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세기 고구려가 천년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힘있게 떨칠수 있게 하였다.

고구려의 경당은 그후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서당으로 이어졌다. 신분에 관계없이 어렸을 때부터 무술과 학문을 좋아한것으로 하여 우리 선조들은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고 반침략투쟁에서 용감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었다.

고려시기의 성균관

고려는 고구려의 우수한 교육전통을 이어 992년에 국립대학의 면모를 갖춘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이 국자감에서는 봉건관리들과 학자들을 양성하였다.

국자감은 중앙급최고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후 국자감은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추어나가는 과정에 1308년에 성균관으로 개편되였다. 당시 성균관에는 국자학, 대학, 률학, 서학, 산학 등 학과가 있었다.

당시 이름있는 봉건유학자들을 책임관리로 임명하여 4품이하의 관리들을 모아 봉건유교학문과 봉건도덕을 가르치게 하였다.

학생들은 생원, 진사의 자격을 가진 량반들가운데서 뽑았으며 그것으로 모자랄 때에는 수도안의 량반자식들을 위한 관립유교교육기관인 4학의 학생들가운데서 보충하였다.

세계적으로 력사가 오랜 대학들로서 이딸리아의 볼로냐대학(1088년 창립), 영국의 옥스포드종합대학(1100년경 창립), 프랑스의 빠리종합대학(1150년 창립) 등이 있다.

그러니 992년에 중앙급국립대학의 면모를 갖추고 창립된 성균관은 세계최초의 대학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발전된 교육체계

15세기 조선봉건왕조의 중앙집권적통치체제가 재정비되면서 이에 따라 교육체계도 발전하였다.

당시 조선봉건왕조가 직접 운영하던 관학교육기관으로서는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과 한성 4부에 설치되였던 4학 그리고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성균관에서는 유교의 기본경전들인 4서와 5경을 가르쳤다.

성균관에는 문관계통의 관리들이 배치되여 해당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총책임자인 지사와 동지사 등 높은 자리에 있는 관료들은 다른 기관의 관리가 겸임하였다.

지방의 교육기관인 향교에서는 지방의 량반, 토호자식들에게 유교교육을 진행하였다. 향교는 매개 고을들에 각각 한개씩 설치되여있었다.

15세기부터는 조선봉건왕조가 직접 운영하는 관학교육과 함께 개인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설교육도 진행되였다.

사설교육기관으로서는 서원(서당)이 있었다. 서당교육에서는 주로 글자를 익히고 뜻을 해석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처럼 조선봉건왕조는 관리들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가지고 인재육성에 힘을 넣었다.

고대시기 우리 민족의 언어

우리 민족은 고대시기부터 발전된 말과 글을 가지고있었다.

현대조선어가 가지고있는 특성은 우리 말 발생의 초시기부터 가지고있던 고유한 언어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옛책들에 남아있는 당시의 고장이름, 사람이름, 벼슬이름을 비롯한 일련의 자료들은 고대시기 우리 말의 발전모습을 엿볼수 있게 한다.

실례로 옛 기록들에서 고조선의 수도나 부수도를 왕검성이라고 하였는데 왕검성에서의 왕검은 니무거머(님검) 즉 임금이라는 말을 옮겨놓은것이다.

이처럼 왕검성이라는 말에서 고대 우리 말의 옛 모습을 찾아볼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단군조선시기부터 신지글자로 전해오는 자기의 고유한 글자를 만들어 썼다.

단군의 신하인 신지가 사슴발자국을 모방하여 만든 신지글자는 조선민족의 원시조글자이다. 《녕변지》에는 신지글자의 16자가 들어있다.

고조선시기의 옛무덤들에서 나온 질그릇들에도 《녕변지》의 신지글자와 같거나 비슷한 글자가 씌여있는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신지글자가 고조선시기에 쓰이였으며 또한 《녕변지》의 16글자외에도 더 많은 글자들이 쓰이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신지글자는 그림글자, 모양본딴글자, 부호글자 같은 시초글자형태를 거쳐 단군조선 초시기에 창제된 첫 고대글자로 인정되고있다.

고대시기부터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자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었다고 볼 때 우리 민족은 세계언어학발전에 큰 기여를 한것으로 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문자－훈민정음

우리 민족은 1444년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에서 훈민은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이고 정음은 우리 말의 바른소리를 적은 글자라는 뜻이다.

훈민정음을 만드는데는 세종의 주관밑에 집현전의 학자들인 정린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등이 참가했다.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온 이후 우리 문자의 과학리론적인 해설서인 《훈민정음해례》가 편찬되였다.

《훈민정음해례》는 그 이름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훈민정

음에 관한 해(풀이)와 례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책의 첫머리에 세종이 지은 머리글과 례의를 놓았으며 마지막에 정린지의 서문을 달아놓았다.

여기에는 훈민정음창제의 목적과 글자모양, 그 소리값 그리고 글자를 만든 원리, 매개 말소리의 조음상특성 등이 상세하게 밝혀져있다.

훈민정음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글자이다.

훈민정음은 28자라는 적은 수의 문자를 가지고 조선어와 세계 그 어느 나라 언어도 자유롭게 적을수 있고 표현할수 있다.

또한 그것을 만든 원리가 과학적이고 매개 문자가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있어 누구나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점을 가지고있다.

훈민정음은 다른 나라 글자를 받아들이거나 거기서 기원한것이 아니라 조선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만든 고유한 글자이다.

훈민정음은 말소리가 이루어지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글자들이 만들어졌다.

글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은 모양이고 《ㄴ》은 혀끝이 웃이몸에 닿은 모양이며 《ㄷ》은 《ㄴ》자에 하나의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그리고 《ㅁ》은 입술모양을, 《ㅅ》은 이발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것들이다.

자음글자만이 아니라 모음글자도 우와 같은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창제되였다.

이처럼 우수한 조선글자는 세상사람들의 찬사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한 이름있는 대학의 교과서에는 조선글자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쓰이고있는 글자보다 가장 과학적인 체계의 글자》라고 씌여져있다.

또한 지금 세계의 적지 않은 언어학자들과 정보학전문가들은 조선글자를 세계통용글자 혹은 콤퓨터의 통용글자로서 가장 리상적인것으로 인정하고있다. 언어학계에서 제노라 하는 유럽의 한 대학에서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세계 모든 글자의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 글자가 단연 첫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1997년 유네스코에서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조선어의 우수성

조선어는 우리 민족이 창조하고 가꾸어 세련시킨 우수한 언어이다.

조선어의 우수성은 무엇보다 반만년의 력사적유구성과 단일성, 순수성을 보유하고있는 말이라는데 있다.

우수하다고 뽐내는 유럽의 언어들을 보더라도 여러 민족어들사이의 동화와 소멸, 교차를 거치는 과정에 체모를 갖춘 언어들로서 말소리와 발음, 문법에서 공통성이 많으며 특히 어휘구성에서는 교차과정에 생긴 수많은 차용어들이 끼여들어 그 순수성이 흐려지고있다.

하지만 조선어는 오랜 세월 계승되여오면서 민족적특성이 뚜렷이 살아있고 고유어휘들이 어휘구성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말소리체계로부터 문법구조에 이르기까지 민족성이 보장되여있다.

조선어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가 류창하며 아름다운 언어라는데 있다.

우리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하기때문에 구체적인 말소리단위들(음운)에서는 다른 나라 말소리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언어의 발음으로 모든 나라 말소리들을 다 나타낼수 있다.

우리 말은 말소리가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이 좋아 듣기에도 아름답다.

조선어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어휘가 풍부하고 표현이 매우 다양하다는데 있다.

우리 말은 어휘와 표현이 풍부하여 그 어떤 복잡한 사상이나 섬세한 감정을 정확히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도 있고 울릴수도 있는 언어로서 다른 언어들에서 그 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수한 언어이다.

우리 말의 어휘와 표현의 다양성은 특히 고유어에서 더 잘 나타난다.

우리 말에는 이야기를 듣는 대상에 따라 같은 내용도 서로 다르게 표현할수 있게 어휘들이 치밀하게 발달되여있다.

이밖에도 조선어는 문법구조가 치밀하게 째여있다. 문법구조가 째였다는것은 언어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특히 우리 말은 토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치밀하게 발달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그 어느 나라의 언어보다도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세계적인 문화재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불교경전들과 불교관계서적들을 집대성한 불교총서로서 고려시기 우리 선조들의 높은 출판인쇄기술을 보여주고있다.

《팔만대장경》에는 불도를 깨닫고 세상을 구제한다는 불교의 근본원리와 방도, 불교신자들의 생활규범과 준칙, 불교교

리에 대한 연구해석서와 그것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력사, 전기, 어문, 서지 등과 같은 참고자료들이 실려있다.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는 《팔만대장경》의 목판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에, 그 판본은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 보현사에 보관되여있다.

《팔만대장경》의 목판재료는 호박나무, 박달나무, 자작나무 등이다. 목판의 글자와 판들은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품을 방불케 한다.

목판의 량쪽 끝에는 꼬이지 않도록 베개목을 덧대고 네 귀에는 닳지 않도록 청동띠를 대여 감싸주었으며 옻칠을 하였다.

《팔만대장경》은 판본의 정확성, 경판의 정교성, 판본의 유구성 등으로 하여 세계적인 표준대장경, 세계적인 문화재로 평가되고있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

고려시기 인쇄기술의 발전에서 특기할 사실은 금속활자를 발명한것이다.

고려사람들은 12세기전반기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12세기 전반기 금속활자의 발명은 목판인쇄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탐구의 결과였으며 고대로부터 발전해온 우리 선조들의 높은 금속가공기술이 낳은 열매였다.

금속활자의 발명시기를 보여주는것은 《고금상정례문》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대한 기록이다.

이 사실은 당시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널리 진행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에 만든 금속활자는 동, 주석, 연, 규소, 아연 등 금속을 녹여 만든것이였다.

한편 금속주조 및 가공기술이 발전하면서 11세기말～12세기초에 금속활자주조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동통보, 동국통보 등 글자가 뚜렷이 새겨진 구리돈을 많이 부어낼수 있게 되였다.

1430년대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쓴 연활자는 먹이나 잉크가 그 표면에 잘 묻고 따라서 인쇄물의 선명성과 질을 보장할수 있었다.

조선에서 12세기에 금속활자가 널리 쓰이고있었다는 사실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서적이 풍부하였던 고려

고려는 여러가지 종류의 책을 많이 가지고있은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었다.

고려가 서적이 풍부한 나라로 될수 있었던것은 우수한 출판인쇄기술과 종이생산기술을 가지고있은것과 함께 고려에서 서적을 편찬, 보관하고 확보하는데 많은 관심을 돌린것과 관

련되여있다.

불교총서인 《팔만대장경》은 당시 그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조판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서적이였다.

고려를 방문하였던 이웃나라 사신은 고려에 희귀한 책들이 다 있고 문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는 서적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나라의 과학문화발전을 촉진할수 있었다.

고려는 서적보유면에서나 출판인쇄수준에서 볼 때 동방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것으로 하여 여러 나라들에 서적을 수출하였다.

다른 나라에 수출된 서적을 보면 주로 력사책, 지리책, 의학책, 사전류, 개인들의 문집, 력서류, 병서, 음악책, 족보, 시집, 그림 등이였다.

이처럼 고려의 다양하고 풍부한 서적들은 동방의 으뜸가는 문명국으로서의 고려의 발전된 문화를 널리 과시하였다.

오랜 력사를 가진 규장각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가치있는 민족고전들을 가지고있었을뿐아니라 그것을 보관관리하고 열람하는 전문기관들도 가지고있었다.

고구려시기에는 태학을 설치할 때 옛날책들을 수집, 보관하고 열람하는 체계가 세워져있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생긴 교사안의 도서관이였다.

고려시기에는 고구려 태학의 전통을 이은 림천각 등을 설치하고 민족고전들을 보관열람하였다.

규장각은 조선봉건왕조의 중앙도서관, 출판기관이였다.

15세기 중엽에 처음 설치된 규장각은 내각과 외각으로 되여있었는데 내각은 규장각의 본관이고 외각은 규장각의 분각이였다.

규장각의 내각은 전반사업을 맡아보았는데 여기서는 도서의 수집과 보관, 정리사업을 그리고 도서의 출판인쇄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규장각의 장서는 18세기말에 3만권, 20세기초에 약 18만권에 이르렀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고구려시기에 벌써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서는 규장각과 같은 큰 규모의 중앙도서관, 출판기관을 가지고있었다.

력사와 지리도서 편찬

오랜 력사책들인 《류기》와 《신집》

우리 선조들은 고대시기부터 여러 력사책들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하여 없어지고 고구려시기의 력사책들가운데서 《류기》와 《신집》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있다.

《류기》는 고구려 초기 봉건왕조의 력사를 서술한 100권으로 구성된 책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태학박사 리문진이 왕의 령을 받고 이 《류기》를 요약수정하여 《신집》 5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신집》도 없어져 전해오지 않지만 《신집》을 쓸 당시인 600년에는 《류기》가 존재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고구려 초기에 벌써 《류기》와 같은 100권으로 된 방대한 량의 력사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보다 앞선 고조선에서도 력사책편찬이 진행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태학박사 리문진은 여러곳을 편답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력사책을 만들었다.

상 식

단군신화를 전하는 도서 《고기》

우리 선조들의 고대시기 첫 기록인 《고기》에 대해서는 13세기에 편찬된 《삼국유사》에 반영되여있다.

이 책의 《고기》라는 기록에는 단군신화내용이 기록되여있는데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란이가 있어 자주 천하에 뜻을 두면서 인간세상을 몹시 바라고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을 보니 인간들에게 커다란 리익을 줌직하므로 그에게 천부인 3개를 주면서 내려보내여 다스리게 하였다. 웅이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아래로 내려오니 이를 신시라 이르고 그를 환웅천왕이라고 일렀다.

…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그(곰녀인)와 혼인하여 애기를 배게 하여 아들을 낳으니 부르기를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단군왕검이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칭하였다.》

이 《고기》자료의 단군신화내용은 우리 민족사에서 국가발생이전에 평양일대에 환웅을 우두머리로 하는 부족련맹이 형성되였으며 그 아들인 단군왕검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단군신화내용을 전하는 《고기》는 고조선시기의 첫 기록으로 된다.

그는 새로 고구려력사를 묶었다는 뜻에서 《신집》이라는 책명을 달아 세상에 내놓았다. 오늘 이 책은 현물이 없이 이름만 전해지고있는데 《류기》보다 더 내용이 풍부하고 사료적가치가 더 많았을것이라고 인정되고있다.

이러한 전통이 있었기에 그후 고구려의 력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시기의 《고려사》,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조선봉건왕조실록》과 같은 방대한 규모의 력사기록들이 나올수 있었다.

민족고전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첫 봉건국가들이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력사를 서술한 민족고전이다. 이 책은 고려의 봉건관리 김부식이 책임지고 1145년에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모두 50권으로 되여있다.

서술체계는 봉건시대 력사책편찬의 정통적방법으로 되여있던 기전체로서 본기, 년표, 지, 렬전으로 이루어져있다.

1권-12권은 신라본기, 13권-22권은 고구려본기, 23권-28권은 백제본기, 29권-31권은 년표, 32권-40권은 잡지, 41권-50권은 개인전기를 실은 렬전으로 되여있다.

본기에는 세나라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 왕대에 있은 력사적사실들과 건국전설, 건국경위, 소국통합으로부터 봉건국가에로의 발전과정, 인민들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자료, 주

변나라들과의 호상관계자료, 높은 과학기술수준을 보여주는 천문기상관측자료들이 년대순으로 서술되여있다.

년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각 왕들의 통치년대가 이웃나라 력대 왕조들의 통치년대 및 간지와 대비적으로 기록되여있다.

잡지는 제사지, 악지, 색복지, 옥사지, 지리지 등으로 되여있다.

렬전에는 대신, 장군, 학자, 문인, 충의, 효행, 렬녀, 서화(글씨와 그림), 반역 등의 체계에 해당한 인물들의 전기가 실려있다.

《삼국사기》는 편찬자자신의 계급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기본사료들이 지배계급의 립장에서 선택되고 평가되였으며 적지 않은 개소들에 사대주의적관점이 짙게 반영되여있는 등 일련의 약점들을 가지고있으나 오랜 력사책으로서 세나라시기의 력사연구에서 없어서는 안될 문헌유산으로 되고있다.

《삼국사기》를 보충한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빠뜨렸거나 잘못 기록한 기록들을 보충시정한 야사책이다.

고려의 스님 일연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세나라시기의 력사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고대국가들과 고려왕조의 력사자

료, 이름난 스님들의 일화, 불교관계자료들을 묶어 13세기 말엽에 야사체의 력사책을 편찬하였다.

《삼국유사》는 모두 5권 9편으로 되여있다. 1권—2권은 왕력과 기이, 3권은 흥법과 탑상, 4권은 의해, 5권은 신주, 감통, 피은, 효선으로 되여있다.

왕력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락국의 년표가 이웃나라 왕조들의 년호 및 간지와 대비적으로 기록되여있고 기이에는 고조선이래 여러 국가들과 고구려, 백제, 신라 각 왕대의 력사자료들과 후기신라 말기까지의 력사 및 후백제, 가야에 대한 기사들이 실려있다.

흥법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불교를 들여오고 전파한 스님들과 그밖의 이름난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있고 탑상에는 명산들과 사찰들에 세워졌던 탑과 불상, 종, 사리 그리고 사찰들에 대한 기사들이 서술되여있으며 의해에는 신라의 이름난 스님들의 전기들이 실려있다.

신주에는 밀교(불교의 한 교파)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감통에는 불공을 해서 나타났다는 《신기한 일》에 대한 기사들이, 피은에는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효선에는 효자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각 실려있다.

《삼국유사》는 정사인 《삼국사기》가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남겨둔 자료들을 추려모은 야사라는데 그 기본특징이 있으며 책의 이름도 그러한 의미에서 단것이다.

이 책에는 현재까지 전해지지 못한 옛날사료들을 인용한것만도 50종이 넘으며 비문, 고문서 등도 20여종에 달한다.

이 책은 우리 민족의 고대 및 중세초기력사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며 그 사료적가치가 크다.

《고려사》

15세기에 이르러 봉건편사학이 발전하여 적지 않은 력사책들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것이 《고려사》이다.

《고려사》는 고려통치기간에 일어난 사실들을 년월일순서에 따라 기록한 년대기형식과 사람들의 전기를 묶은 책이다.

이 책은 1392년부터 1395년사이에 처음으로 편찬된 후 여러번 수정보충하여 1451년에 김종서, 정린지 등에 의하여 완성되여 1454년에 출판되였다.

《고려사》에는 우왕과 창왕을 제외한 32왕대의 력사를 년월일순서로 기록하고 천문, 지리, 력사, 병지 등으로 그 내용들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고려시기에 활동한 인물들의 전기가 실려있다. 특히 이 책에는 왕조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고려시기의 사회경제제도와 그에 따르는 인민들의 생활과 풍속 그리고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들의 투쟁에 관한 자료들도 있다.

이와 함께 고려시기에 이룩한 과학문화성과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실려있다.

《고려사》는 분량에 있어서 《삼국사기》의 10배나 되는 책으로서 우리 민족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사회경제형편과 과학문화에 관한 풍부한 자료들 그리고 외국의 력사적사실들도 적지 않게 싣고있어 고려사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500여년간의 력사를 담은 《조선봉건왕조실록》

《조선봉건왕조실록》은 조선봉건왕조가 존재한 전기간에 걸쳐 전국각지에서 있었던 크고작은 사건과 사실들을 27왕대별력사에 따라 년월일순으로 실어놓은 력사기록이다.

실록에는 조선봉건왕조의 정치제도와 경제, 문화, 군사문제와 관련한 대내정책과 시책, 외교, 무역, 문화교류 등 대외활동 그리고 음악, 무용, 미술, 공예를 비롯한 예술분야와 천문, 기상,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폭넓게 수록되여있다.

자연현상자료만 보아도 비가 내린 현상을 비가 내린 형태, 시간, 지역, 피해정도를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일식과 월식, 지진, 해일, 이상기후현상자료들도 상세히 기록하고있다.

특히 1441년에 발명한 측우기, 1519년 6월에 관측한 극광에 대한 자료도 매우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실록》은 임진조국전쟁과 일제침략자들의 략탈행위, 화재로 파괴유실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그후 실록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관심속에 번역되여 출판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실록》은 담고있는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그 가치가 매우 큰것으로 하여 여러 분야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대규모의 전국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530년에 리행 등이 편찬한 력사지리에 관한 백과전서적인 책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행정지역별로 되는 정확한 전국지리지를 편찬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사업을 조직하고 그에 기초하여 각 도 지리지, 《팔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하였다.

그후 여러 지리지들을 종합하여 1481년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고 그를 더 완성하여 백과전서적인 력사지리도서를 마련하였다.

책의 첫머리에는 팔도총도가 있고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지도가 붙어 모두 330개 지역의 지리를 서술하였다.

경도편에서는 국도, 성곽, 궁궐, 단묘(제당과 사당), 원유(정원 또는 후원), 문무, 중앙관청 등에 대하여 쓰고있다.

군현별서술에서는 해당 군현의 설치와 변천정형, 관리의 정원, 군명, 성씨, 지형과 지세 및 형승의 특징과 시문, 풍속,

명산, 대천과 고개, 봉우리, 포구, 나루터, 섬, 못, 늪 등의 자연지리적특징 그리고 읍성과 산성, 봉수, 자연산물과 재배품종, 수공업제품과 특산물, 관방, 학교, 루정, 역참과 창고, 교량, 시가, 사당과 릉묘, 고적 등에 대하여 쓰고있다.

이 책은 전국적인 실지조사에 근거하여 당시로서는 비교적 정확하고 가치있는 자료들을 담고있는 국보적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첫 세계려행기―《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초 불교학자이며 스님이였던 혜초가 쓴 첫 세계려행기이다.

혜초는 불교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불교의 발상지인 천축국에 직접 가볼것을 결심하고 멀고 어려운 려행의 길에 올랐다.

천축국이란 오늘의 네팔과 인디아를 포괄하는 남아시아지역에 세워졌던 나라였다.

당시 천축국은 동, 서, 남, 북, 중앙 등 5개의 소국으로 나뉘여져있었다. 그러므로 혜초는 5개의 천축국에 갔다온 이야기라는 뜻에서 책의 제목을 《왕오천축국전》이라고 달았다.

혜초는 많은 나라들의 사회정치제도와 자연지리적조건, 사람들의 경제생활형편과 문화생활, 도덕과 풍습, 종교와 미신 등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

하였다.

내용의 상세성과 정확성, 사물현상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재치있는 비교분석, 격식없는 자유분방한 서술로 하여 《왕오천축국전》은 중세 우리 선조들의 려행기문학의 높은 발전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걸작으로 되고있다.

이 책은 혜초가 멀고 간고한 려행과정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비교적 생동하고 자세히 서술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서 려행기문학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이러한 사료적가치와 문학사적의의로 하여 《왕오천축국전》은 세계적인 문헌유산으로 되고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세계지도들

15세기에 우리 선조들은 《혼일강리력대국도지도》와 《천하도》라는 세계지도를 만들었다.

《혼일강리력대국도지도》는 사하라사막, 알랙산드리아항구와 등대를 표시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근동의 수십개 지명까지 밝힌 비교적 세밀한 지도이다.

또한 륙지와 바다, 사막을 눈으로 보고 인차 구별할수 있게 바다는 푸른색, 사막은 검은색을 칠하는 등 지도로서의 직관성을 높이였다.

《천하도》라는 세계지도첩에는 조선지도와 세계지도뿐아니라 당시 주변나라들의 지도들이 따로 들어있었다.

1471년에 편찬된 《해동제국기》에 반영되여있는 일본의 본국지도와 규슈, 이끼섬, 쯔시마섬의 지도들, 류뀨지도 등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랜 일본지도로서 일본지리학발전에 큰 영향을 준것들이였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15세기에 벌써 세계지도를 만들어 사회생활에 적극 리용하고 세계지도학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19세기의 실학자이며 애국적인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1861년에 작성한 세계적인 조선전도이다.

김정호는 이미전에 만들었던 조선전도인 《청구도》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방방곡곡을 메주밟듯 현지답사하면서 지형조사와 실지측량을 하여 이 지도를 작성하였다.

대동여지도는 국토를 지구의 위도선에 따라 22개 부분으로 가로 나눈 다음 그 매개 부분을 1첩으로 하고 각각 병풍식으로 접어 첩본을 만들었다.

지도에는 바다, 해안, 강하천, 호수, 산과 산줄기 그리고 주, 군, 현의 경계, 부, 읍, 리의 구분, 항, 부곡 및 시장, 사원, 향교, 루각, 궁궐, 사찰, 옛 싸움터, 도로, 역참, 나무다리, 암초 등 교통관계 대상들도 상세히 묘사되여있다.

지도는 그 구체성과 실용성으로 하여 여러번 재판되였다.

그후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재판하면서 지도제작과정에서 얻은 조사자료와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지리지인 《대동지지》를 편찬하였다.

《대동지지》에는 인구통계, 군대배치와 그 력량, 전세부역관계, 장시, 공납, 배의 종류와 척수 및 용도, 역참, 풍속 등에 걸쳐 고을별로 체계적으로 서술되여있다. 그러므로 이

지리지는 대동여지도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귀중한 문헌유산으로 된다.

대동여지도는 당시 조선의 모습을 현실그대로 묘사한 귀중한 지도유산이며 당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지도였다.

2. 과학기술편

발명과 발견 ······································ 58

기상천문학 ······································ 67

고려의학 ······································ 80

군사과학과 무장장비 ······································ 92

발명과 발견

일찍부터 발전한 콩재배기술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야생콩을 재배콩으로 전환하는 콩재배기술을 창조하고 콩농사를 시작하였다.

고고학적발굴에서 콩의 실물자료가 발견된 나라가 몇개밖에 되지 않는데 콩의 재배년대를 보면 우리 선조들이 가장 오래다.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에서 발굴된 콩은 국가시대이전인 B.C. 4 000년기 후반기의것인데 이 콩들은 알들이 비교적 크면서도 상당한 정도로 고르롭다.

콩의 원조상인 야생콩을 우리 선조들이 제일먼저 심어 가꾸었다. 그후 반재배콩을 거쳐 4 500여년전부터는 지금의 조선아종콩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콩의 이름유래를 보더라도 콩이라는 말자체가 고유한 조선말에서 유래된것이다.

콩이란 말은 사람이나 동물의 코와 같이 얼굴에 동그랗게 돋아난것이라는 의미인데 《단추코》, 《그물코》에서와 같이 끈이나 실을 동그랗게 매듭지어놓거나 뭉쳐놓은 《고》 또는

《코》에서 유래되였다.

콩과 관련한 속담도 《콩튀듯 하다.》, 《번개불에 콩닦아 먹겠다.》, 《비둘기마음 콩밭에 가있다.》, 《콩 심은데 콩나오고 팥 심은데 팥나온다.》 등 수없이 많다.

된장, 간장을 비롯하여 콩나물, 두부, 콩우유 등에 이르기까지 콩음식만 해도 수십가지인데 이것은 예로부터 콩이 우리 선조들의 생활과 깊은 련관을 맺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대시기 발전된 도금기술

고대시기부터 우리 선조들은 도금기술을 발전시켜왔다.

고대도금기술에는 아말감법이 많이 씌였는데 이 방법은 당시 금속제품생산의 주되는 기술방식이였다.

아말감법이 개발된것은 사금을 많이 리용한 사정과 관련된다.

아말감은 수은과 다른 금속의 합금으로서 금과 석을 용해시켜 얻어낸 금이나 미세한 사금을 포집하는데서 수은은 필수적인것이였다.

우리 선조들은 금의 포집과정에 가루형태의 금을 수은에 타는 방법을 창안해냈으며 그에 기초하여 아말감법을 발견하였다.

아말감법은 수은과 금분을 혼합한 아말감을 만든 다음 순동 또는 청동으로 된 제품에 그것을 바르고 열을 가하여 수

은을 증발시켜 제품에 금박을 씌우는 방법이였다.

그외 금속겉면에 얇은 광택질막을 씌웠는데 이것이 바로 석도금이였다.

석도금한 좁은 놋단검, 놋창, 놋과 등 무기들은 수천년동안 땅속에 묻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녹 한번 쓸지 않았다.

이처럼 녹이 쓸지 않은 수천년전의 금속제품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금속도금기술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고대시기에 창안도입된 물방아

우리 선조들은 신석기시대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에서 낟알을 걷어내는 여러가지 방법을 창안하였다.

이 과정에 낟알껍질을 벗기는 도구인 절구와 물방아 같은 독특한 농기구를 리용하게 되였는데 물방아는 우리 선조들의 식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물이 떨어지는 힘을 리용하여 낟알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내는 기구인 물방아는 일명 수차라고도 하였다. 물을 리용한 방아에는 물레방아와 물방아가 있는데 물방아를 통방아라고도 하였다.

물방아는 골짜기의 물이나 시내물을 끌어오는 도랑보다 낮은 지대에 방아간을 짓고 설치한다.

도랑에서 떨어지는 물이 물통에 차면 그 무게로 방아다리가 내려가고 방아공이는 올라간다.

물통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울어지면 물이 쏟아지고 상대적으로 무거워진 방아공이가 내려가면서 확안의 낟알을 찧는다.

방아공이가 내려가면 방아다리는 올라가서 물통에 물이 담겨지고 방아다리는 다시 내려가게 된다.

방아는 박달나무나 참나무와 같은 굳은 나무로 만들었다.

방아의 길이는 대략 5～6m이며 경우에 따라 이보다 크게도, 작게도 만들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베틀

우리 선조들이 남먼저 만들어 리용한 베틀은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천을 짜기 시작한것은 원시시기부터였으며 오늘까지 발굴된 고고학적자료와 민속학자료에 의하면 청동기시대에 일정한 형식을 갖춘 원시적인 수직식직기가 창안도입되였다.

그후 세나라시기부터는 근대에까지 전달된 형태의 베틀이 리용되였다.

우리 선조들이 처음으로 짠 천은 베였는데 베를 짜는 기구를 베틀이라고 하였다.

그후 명주나 무명 등의 천을 짜는것도 베틀이라고 하여 천짜는 기구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되였다.

베틀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두개의 누운 다리에 구멍을 뚫어 앞다리와 뒤다리를 세우고 가로대로 련결하였다. 여기에 도투마리를 얹고 잉아를 걸어 말코에 걸게 되여있다.

우리 선조들의 천짜는 기술은 일본에 보급되여 그 나라의 천짜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목화재배와 면직업

우리 선조들은 고대로부터 베와 모시, 명주와 비단 등 다양한 천을 생산하여 기호에 맞게 옷을 해입었다.

그러다가 14세기 후반기 목화(면화)재배에 성공하여 무명천 생산이 보급되면서 직조업에서 큰 변혁이 일어났다.

그것은 문익점(1329—1398)이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화씨를 붓대속에 넣어가지고 돌아온 후 씨를 뿌려 재배한것과 관련되여있다. 문익점은 고려시기의 애국적문관으로서 23살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은 정언, 좌사의대부 등을 지냈으며 1363년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원나라에서는 그를 강제로 억류하고 매수하여 고려를 침략하는데 리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문익점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그로 하여 《귀양》갔다. 그곳에서 그는 목화를 재배하는것을 보고 조국에 돌아와 목화를 심어 보급시킬 결심을 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돌아올 때 10여알의 목화씨를 붓대속에 넣어가

지고 왔다.

1364년에 고향인 진주지방에서 장인 정천익과 함께 첫 목화를 심었다.

재배법을 잘 알지 못했던탓으로 첫해에는 겨우 한그루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문익점은 목화재배를 계속하여 3년만에는 마을농민들에게 목화씨를 나누어주어 널리 심도록 하였다.

그후 그의 자손들에 의하여 씨아와 물레가 만들어져 10여년안팎에 목화재배법과 무명짜는 법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 퍼지게 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 목화재배와 무명천생산은 면직업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였다.

목화재배는 그후 중부이북지역으로 보급되였다.

독특한 제련법인 단천련은법

조선봉건왕조시기 오늘의 함경남도 단천지방에서 연광석에서 연과 은을 따로따로 뽑아내는 새로운 제련법을 발명하였다.

이 제련법에 의하면 쇠로 만든 남비의 안벽에 맹재(석회를 가공한 내화물)를 바르고 광석덩어리를 채운 다음 남비전체를 질그릇쪼각으로 덮고 그 우아래에 놓은 숯에 불을 달아 광석을 녹이게 되여있었다.

이때 로안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이 먼저 흘러내리고 은은 우로 끓어오르게 되는데 여기에 물을 뿌리면 연이 굳어져나오고 은은 은대로 나오므로 은과 연을 손쉽게 갈라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제련법에 대하여 단천련은법이라고 하였다.

16세기초에 우리 선조들이 발명한 단천련은법은 당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은 독특하고 우월한 제련기술이였다.

기중기의 조상—거중기

거중기는 주로 아래우로 움직이면서 짐을 옮기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목재기중기였다. 오늘의 기중기와 작용원리가 같다.

거중기는 1794년—1796년에 수원성을 쌓을 때 이 성의 설계를 작성하고 축성사업을 기술적으로 지도한 정약용(1762—1836)에 의하여 창안제작되였다.

거중기의 구조는 우와 아래에 각각 4개씩의 쌍도르래가 달린 본체와 그 좌우에 고륜, 록로, 십자궐 등으로 된 북틀로 이루어져있다.

맨우의 가름대에 매여진 두개의 바줄을 도르래의 도움으로 제가끔 아래우로 네번 걸게 되여있고 그 두끌은 좌우로 고륜, 록로를 거쳐 거중기북틀 아래부분에 달린 십자궐에 감게 되여있다.

수원성을 쌓는데 거중기를 10대나 만들어 씀으로써 많은 로력을 절약하고 공사비를 훨씬 줄이였다고 한다.

거중기는 비록 중세기적인 수공업적기술에 토대한것이기는 하나 거의 모든 구조물을 나무로 만들게 되여있고 구조가 매우 간편하여 당시의 조건에서도 제작과 리용에 편리하였다.

거중기는 바줄을 감는데 드는 힘과 매 부분의 세기 및 전체적인 안정성도 력학적으로 잘 처리되여있어서 적은 힘으로 비교적 큰 무게를 들수 있었다.

이렇듯 거중기는 우리 선조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창조물이다.

최초의 측량기 규형인지의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거리, 방향, 높이 등을 재는 측량기구제작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지형도를 기계적방법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1467년에 규형인지의를 제작하였다.

규형인지의는 대상물체까지의 거리, 그 방향, 높이 등을 정확히 측정할수 있게 하는 측량기계였다.

규형인지의를 인지의라고도 하였는데 수직축과 이 축에 직각으로 꽂혀져 돌아가는 수평눈금판의 두 부분으로 되여있다.

수직축에는 물체를 겨누는 기구인 규형이 붙어있는데 이것은 수직면을 따라 아래우로 움직일수 있게 되여있다.

수평눈금판에는 24방위가 새겨져있어 약 7° 정도의 정확도로 방위를 판정할수 있게 되여있다.

또한 이 기구에는 지북침이 붙어있기때문에 기계의 방향을 정확히 취할수 있었다.

15세기에 규형인지의를 제작하여 수도 한성안의 지형측량과 여러 지도작업을 정확히 진행하였다.

기상천문학

고대천문학의 발상지

우리 선조들은 고대시기에 벌써 천문기상현상을 세심히 관찰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우에 있는 별자리그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평안남도 증산군 룡덕리, 평원군 원화리, 평양시 강동군 화강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고인돌무덤 뚜껑들에 새겨진 별자리그림들은 단군조선시기의 천문학발전모습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고대의 별자리그림들은 우리 선조들이 별과 별자리들을 도형화하여 그림으로 옮겨놓을수 있을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천문지식을 체득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선조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별들의 회전운동, 세차현상에 대한 일정한 표상을 가지고있었다.

특히 계량하기 힘든 별의 밝기까지도 도형으로 변화시켜 별들을 분류할수 있을만큼 별밝기를 상당한 수준에서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별자리그림들에서는 둥근 구멍들을 쪼아내여 별과 별자리들을 나타내였는데 그 크기가 각이하였다.

고인돌무덤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고유한 력사유적이며 여기에 별자리가 새겨진것은 우리 민족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새긴 고인돌무덤의 별자리들은 하늘의 별을 동물이나 신과 같은것으로가 아니라 현대의 천문도와 같이 생동하게 그대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고인돌무덤의 별자리 즉 고대의 석각천문도는 조선이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고대천문학의 발원지이며 고인돌무덤의 발상지인 단군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의 대동강류역이 고대천문학의 발상지임을 보여주고있다.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와 천상렬차분야지도

천문학계에서 높이 평가되고있는 천상렬차분야지도는 1395년에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를 대본으로 하여 만들어진것이다.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에는 당시 평양의 밤하늘에서 볼수 있었던 별들을 하나의 원안에 수백개의 별자리들로 갈라서 표시하였는데 이것을 먹으로 종이에 떠서 만든 항성표(별자리그림)를 천문관측과 력서편찬에서 기초자료로 리용하였다.

이 석각천문도에서는 우선 북극을 원의 중심에 놓고 전체 천구를(따라서 모든 별들을) 돌판의 평면우에 투영하는 방법을 썼으며 모든 별들의 위치는 북극으로부터 극자리표의 크

기에 따라 비교적 정확히 표시하였다.

또한 천문관측자들이 매일 해와 달이 뜨고지는 방향과 위치를 쉽게 알아보며 모든 별들의 자리를 쉽게 그리고 정확히 알아낼수 있게 하였다.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는 당시 천문학리론과 지식을 쉽게 파악하고 천문관측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천문학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당시로서는 아주 과학적이고 세밀한 천문도였다.

상 식

새로 발굴된 고구려첨성대유적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안학궁근처에 첨성대가 있었다. 옛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첨성대는 평양부의 남쪽 3리 밖에 자리잡고있었다고 한다.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서 고구려첨성대유적이 발굴되였다.

이 유적은 약 380㎡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있었으며 크게 4각형의 중심시설과 그밖을 둘러싼 7각형의 보조건물들로 이루어져있었다.

유적의 웃부분은 현재 대부분 파괴되여 그 모습을 거의나 알아볼수 없지만 아래부분 기초구조물들은 비교적 원상그대로 보존되여있었다.

고구려의 첨성대유적은 이 시기 고구려의 천문학발전면모의 일단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이다.

여기에는 고구려때의 별자리그림에 새로운 수정을 하게 된 내용과 그 근거를 밝힌 글과 중성도 및 우주론, 12성차를 간단히 해설한 글이 별그림의 두리에 우아래로 나누어 첨가되여있다.

또한 28수의 기준별들의 자리표값(북극까지의 거리)도 주고있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당시 별들의 위치를 빨리 알아내여 천문관측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편리한 지도문건으로 되였다.

이 천문도는 중세기 우리 민족의 천문학발전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서 세계천문학사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태양흑점관측기록

우리 선조들은 천문기상학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이 분야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첫발을 내디디였다.

고조선에서는 일찍부터 천체에 대한 관측이 진행되였으나 그 기록이 전해지는것은 없고 옛 문헌인 《삼국사기》에 고구려에서의 관측기록이 전해지고있다.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천문기상관측을 위해 천문대를 세우고 천문학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관측자료들은 오늘까지도 이상기후현상을 력사적으로 대비연구하는데서 가치있는 자료로 되고있다.

천문기상학에서 기본은 태양에 대한 관찰과 관측이다.

그것은 인류가 사는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고 이 태양을 축으로 하여 태양계의 모든 별들이 움직이기때문이다.

이것을 깊이 인식한 우리 선조들은 태양에 대한 관측을 매우 중시하였고 그 변화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기록하였다.

놀라운것은 고구려시기에 벌써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것이다.

《해에 빛발이 없다가 사흘 지나서야 다시 밝아졌다.》는 내용이 《삼국사기》기록에 남아있다.

이것은 태양의 흑점이 사흘동안 계속 눈에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았다는것을 말한다. 여기서 《해에 빛발이 없었다.》는것은 아침해 뜰무렵 또는 저녁해 질무렵에 해가 감색을 띠고있을 때에 그 표면을 자세히 관찰하면 눈으로도 능히 발견할수 있는 반점들 또는 덩어리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표현한것이다.

《고려사》 천문지에는 태양흑점과 관련한 관측기록이 53건이나 된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태양관측을 매우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천문학수준이 높은 경지에 있었다.

가장 오랜 경주첨성대

경상북도 경주에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말해주는 첨성대가 옛 모양 그대로 서있다.

7세기 전반기에 건설된 경주첨성대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천문대가운데서 제일 오래된것이다.

경주첨성대는 우리 선조들의 기상천문학수준뿐만아니라 뛰여난 건축술도 보여주고있다.

경주첨성대는 기단, 몸체, 그우에 올린 4각돌귀틀로 이루어졌는데 기단은 네모나고 몸체의 가로자름면은 둥근데 모두 화강석으로 다듬어 만들었다.

첨성대의 높이는 약 9.1m이다. 기단의 평면은 방형으로 생겼고 그 한변의 길이는 약 6m이며 네 면은 동, 서, 남, 북의 방위를 정확히 가리키고있다. 가로자름면이 둥근 몸체는 기단의 중심에 놓였다.

그러므로 기단과 몸체만 하여도 그자체로서 각도와 방위를 정확히 알수 있게 되여있다.

옛날에는 여기에 여러가지 천문관측기구를 올려놓고 천문관측을 하였다. 세나라시기에 남긴 관측자료들에는 혜성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있다.

신라에서는 자세한 천문도와 년간 달력을 가지고있었으며 일기를 예견하였다.

이는 관측기구들이 상당히 발전하였고 관측기술도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경주첨성대는 안정되고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도록 하였을뿐아니라 돌사이에 아무러한 점착제도 쓰지 않고 쌓아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개성첨성대

개성첨성대는 세나라시기의 첨성대들과 더불어 고려시기에 천문기상관측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여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성시 만월동 만월대 서쪽부분에 있는데 현재의 위치나 《고려사》의 기록으로 보아 만월대에 연경궁이 건설되던 고려 초기에 세워진것으로 인정된다.

축대우에는 천문관측기구들이 설치되여있었다. 축대의 평면은 방형이며 그것은 돌기둥들과 그우에 올려깐 돌마루로 이루어졌다.

축대의 높이는 2.8m이고 그 한변의 길이는 2.6m이다.

기둥돌은 모두 5개인데 4개는 방형평면의 네 귀에 세우고 1개는 그 복판에 세웠다.

그리고 긴 대돌로 日자형귀틀을 짜고 그사이에 판돌을 까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귀틀을 이룬 돌들사이는 나비형의 쇠사개를 물려 튼튼하게 련결하였다.

고려가 수도를 송악으로 옮기면서 만월대왕궁을 건설하고 같은 해에 첨성대도 건설한것으로 보고있다.

고려천문학자들은 천문관측뿐아니라 기상현상에 대해서도 세밀한 관측을 하여 기록을 남기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기상현상관측수준은 날로 높아져 기상관측종목이라 하더라도 세기와 량에 따라 몇개 등급으로 나누고 또 그것을 정량적으로 관측하였다.

바람만 보아도 그 세기에 따라 큰바람(태풍), 사나운 바람(폭풍), 빠른 바람(질풍), 돌개바람(선풍) 등 여러가지로 나누어 관측하였으며 비물이 땅에 스며든 깊이, 눈이 쌓인 높이, 우박의 크기 등도 량적으로 표시하여 기록하였다.

개성첨성대는 개성의 왕궁인 만월대근처에 있는 고려시기의 우수한 천문관측기구로서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세계최초의 측우기

15세기 우리 선조들이 창안리용한 측우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것으로 되고있다.

측우기는 1441년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발명된 비내림량측정기구이다.

조선봉건왕조 초기에는 비물이 땅속에 스며든 깊이를 재는 방법으로 비가 내린 량을 측정하였다.

그런데 비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깊이는 토질에 따라 다르고 같은 토질에서도 땅의 높고낮음에 따라 그리고 마른 땅인가 습한 땅인가에 따라서도 달랐으므로 비가 내린 절대량을 정확히 알수 없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비내림량측정기구인 측우기를 발명하게 된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1441년에 서운관에서 높이 2자(약 40㎝), 직경 8치(약 16㎝)의 쇠로 만든 통모양의 측우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측우기가 제작되였다.

측우기는 둥근 통모양의 그릇을 대우에 올려놓고 비물을 받아 그 량을 재게끔 되여있었다.

이러한 측우기를 중앙과 지방의 관청마당안에 설치하였는데 중앙에서는 철이나 동으로, 지방에서는 사기나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각 고을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과 개인 시간 및 그동안의 비내림량을 측정하여 해당한 도에 보고하고 각 도에서는 중앙의 서운관에 집결시켜 장악하고 기록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자동물시계—자격루와 옥루기륜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전된 자동물시계를 만들어 시간측정에 리용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434년에 장영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격루를 창안하여 한성 경복궁 경회루 남쪽 보루각에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물시계는 한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물이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흘러내리게 하고 물이 고이는 그릇에 띄워놓은 부표가 물면과 함께 떠오르면서 시간을 표시한 눈금을 지적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자격루는 이 부표의 떠오름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거기에 종을 치는 장치들을 결합시켜 저절로 움직이면서 자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게 되여있는 물시계의 발전된 형태였다.

자격루의 구조와 작용원리는 다음과 같다.

높은 곳에 두개의 물단지를 놓고 거기에서 단위시간내에 일정한 량으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한 다른 단지 하나를 그밑에 놓았다. 낮은 곳에 있는 단지속에는 물에 뜨게 엷은 동으로 만든 거부기를 넣었다.

아래단지에 물이 고이는데 따라 그속에 든 거부기가 떠오르면서 일정한 자리에 설치한 동으로 만든 구(알)를 밀친다. 구는 굴러서 그밑에 장치한 철판에 떨어지면서 철판의 한쪽

을 누른다.

이때 철판의 다른 한쪽이 들리면서 사점이라는 인형의 팔을 밀치면 사점은 앞에 걸린 징을 쳐서 점을 알린다.

자격루에서는 또한 매 시간에 따라 해당한 동물모조품들이 나타나고 동, 서, 남, 북에 자리잡고있는 인형(옥녀)은 맡은 시간에 방울을 울린다.

이와 같이 자격루는 정밀한 전동장치에 의하여 움직였다.

옥루기륜은 1438년 1월에 완공된 흠경각안에 설치된 자동물시계이다. 장영실과 리천이 제작하였다.

옥루기륜은 물의 힘으로 종, 북, 징을 치는 장치는 자격루와 같았으나 12개의 인형이 각각 자기가 맡은 시간동안 패쪽을 들고 서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닫는 문을 열고 밑으로 내려가 숨어버리는 장치가 더 있었다.

옥루기륜에는 기계장치에 공급되는 물의 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물병을 든 인형이 물그릇의 북쪽에 서있다가 그릇에 물이 비면 물을 부어넣도록 되여있었다.

또한 물그릇에 물이 중간정도 들어있으면 그릇이 바로서고 물이 가득차면 그릇이 기울어져서 물의 량이 조절되도록 되여있었다.

이만큼 복잡하고 정밀한 자동장치를 15세기에 창안제작할수 있었다는것은 당시의 설계가들이 기계구조에 대한 지식과 제작경험을 많이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발전된 시간측정기구—해시계

조선봉건왕조시기 해시계는 우리 선조들이 기술분야에서 도달한 성과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시간측정기구이다.

해시계는 태양의 일주운동으로서 시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우리 선조들은 해시계를 토규 또는 규표라고도 하였다.

해시계는 진태양시를 가리키는 눈금이 새겨진 눈금판(많은 경우에 정방형 또는 반원)과 그것의 중심자리에 수직 또는 비탈지게 세워져있으면서 눈금판에 해그림자를 던지는 곧은 막대기 또는 3각형판자로 이루어져있다.

해시계에 의해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시간(평균태양시)을 알려면 해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에 균시차(평균태양시와 해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차이)를 보태면 된다.

해시계에 의한 시간판정에서 오차는 보통 몇분을 넘지 않는다. 지난날 해시계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정확히 아는데만 리용되지 않았다. 철에 따라 해가 뜨는 방향과 높이가 다르므로 우리 선조들은 그 달라지는 정형을 오랜 시일에 걸쳐 표식하고 비교연구함으로써 24절기를 알아내고 이것도 눈금판에 새겨넣었다.

그리하여 해시계는 24절기와 방위판정, 해길과 적도의 비탈각을 비롯한 천문학적값들을 알아내는 관측수단으로도 리용되였다.

이밖에 우리 선조들은 말을 타고 가면서도 쓸수 있는 해시계인 천평일구, 반공면(오목)눈금판형해시계인 앙부일구, 정남일구 등을 만들어 썼다. 1550년에는 해그림자가 아니라 보름달그림자를 재는 원리의 시계(달시계)도 창안하였다.

고 려 의 학

우수한 침료법

우리 민족의 자랑높은 전통의술중에서 유명한것은 침치료법이다.

우리 선조들은 고대시기에 벌써 돌로 침을 만들어 치료에 리용하였으며 고구려시기와 그 이후시기에도 높은 침술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웠다.

고조선에서 발생하고 널리 쓰인 돌침료법은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데서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졌다.

돌침료법은 돌로 만든 침을 리용하여 종처를 터뜨리거나 피부를 찔러 혈맥이 통하게 하는 외과적인 치료방법인 동시에 침혈에 침을 놓아 병을 고치는 내과적인 치료방법이기도 하였다.

돌침료법은 그후 여러가지 침료법들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고조선시기에 발생한 돌침료법은 침구학의 시원으로 된 우수한 병치료법이였다.

우리 선조들은 고대시기 제철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는 과정

에 금속침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금속침에는 9침 즉 참침, 원침, 재침, 봉침, 피침, 원리침, 호침, 장침, 대침이 있는데 크기가 각이하고 쓰는 방법과 적용하는 곳이 서로 다르다고 서술되여있다.

고구려사람들은 전통적인 침구료법을 현저히 발전시켜 민족의술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웃나라의 책인 《유양잡조》의 문부에는 고구려사람들이 침을 잘 놓았는데 한치의 머리카락을 열토막으로 잘라 한토막의 량끝을 관통하여보고 속이 비였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사들의 침구술이 특출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후기신라에서는 전통적인 침술을 중시한 의사양성교재인 《침경》이 출판되였다.

고려시기 침구술을 적극 장려하여 고려의학의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고려 2대명의의 한사람이였던 리상로(1123-1197)는 뛰여난 침구술로 많은 환자들을 고쳐 당대 사회에 이름을 떨쳤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침구술이 높은 경지에 있었는데 특히 17세기 의학자 허임(1570-1647)에 의하여 전문학술체계를 가진 한개 분과학으로 되였다.

허임은 17세기 전반기 많은 침구전문명의들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는 의료활동을 시작한 첫 시기부터 리론

과 실천을 결합시켜야 의학을 발전시킬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새로운 침구보사법을 내놓았다. 그리고 1644년에는 자신의 오랜 의료활동경험을 종합체계화한 침구학전문책인 《침구경험방》을 편찬하여 내놓았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이 고대시기부터 창조하여온 침구법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발전된 고려치료의 한 종류로 이름을 떨치였다.

효능높은 고려약재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병치료에 효능높은 식물성약재, 금속약재를 비롯한 고려약재들을 많이 리용해왔다.

식물성고려약재인 약초는 고대이전시기부터 널리 리용되여왔다. 단군신화에 곰과 범이 사람으로 되기 위해 식물성약재인 쑥과 마늘을 리용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고대이전부터 쑥과 마늘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그 약효를 알고 병치료에 리용했다는것을 말해준다.

고구려에서는 인삼을 병치료와 예방에 리용하였으며 그 지식을 이웃나라에 보급하였다.

고구려의 장생불로약이 얼마나 소문났던지 중국의 첫 통일국가의 시조인 진시황과 한무제가 불사약을 조선에 가서 가져오도록 한 일이 있다고 전한 《삼국유사》의 기록도 있다.

후기신라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경험하지 못한 약효를 발

견하고 그 합리적인 응용방법을 연구보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의학책들에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고려시기에 이르러 향약을 기본으로 하는 치료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당시 고려의사들은 약재들을 도별, 지역별로 갈라놓았으며 같은 향약이라도 생산지역에 따라 성질과 작용에서 차이가 있다는것을 명확히 갈라보는 높은 수준에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로중례와 박윤덕 등 의학자들에 의해 각 도의 약초들을 수집, 정리, 감정, 분류하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당시 향약에 기초한 연구와 재배경험에 기초하여 고려의학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 사업이 진행되였는데 그 성과가 《향약집성방》에서 집대성되였다.

《향약집성방》은 고려의학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서 그후 《의방류취》와 《동의보감》을 편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세계의 보물 개성고려인삼

예로부터 개성지방에서 재배되는 고려인삼은 약효가 매우 높은것으로 유명하였다. 인삼이란 말은 그 뿌리가 사람처럼 생겼다는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인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전까지는 흔히 산삼을 인삼이라고 하였고 인삼재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산삼과 인삼으로 구별하게 되였다.

인삼은 허약, 로화방지, 병을 앓고난 뒤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회복 등에 보약으로 쓴다.

또한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될 때, 설사, 만성위염, 허탈증, 당뇨병, 가슴두근거림, 잠장애, 저혈압, 빈혈, 간염, 암치료 등에 널리 쓰이고있다.

조선의 특산인 인삼은 고려시기부터 주변나라들에 널리 수출되면서 고려인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왔다.

《삼국사기》와 《향약집성방》에는 인삼이 진귀한 약재로 다른 나라에 수출되였으며 170여종의 향약들중의 하나였다고 밝히였다.

《동의보감》에 인삼의 고유말은 《심》이라고 밝혀져있으며 근래까지만 하여도 산삼캐는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심마니, 심매군이라고 하였다. 즉 인삼은 한자표기이고 입말에서는 심이라는 고유말이 많이 쓰이였던것이다.

조선은 인삼의 원산지일뿐아니라 인삼재배에서도 제일 앞선 자리에 있었다.

이처럼 조선의 기후풍토와 자연지리적조건에서만 그 약효가 충분히 나타나는 개성고려인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16세기의 독특한 외과수술방법

일찍부터 의학을 발전시켜온 우리 선조들은 16세기에 독특한 외과수술방법을 창안하였다.

16세기에 활동한 재능있는 의학자 임언국은 당시까지 의사들이 진행하던 종처치료와 그밖의 간단한 외과치료법과 구별되는 현대외과수술법에 가까운 과학적인 치료법을 개척하고 발전시켰다.

그러한 내용들이 《치종비방》을 통하여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임언국은 종처를 부류별로 가르고 그 증상들에 따르는 과학적인 치료법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종처치료는 같은 성질의것이라도 발생한 부위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술조작법과 약물처방들도 제기하였다.

그는 만약 화정이 머리부위에 났을 때에는 침으로 찔러 피고름을 뽑아낸 다음 물 한병에 소금 한홉비례로 넣고 두세

번 끓여서 따뜻해진 소금물로 씻어낸 다음 종처주변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토란고를 붙여 독기를 빼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종처를 절개할 경우에는 십자형(+, ×)절개를 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십자형절개법은 당시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과학적인것이였다.

임언국의 수술법은 그후 그의 제자들이 쓴 《치종지남》에 더욱 자세히 기록되여 전해오고있다. 《치종지남》은 《치종비방》보다 한걸음 더 전진하여 종처의 수술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여러가지 외과적질병들과 일부 내과적인 질병치료에도 수술법과 그밖의 세척법, 외용약의 리용법 등을 밝힌 당시에는 보기 드문 외과전문책이였다.

《치종지남》에는 병치료법의 요강과 약쓰는 법이 부록으로 첨부되여있으며 약쓰는 법에는 수술할 때에 쓰는 외용약이 십여종이나 서술되여있다.

임언국에 의해 개척된 외과수술방법은 의학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의방류취》

《의방류취》는 15세기에 편찬된 세계적인 고려의학백과전서적인 책이다. 의방류취라는 말은 같은 부류를 묶어놓았다는 뜻이다.

이 책에는 우리 선조들이 고려의학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국내외의 의학책들을 참고한 내용들이 종합되여있다.

이 책은 총론 3권, 각론 263권으로 구성되였다.

총론에서는 고려진찰법, 처방법, 약먹는 법, 고려치료원칙, 의사가 지녀야 할 품성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각론에서는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부인과, 소아과 등 현대의학에서 취급되는 거의 모든 질병들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고려약, 침, 뜸, 안마, 식사료법, 몸단련법) 등을 밝혔다. 또한 예방법도 밝히고 민간료법도 소개하였다.

고려의학전서 《향약집성방》

《향약집성방》은 15세기 초엽까지 우리 선조들이 고려의학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민간에서 만든 약재로 병을 치료한 경험을 종합한 고려의학전서이다.

당시 이름난 고려의사들이였던 로중례, 유효통, 박윤덕 등이 1431년에 편찬에 착수하여 총 85권으로 만든 다음 1433년에 출판하였다.

그후 이 책은 여러차례 다시 출판되였다.

《향약집성방》은 림상치료편, 고려약학편으로 구성되여있는데 림상치료편에서는 외과, 부인과, 소아과 등 각과에 해당하는 모든 질병들과 병증에 따르는 원인과 증상, 치료처방, 민간료법, 침, 뜸치료법 등을 밝혔다.

고려약학편에는 고려약(향약본초)에 대한 당시까지의 연구성과들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하여놓았다.

총론에서는 처방구성과 약만드는 방법, 약먹는 방법, 약의 용량과 고려약제의 법제방법을 주었다.

개별적인 고려약들은 약이름과 향명을 주고 약의 효능, 적응증, 채취시기, 법제방법, 배합금기 등에 대하여 여러 문헌자료들에서 인용, 대비하면서 내용을 풍부하게 주었다.

이 책은 오늘도 그 실용적 및 문화사적가치가 높은 우점과 의의로 하여 《의방류취》, 《동의보감》과 함께 우리 민족의 3대고려의학고전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고려의학대백과전서－《동의보감》

《동의보감》은 중세기 저명한 의학자 허준이 1596년에 쓰기 시작하여 1610년에 완성하고 1613년에 출판한 고려의학대백과전서이다.

허준은 이 책을 임진조국전쟁과 그 이후시기, 더우기 그의 뛰여난 학식을 시기질투한 봉건사대부들에 의해 귀양살이까

지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시련속에서 애국적열정과 과학적량심을 가지고 집필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고려의학의 독자적전통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동의학》이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이에 대하여 허준은 《우리 나라는 동방에 자리잡고있으면서 의학의 전통이 끊기지 않고 하나의 줄처럼 계승되여왔으니 우리 나라 의학은 동의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였다.

허준은 이 책에서 건강을 유지하는데서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는것이 선차적이고 약과 침은 그 다음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이 소박한 예방의학사상은 허준의 진보적의학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동의보감》은 방대한 규모의 과학적저술이면서 동시에 누구나 병치료에 쉽게 리용할수 있게 씌여져있다.

책은 모두 25권으로 되여있는데 목록(2권), 내경편(4권), 외형편(4권), 잡병편(11권), 탕액편(3권), 침구편(1권)으로 되여있다.

이처럼 《동의보감》은 동방의학의 모든 성과를 하나의 체계로 과학화, 리론화한 고려의학백과전서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동의보감》은 그 이후시기 고려의학발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였다.

《동의보감》은 오늘에 와서도 그 과학적내용과 문화사적가

치로 하여 높이 평가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의학대사전에서는 《동의보감》에 대하여 《체계가 정연하고 내용이 풍부하여 의학계의 거대한 존재》라고 하였으며 어느 한 나라의 의학대백과사전에서는 이 책을 동방의학의 3대백과사전의 하나로 꼽았다.

독특한 고려체질의학―4상의학

4상의학은 사람들을 체질적특성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체질의학이다.

리제마(1837-1900)는 고려의학의 종전의 리론과는 달리 자기의 4상의학설에서 사람들을 체격과 체질, 장부의 허실, 얼굴의 생김새, 성격, 식성, 약에 대한 개체적인 반응상태 등을 종합하여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구분하고 이 4상인형에 맞게 구체적인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해당한 4상인형에 따라 약물치료를 할수 있도록 4상인처방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또 수백종의 개별고려약들을 4상인에 맞게 구분해놓았다.

사람들의 체질에 관한 견해는 기원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류형으로 제기되고있으나 그것이 림상실천에 적용된것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4상의학은 처음부터 림상실천에 적용되여 뚜렷한 치

료효과를 나타냈다.

리제마는 1894년에 4상의학에 관한 리론을 《동의수세보원》에 집대성하여 편찬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의 체질을 4가지 형으로 나눈 다음 그에 기초하여 독특한 림상체계를 세우고 치료예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의학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가 남겨놓은 《동의수세보원》은 오늘도 환자치료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있을뿐아니라 체질의학연구의 귀중한 참고서로 리용되고있다.

군사과학과 무장장비

독특한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

고대시기 우리 선조들은 독특하고 발전된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사용한 청동으로 만든 비파형단검은 그 생김새(날이 있는 부분)가 옛날 악기인 비파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이름지은것이다.

비파형단검의 특징은 우선 검몸, 검자루, 검자루맞추개를 각각 따로 만들어 조립하여 쓰게 되여있으며 검몸의 세로중심에 뿌리까지 이어진 등대가 있어 량쪽 날과 등대사이에 자연피홈이 형성되여있는것이다.

특징은 또한 비파형단검이 재질과 장식적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비파형단검을 제작하면서 순수한 동에 알맞춤한 비률의 석과 연을 섞음으로써 무기로서의 재질적특성을 잘 살렸을뿐아니라 검자루에 여러가지 형태의 무늬를 새겨넣어 제품의 예술적, 장식적효과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좁은놋단검은 비파형단검에 이어 사용된 청동무기이다. 좁

은놋단검이란 비파형단검과는 달리 검몸이 좁기때문에 그렇게 이름지은것이다.

좁은놋단검은 비파형단검을 발전시킨것이므로 검몸 한가운데 에임이 있고 다각형으로 된 등대와 그 좌우에 피홈을 내는 등 비파형단검의 기본특징을 가지고있다.

좁은놋단검은 고조선(후조선), 부여, 구려, 진국에서 다같이 쓰이였다.

이처럼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의 다양한 형식과 세련된 가공기법, 독특한 검자루와 그 부분품 등은 다른 나라의 고대 및 중세의 단검에서는 그 류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대의 발전된 기계활－쇠뇌

고대시기 우리 선조들은 기계활인 쇠뇌와 같은 우수한 무기를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데 리용하였다.

쇠뇌는 활과 몸통으로 되여있는데 활은 화살에 발사력을 주는 부분이며 몸통은 화살을 재우고 그것에 발사방향을 잡아주는 조준선부분이다.

몸통에는 여러개의 화살을 재우는 화살통이 있고 쏠 때 정해진 방향으로 화살을 내보내는 안내홈이 있으며 몸통의 뒤쪽안에는 활줄을 걸어당겼다가 놔주는 발사기계장치가 있다.

쇠뇌는 처음에 화살을 하나씩 재워 쏘게 되여있는 단발식쇠뇌였던것이 점차 단번에 여러 화살을 련발식으로 쏘는 련

발식쇠뇌로 발전하였다.

세나라시기에는 다련발식쇠뇌가 나와 단번에 화살 3개를 동시에 사격하게 만들었다.

다련발식쇠뇌는 그후 통사식쇠뇌로 발전하였는데 그것은 쇠뇌의 활줄에 절구모양의 둥근 통이 달려있는것으로서 탄알이 둥근 통(사격통)속에 일단 재워졌다가 둥근 통을 거쳐 활줄의 사격력을 전달받고 발사된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쇠뇌들은 그 구조와 동작원리 및 가공기술이 우수할뿐아니라 오늘날의 무기에서만 볼수 있는 조준선까지 새겨져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세계군사기술발전력사를 분석하면서 고조선의 쇠뇌에 대하여 《그 구조가 간단하고 교묘한것으로 하여 현대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한다. 오늘의 보총처럼 동작하니 아주 흥미있다. 2천여년전의 고안이라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하였다.

이처럼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쇠뇌를 만들고 통사식쇠뇌, 화약통사식쇠뇌, 팔우노, 수질구궁노 등으로 발전시켜 기계활의 전형을 창조하고 포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고구려의 고리자루긴칼

고리자루긴칼은 고구려의 우수한 야금기술과 공예술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긴칼이다.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만든 이 칼자루의 뒤끝은 둥근 고리로 되여있었는데 이 고리들에 술이 달린 끈을 매여 칼의 장식적효과를 높이였다.

고리자루긴칼은 고리의 모양에 따라 민고리자루긴칼, 세고리자루긴칼, 룡고리자루긴칼, 세잎고리자루긴칼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민고리자루긴칼은 고리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소박하며 큰 둥근 고리만으로 되여있고 세고리자루긴칼은 날이 곧고 자루의 끝에 세개의 둥근 고리가 있는것이다.

특히 세고리자루긴칼은 자루부분에 물결무늬를 찍어낸 금동판 또는 은동판을 씌우고 칼집에는 비녀 또는 송곳모양의 물건을 붙여 장식적효과를 높였다.

룡고리자루긴칼은 고리안에 룡을 형상하였는데 룡을 하나 새긴것과 둘 새긴것이 있으며 세잎고리자루긴칼은 고리안에 세잎사귀의 모양을 형상한것인데 칼집부분에 여러가지 장식을 하여 무기로서의 용도는 물론 치레용으로서의 예술적솜씨도 돋구었다.

고구려의 고리자루긴칼은 백제와 신라 그리고 일본땅의 조

선소국에도 널리 보급되여 사용되였다.

고리자루긴칼은 고구려금속가공기술의 발전된 면모를 잘 보여줄뿐만아니라 우수한 무기무장을 창조하여 외래침략자들을 쳐부신 고구려인민들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민족유산이다.

고구려의 위력한 철기－개마무사

철기(개마무사)란 사람은 물론 말까지도 머리로부터 귀와 코, 볼까지 다 감쌀수 있는 말투구와 몸뚱아리로부터 다리까지 다 가리울수 있는 말갑옷을 입은 철갑기병을 말한다.

이러한 철기는 적의 화살은 물론 칼과 창의 공격도 다 막을수 있었으며 공격과 방어에서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 믿음직한 무장장비였다.

말에 갑옷을 입힌 사실은 평양시 삼석구역의 개마무덤을 비롯하여 고구려벽화무덤들의 그림과 고구려유적에서 쇠와 청동으로 주조한 개마모형들이 나온데서 알수 있다.

철편들을 고기비늘처럼 나란히 꿰여 만든 위력한 고구려의 쇠갑옷, 쇠투구로 장비하고 쇠갑옷을 입힌 개마에 올라 긴 칼, 긴 창을 휘두르며 돌진하는 고구려의 기병(철기)들은 외래침략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칼, 창과 활이 기본무기였고 적아가 맞붙어서 접전하는 방법으로 싸우던 중세기에 고구려의 위력한 개마부대가 나타난것은 제1차 세계대전때 땅크가 출현하였을 때만큼이나 침략

자들에게 커다란 전률과 죽음의 공포를 주었다.

이렇듯 슬기롭고 용맹한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철기와 같은 든든하고 위력한 공격 및 방어용무장을 갖추고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고구려의 위력한 성방위체계

고구려는 우수한 군대와 무장장비, 난공불락의 성방위체계를 갖추어놓고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고구려시기 성이 1 000여개가 있었는데 그가운데서도 큰 성이 550여개 있었다.

성은 쌓는 위치에 따라 크게 산성, 평지성, 평산성으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고구려시기에 벌써 이 류형들이 다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특히 산성이 유명하였는데 세계적으로 산성이라고 하면 고구려산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되고있다.

다른 나라에도 산성이 있었지만 고구려산성처럼 크지 못하였고 축성술에서도 고구려의 산성을 따르지 못하였다.

우리 민족사를 놓고보아도 세나라시기는 물론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전술적의의에 있어서나 축성술에서 고구려시기보다 더 발전되고 완성된 산성은 없었다.

고구려의 산성에는 험한 절벽이나 급한 경사를 이룬 여러개의 산봉우리를 련결하여 성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의 골짜기가 있고 한면만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평지와 련결된

고로봉식산성과 산봉우리 웃부분에 봉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성벽을 쌓은 산정(산봉)식산성, 한쪽에는 산봉우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낮은 곳의 지형을 다같이 성벽으로 둘러막은 사모봉식산성, 말안장처럼 2개의 고지가 가까이에 있는 지형에 쌓은 마안봉식산성이 있었다.

《민보집설》에서는 이 4개의 지형가운데서 고로봉식지형이 산성의 지형으로서는 가장 좋은것이라고 하였다.

고로봉식산성이 고구려의 독특한 산성이라는데 대해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구려성곽은 수도를 중심으로 전연방위체계, 전방방위체계, 종심방위체계, 수도방위체계를 이루고있어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물리칠수 있게 되여있었다.

고구려의 수도 역시 성으로 꾸려져있었는데 427년 평양천도시에는 안학궁성과 대성산성으로 이루어져있었고 평양성으로 옮길 때에도 전체 수도를 성으로 둘러막아 방위력을 높이였다.

화포를 리용한 세계적인 첫 해전

우리 선조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배에 화포를 설치하여 바다에서 외적을 물리쳤다.

14세기 후반기 고려인민들은 끊임없이 침범하여 략탈과 살륙을 감행하는 왜구들을 족치기 위해 놈들의 배에 가까이

접근하여 싸우군 하였다.

최무선(1326-1395)은 바다싸움에서 화공전술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깨닫고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먼저 화약의 기본성분으로 되는 염초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여러가지 성분을 적절히 배합하여 새로운 화약을 제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고려정부는 1377년에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화약무기를 연구 및 제작하였으며 다음해에는 전문기술병종인 화통군을 조직하였다.

화통군은 대장군포, 2장군포, 3장군포, 륙화석포, 신포, 질려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포들과 화전, 철령전, 철탄자, 주화 등 불화살 및 포탄들로 무장되였다. 화포함선들은 왜구와의 싸움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싸움이 1380년의 진포해전이였다.

이해 8월 왜구는 수백척의 합선들과 수많은 병력으로 금강하구인 진포로 쳐들어왔다.

고려는 이 싸움에 최무선이 이끄는 100여척규모의 화포함대를 출동시켜 멀리 떨어져있는 적함선들을 배에 설치한 화약무기로 불살라버려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날아가는 포탄에 얻어맞아 수많은 적함선들에 불이 달리여 모조리 바다속에 수장됨으로써 싸움은 고려수군의 대승리로 끝났다.

진포해전은 화포의 위력으로 적들의 수적우세를 통쾌하게

꺾어버린 세계해전사상 화포합선에 의한 첫 바다싸움이였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위력한 화약무기들을 만들어 함선에 설치하여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적함선들을 모조리 격파하였다.

시한포탄의 조상—비격진천뢰

비격진천뢰는 시한포탄의 조상으로서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초기 화포기술자 리장손이 새롭게 만든 우수한 무기이다.

당시 평범한 기술자였던 리장손은 원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안고 지난 시기 부분적으로 써오던 진천뢰(하늘을 뒤흔드는 벼락이라는 뜻)라는 포탄을 시한포탄으로 개량하여 대완구를 비롯한 포로 발사할수 있게 만들어냈다.

비격진천뢰를 대완구포에 넣고 쏘면 보통 500～600보가량 날아가 떨어졌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되여있었다.

비격진천뢰의 폭발시간은 참대통안에 있는 신관으로 조절하였는데 참대통안에 감아놓은 화약선(도화선의 일종)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폭발지연시간을 정하였다.

비격진천뢰는 크게 별대비격진천뢰와 대비격진천뢰, 중비격진천뢰로 구분한다.

비격진천뢰는 그 폭발위력과 파편, 요란한 폭음으로 하여 임진조국전쟁시기 적들을 당황망조케 하였다.

임진조국전쟁때 경주성밑으로 은밀히 접근하여 비격진천뢰

를 쏘아 왜놈들의 한복판에 떨구었다. 그것이 포탄임을 알 수 없었던 왜놈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그것을 만져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하였다. 몇순간이 지나자 《쾅—》 하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놈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좀 떨어진 곳에 있다가 폭풍에 날려 너부러진 놈들도 많았다. 겨우 목숨을 건진 왜놈들은 귀신의 조화라고 하면서 성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치고말았다.

비격진천뢰는 신관장치가 달린 시한포탄의 첫 조상이였다.

세계최초의 철갑선—거북선

거북선은 16세기에 우리 선조들이 높은 애국심과 창조력을 발휘하여 만든 세계최초의 위력한 철갑선이다.

거북선의 길이는 35m, 너비는 11.8m, 높이는 5.2m로서 그 모양은 포물선형태인데 앞뒤가 길죽하고 높이가 낮았다. 우에는 판자를 덮고 그우에 열십자의 좁은 길을 내놓고는 전체 부위에 철판을 씌우고 칼과 송곳을 꽂아 사방으로 발을 붙일 곳이 없게 만들었으며 좌우 량쪽에는 각각 수많은 화구가 있었다.

거북선은 화약을 리용하는 각종 포들을 많이 장비한 독특하고 위력있는 싸움배였다.

거북선은 천자총통, 지자총통을 비롯한 각종 화포들을 싣고 좌우앞뒤의 어느쪽에서나 마음대로 한꺼번에 불벼락을 안기였다.

거북선은 적의 배들이 바다를 덮으며 구름같이 모여들어도 그속을 마음대로 뚫고 드나들었으며 배안에서는 밖을 잘 볼수 있었으나 밖에서는 배안을 볼수 없게 만들었기때문에 적들이 전혀 가늠할수 없게 하였다.

거북선이 독특하고 위력있는 싸움배로 될수 있었던것은 배의 구조가 높은 속도를 낼수 있도록 되여있었을뿐아니라 매우 견고하였기때문이다.

거북선의 형태가 날씬한데다가 노가 좌우에 각각 10개씩 달려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눕혀놓은 돛을 세울수 있었기때문에 달리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

거북선의 안팎의 구조가 이처럼 합리적이였기때문에 이웃나라 사람이 쓴 군사기술책에서도 《조선의 거북선은 배돛을 세우고 뉘고를 마음대로 하고 바람이 거슬러 불거나 밀물이 빠지거나를 막론하고 언제나 다닐수 있다.》고 썼다.

거북선이 이처럼 단단하고 큰 화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빨리 움직였으므로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적의 배들을 크게 포위하여 한군데 모아놓고 그속에 뚫고들어가 들이받아 까부시기도 하고 수많은 화포들을 단꺼번에 집중사격하는 전술도 많이 썼다.

그리고 배머리에 붙은 룡의 아가리에서 류황과 염초를 태운 연기를 뿜어 적들을 당황케 하고 아군에는 유리한 연막의 역할도 할수 있게 하는 방법도 썼다.

상 식

애국명장 리순신

리순신(1545-1598)은 16세기에 활동한 애국명장이다.

수군지휘관으로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철갑선-거북선을 완성하여 임진조국전쟁시기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일본수군을 격퇴하였다.

그는 우수한 거북선을 비롯한 전함들을 만들어가지고 한산도해전과 명량해전, 로량해전에서 대규모의 적수군을 보기 좋게 격파하였다. 이 세 전투를 력사에서는 수군의 3대첩이라고 한다.

리순신은 임진조국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세계해전사에서 처음으로 철갑선으로 적들을 물리친 명장으로 이름떨치였다.

20세기 초엽 짜리로씨야의 발뜨함대를 격파한 일본해군원수였던 도고 헤이하찌로가 승진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진실로 군신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리순신장군일것이다. 리순신에 비유한다면 나는 하사관의 자격도 못된다.》라고 말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천자총통과 현자총통

천자총통과 현자총통은 중세기에 우리 선조들이 만든 위력한 포들이다. 천자총통은 날개가진 길죽한 흐름선형탄 또는 연껍질을 씌운 둥근 주철탄을 아구리에 채웠다가 발사하는 중세기에 가장 큰 포였다.

천자총통은 포금으로 된 원통형의 포로서 앞쪽으로부터 아구리부분, 격목실 및 화약실의 세 부분으로 되여있었다.

아구리부분과 격목실이 차지하는 바깥겉면은 물결형을 이루고있는데 그것은 사격과정에 온도가 높이 오르는 포신의 열랭각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것이다.

대장군전을 쏘는 경우에는 아구리로부터 흑색화약을 다져넣은 다음 격목실에 격목을 재우고 뒤따라 아구리부분에 대장군전의 꼬리를 재우며 주철탄을 쏘는 경우에는 화약실에 흑색화약을 다져넣은 다음 토격(흙덩이, 길이 60㎜이하)을 격목실에 꽉 재우고 뒤따라 탄을 재운다.

따라서 대장군전을 쏘면서 격목을 재우는 경우보다 주철탄을 쏘면서 토격을 재우는 경우에 화약실폭발압력이 크고 탄의 질량이 작기때문에 사격거리가 앞의 경우의 9백보보다 뒤의 경우에 더 커서 3천 6백보이상으로 된다.

천자총통은 수레식포차에 설치되였다.

현자총통은 중세시기 천자총통, 지자총통 다음가는 세번

째로 큰 포이다.

천자총통과 현자총통은 중세기 가장 위력한 포들로서 임진조국전쟁을 비롯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여러 전투들에서 많이 리용되여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비행기의 조상—비거

비거는 임진조국전쟁초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군사통신련락에 처음으로 쓴 활공기로서 세계적으로 비행기의 조상으로 되고있다.

비거라는 이름은 나는 수레라는 뜻으로서 전주부 로성지방의 윤달규라는 사람이 창안한것이다.

비거는 높은 령마루 또는 산성 같은데서 달리다가 활공을 시작하면 바람주머니로부터 내쏘는 바람의 반동력과 날개의 움직임에 의해 활공의 안정성과 조종성을 담보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약 300m가량 활공할수 있었다.

임진조국전쟁초시기 령남(경상남도)지방의 진주성이 왜적들에게 포위되였을 때 전투정황을 상부에 빨리 알릴 목적으로 비거를 타고 통신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그날따라 활공에 유리한 기류조건이 마련되여있었던것으로 하여 비거가 사람을 태우고 높은 곳에서 날아 30리라는 먼거리를 날수 있었던것이다.

비거는 여러 사람이 탈수 있도록 나무뼈대에다 가죽을 씌

워 나래치지 않고 둥둥 떠있는 상태의 수리개나 따오기모양으로 만들어져있었다.

비거의 날개넓이는 비거 그자체와 싣는 짐의 질량보다 더 큰 오를 힘을 내도록 수십㎡로 되여있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비행선제작기술은 오래전부터 발전하였다.

근대시기 수중무기-수뢰포

근대시기 우리 선조들은 새로운 수중무기인 수뢰포를 만들어 국방력강화에 기여하였다.

이 무기를 만든 신관호(1811-1888)는 조선봉건왕조시기 대사간, 병조판서, 금위영대장, 총융사, 중추부판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국방과 군사기술부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었던 그는 이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재능을 소유하고있었다.

조선에 대한 미국과 유럽렬강의 침략이 로골화되자 그는 봉건왕권유지를 위한 국방대책을 세워보려는 목적에서 군사편제의 개편, 훈련방법의 개선, 방위조직의 강화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군사개혁안을 제기하였다.

그는 수뢰포라는 새 무기를 창안제작하여 나라의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수뢰포의 부분품에서 동으로 만든것이 아홉가지, 철로 만

든것이 여덟가지, 나무로 만든것이 일곱가지, 가죽으로 만든 것이 두가지, 명주실로 만든것이 두가지였다.

수뢰포는 터지면 폭음이 물우를 진감하고 우뢰와 같이 진동하면서 아무리 견고한 물체라도 모조리 격파하며 접촉되는 것은 무엇이나 날려보낸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근대시기에 수중무기—수뢰포를 만들어 반침략투쟁에 리용하였다.

유명한 병서 《동국병감》

《동국병감》은 《력대병요》에 실려있는 고조선때부터 14세기말까지의 전쟁자료를 하나로 모아 편찬한 대표적인 군사관계책이다.

이 책은 1450년경에 정린지, 리석형 등 봉건력사가들에 의하여 편찬출판되였다.

《동국병감》에는 우리 선조들이 발휘한 애국주의사상과 슬기와 용맹이 반영되여있으며 전쟁에서 리용한 여러가지 전략과 전술, 전법들이 기록되여있어 당시 전쟁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로 된다.

《동국병감》에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에 없는 많은 자료들이 기록되여있으므로 고려시기의 력사연구에서 보충적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동국병감》은 우리 민족사의 고대, 중세시기 전쟁사가운

데서 가장 오랜 책으로서 당시의 군사제도와 군사기술,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투쟁을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사료로 되고있다.

3. 문학예술편

우수한 문학유산 ………………………… 110

건축과 조각 ……………………………… 124

회화와 공예 ……………………………… 145

민족음악과 무용 ………………………… 156

우수한 문학유산

우리 선조들의 원시문학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원시문학에서 기본은 원시가요와 신화였다. 원시가요는 원시인들이 자연을 개척해나가는 로동과정에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고 일을 흥겹게 하려는 지향을 반영하여 나왔다.

원시인들은 단순한 웨침소리로부터 점차 일을 흥겹고 능률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절도있고 조화로운 소리를 내게 되였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자기들의 생활감정과 정서를 담은 소박한 가요를 창조하게 되였다.

《거부기노래》는 그러한 가요의 하나였다.

이 노래는 우리 선조들의 원시가요인데 《삼국유사》의 가락국기편에 실려있다.

설화에는 가요의 제목이 따로 없었다.

《거부기노래(구지가)》란 이름은 노래가 《구지봉(거부기봉우리)》에서 불리워졌고 거부기와 관련되여있다는데로부터 후세사람들이 붙인것이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들어라
들지를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노래는 이처럼 분절도 후렴도 없고 가사의 내용도 명백치 않다.

이 노래는 원시신앙과 결합된 집단적로동가요의 성격, 그 내용과 형식의 단순성과 소박성에서 고대가요 《공후의 노래》와 구별되는 원시가요로서의 특징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원시가요의 내용과 형식, 그 창조과정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신화는 원래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창조적능력이 매우 낮았던 원시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발생발전하였다.

원시인들은 자기들의 생활과 지향을 신화에 소박하게 담았다.

원시문학은 원시인들의 의식수준과 예술적정서, 사유관계가 반영되여있는 인간의 첫 문학으로서 고대시기 문학발전의 밑천으로 되였다.

고대시기의 설화와 시가

원시사회가 무너지고 고대국가가 출현하면서 문학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고대문학에서 기본형태를 이룬것은 설

화와 시가였다.

우리 선조들의 고대건국설화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의 하나는 고조선의 《단군신화》이다.

《단군신화》는 환상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있지만 신화적형상을 통하여 원시사회로부터 계급사회로 넘어가던 시기의 사회상과 계급사회초기의 력사, 당시 사람들의 념원과 신앙 등을 펼쳐보이고있다.

우리 선조들의 고대설화작품으로서 《해모수신화》도 있다.

《해모수신화》는 해모수가 하늘과 바다를 마음대로 오르내리는 모습과 하백과 재주겨룸을 하여 이기는 장면, 하백의 딸을 붙잡기 위하여 신기한 말채찍으로 땅을 그어 구리궁전이 솟아나게 하는 장면 등을 통하여 고대사람들의 자연정복에 대한 지향과 랑만적정서를 보여주고있다.

이 신화는 내용의 폭이 넓고 사건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으나 형상이 비교적 생동하여 이채를 띤다.

고대시기에 서사문학이 발생발전하였다.

고대의 서사문학으로는 려옥이라는 녀성이 지은 고조선의 서정가요 《공후인》(공후의 노래)이 오늘까지 전해오고있다.

고대문학은 아직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고 현실묘사의 폭과 심도가 부족한 유년기의 문학이였지만 우리 민족문학의 오랜 전통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나라시기 새롭게 발전한 문학

세나라시기에 이르러 고대문학의 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 구전설화와 소설, 시가 등이 새롭게 발전하였다.

구전설화문학은 신화창조단계를 멀리 벗어나 그 형식에서 전설, 민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주제별로 보아도 력사설화와 생활세태설화, 우화 등으로 세분되여나갔다.

세나라시기 설화유산가운데서 대표적인 작품은 고구려의 《주몽전설》을 비롯한 건국설화들, 《을지문덕이야기》, 《록족부인전설》 등을 들수 있다.

이 시기 설화문학과 서사문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그에 토대하여 소설이 발생하였다.

세나라시기 대표적인 소설작품에는 고구려의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온달전》, 백제의 《도미전》과 같은 이야기체소설작품과 《토끼와 거북이야기》와 같은 우화작품들이 있다.

세나라시기의 대표적인 이야기체소설인 《온달전》은 고구려 인민들의 생활과 념원, 슬기와 애국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가난한 온달이 무술을 열심히 련마하여 고구려의 어엿한 장수로 자라나 외적과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이야기가 담겨져있다.

세나라시기 시가문학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가요

가 많이 창작되여 전해오고있다.

이러한 가요들에는 지배계급에 대한 반항정신과 함께 외적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려는 인민들의 애국적감정이 반영되여있으며 그들의 창조적로동생활도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고구려가요는 고유한 민족적정서와 선률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왔다.

세나라시기 가요와 함께 한자 또는 리두와 같은 서사수단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시가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시기 오늘까지 전해내려오는 고구려의 한시작품들로서는 《우중문에게》, 《꾀꼬리의 노래》, 《외로운 바위》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서정시 《우중문에게》는 612년에 을지문덕장군이 적장 우중문에게 보낸 편지형식의 작품이다.

세나라시기 신라에서 민족시가형식의 향가가 발생하였다. 향가는 리두로 표현된 고유한 민족시가로서 《풍요》, 《서동요》, 《혜성가》 등이 있었다.

이처럼 세나라시기 우리의 민족문학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고려의 시가작품들

고려시기의 문학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그 사상주제적내용과 형식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국토통일과 끊임없는 반침략투쟁, 반봉건투쟁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는 투쟁과정에 시를 비롯한 문학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상 식

《칠보지재》로 소문난 배정

발해의 시인인 배정은 9세기말—10세기초에 활동한 재능있는 시인으로서 발해의 문적원에서 관직을 지냈으며 882년과 894년 두차례에 걸쳐 발해사절단의 정사로서 일본에 갔던 일이 있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 작품창작과 교류를 활발히 벌려 그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고 시인으로서 명성을 크게 떨치였다.

《발해국지장편》에 의하면 배정이 일본의 관원도진 등과 주고받은 시들을 묶은 시집이 있은듯 하나 전해지지 않고 다만 《손으로 찾아온 시랑 관기전에게》라는 시의 한구절이 기록에 남아 전해지고있을뿐이다.

그러나 높은 절찬속에 평한 당시 일본문인들의 글이 남아있어 그것을 통하여 배정의 창작적경향과 특성, 시재로서의 그의 재능을 찾아볼수 있다.

당시 일본의 시단과 학계에서 제노라고 하던 사람들은 배정의 시에 탄복을 금치 못하면서 그를 《칠보지재》(일곱걸음을 걷는 사이에 훌륭한 시를 짓는 천재적인 시인)라고 찬양하였다.

배정은 해박한 지식과 높은 시적재능뿐아니라 희고 아름다운 얼굴과 뛰여난 풍채로 하여 더욱 이름을 날리였다.

당시 일본조정에서 용모가 뛰여나고 재능이 있는자들로 발해사신일행을 접대케 하고 또 일본왕이 배정의 높은 재능과 의젓한 풍채를 사랑하여 상을 준 사실들은 발해인민의 훌륭한 풍모와 발전된 문화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고려시기 시작품들에서 특징적인것은 산천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시작품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이 시기 진보적인 문인들에 의하여 서정시들에서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인민들의 애국적인 감정이 생동하게 노래되였다. 산천의 아름다움을 읊은 작품들가운데서 특히 평양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시들이 많았다.

서정시인 정지상의 작품인 《평양》과 《대동강》은 평양의 아름다움과 대동강나루터에서 벗을 떠나보내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는 시 《대동강》에서 상봉과 리별 등 평범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의 미묘한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노래하였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치있게 형상하였다.

비 멎은 뒤 긴 방축엔
풀색이 한결 더 짙은데
남포서 그대 떠나보내며
구슬픈 노래를 내 부른다

대동강 흘러가는 저 물결아
어느때에 가서 마를소냐
떠나고 보내는 리별의 눈물
해마다 흘러가는 물결을 더하거늘

고려시기 시가작품들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당시 통치배들의 착취상과 권력싸움을 비판하는 민요, 참요들이 나온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시기에 창작된 시, 참요, 민요들은 당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면서 당대 사회의 부패상을 신랄히 비판하고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시가문학

조선봉건왕조시기 시가문학은 내용과 형식에서 다양한 양상을 띠면서 발전하였다.

이 시기 문학발전의 중요한 경향은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학이 반동적이며 보수적인 문학과 대립하여 투쟁하면서 발전한것인데 그것은 작품의 주제와 인간성격의 형상에서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비판적경향이 강화되고 반침략애국적경향이 농후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특히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를 계기로 민족시가형식으로서 가사가 새롭게 발생발전하고 시조가 많이 창작되였다.

남이장군은 1467년에 외래침략자들을 징벌할 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시를 지어 후세에 남기였다.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 먹여 다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평정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시에서는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 먹여 다 말리리》라는 격동적인 표현으로 기어이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적기개를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국문장시형식의 가사 《관동별곡》은 정철이 1580년에 강원도 금강산일대를 구경하고 그의 아름다움에 탄복하여 지은 시이다.

길차림 잘 갖추고 돌길에 지팽이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같은 무지개 옥같은 룡의 초리
섞여돌며 뿜는 소리 십리에 잦았으니
들을제는 우뢰더니 보며는 눈이로다
…

시인은 기발한 형상수법으로 만폭동의 쏟아져내리는 아름다운 폭포의 물줄기를 《은같은 무지개》, 《옥같은 룡의 초리》에 비겨 형상하였고 산골짜기를 꽉 메우며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폭포소리와 피여오르는 물안개를 우뢰와 흰눈에 비

겨 노래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경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다시없을것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격조높이 토로함으로써 조선의 금강산은 세계의 제일명승이라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였다.

민요 《강강수월래》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에 대한 인민들의 강한 적개심과 멸적의 기개를 잘 보여주고있다.

겨레의 애국적감정이 잘 반영된 이 민요는 한사람이 먼저 선창을 먹이면 다른 사람들이 합창으로 받아부르는 방법으로 불리워졌다.

이처럼 조선봉건왕조시기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반침략애국주의정신을 반영한 우수한 시가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일 화

시의 귀신 김삿갓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이름난 시인 김삿갓(본명 김병연)이 어느 날 금강산의 내금강에 있는 마하연이라는 암자에 살고있는 어느 한 스님을 찾아갔다.

그 스님이 당시 소문이 자자한 시인이였기에 그와 내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김삿갓을 맞은 스님은 제풀에 노여워했다.

《나는 이 산속에서 50여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객들을 맞고 보냈지만 아직 이 금강산에 알맞는 글귀를 남기고 간 사람은 보지 못했소. 그런데 당신은 얼마만한 글재주를 가졌길래 감히 금강산에 대한 시를 가지고 내기를 청하는거요?》

김삿갓이 흔연히 웃으며 계속 요구하자 스님은 그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만약 청렴하고 신령스러운 금강산에 티끌만치라도 손상을 주거나 욕되는 시구가 나타나면 그대의 이발을 빼버리고 말겠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둘은 비로봉의 꼭대기에서 시작하여 만폭동골안을 흐르는 사선계개울까지 이르면서 스님이 전구를 떼면 김삿갓이 화답하는 방법으로 시를 읊어나갔다.

스님: 이른아침 립석봉에 오르니
구름은 발아래 생기고
김삿갓: 저녁에 황천수의 물을 마시니
달이 입술에 걸리더라
스님: 사람의 그림자는 물속에 잠겼어도
옷은 하나도 젖지 않았고
김삿갓: 물속에 청산을 오르고내렸어도
다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네

스님: 산에서 돌이 굴면
천년이 걸려야 땅에 닿을듯 하고
김삿갓: 산이 한자만 더 높으면
손이 하늘에 닿을듯 하여라
스님: 가을구름이 만리에 뻗었으니
흰 고기비늘이 겹쌓인것 같고
김삿갓: 천년묵은 고목의 뻗친 가지는
사슴의 뿔이 높이 솟은듯 하구나

시로써는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스님이 연방 불러대도 김삿갓은 거침없이 화답하는데 그 뜻을 따지니 신기할 지경이였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아껴두고 쓰지 않던 시구를 불러댔다.

스님: 달이 희고 눈이 희니
천지가 희고
김삿갓: 산이 깊고 물이 깊으니
나그네수심도 깊다

스님은 그만 감동되여 삿갓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자 김삿갓이 빈정대였다.

《아니, 왜 보기만 하시우. 어서 이발을 뽑아야 하지 않겠소.》

그제야 스님은 새로운 시친구를 찾은 기쁨과 감탄이 섞인 말로 물었다.

《그대는 누구이시오?》

《나는 보잘것없는 김삿갓이라는 사람이요.》

《소문에도 시에 귀신이라 하더니만 오늘 보니 그대는 과연 시의 〈신선〉일세구려.》

스님은 김삿갓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쥐였다.

선조들이 창조한 속담유산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사상미학적지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한 많은 속담유산들을 남겨놓았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속담들이 얼마나 신통하였던지 지금도 사람들은 흔히 《조선속담 그른데 없다.》고 말하군 한다.

속담은 그 표현형식과 기능에 따라 격언과 리언으로 나누어진다.

격언은 완결된 문장표현형식을 가지고있으면서 교훈적성격을 띠고있는 속담의 한 형태이다.

실례로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좋은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부자가 하나이면 세 동네가 망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부뚜막의 소금도 쳐야 짜다.》 등을 들수 있다.

격언이 담고있는 내용의 폭은 대단히 넓다. 격언은 근로인민의 집체적지혜의 산물인것만큼 그들의 사회적체험과 관련한 다방면적인 분야의 지식을 담으면서도 주로 로동생활, 가정세태생활, 도덕륜리와 관련된것이 많다.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착취자들의 략탈상을 반영한 격언들도 적지 않다.

리언은 불완전한 표현형식을 가지고있으며 흔히 풍자해학적

인 성격을 띠는것이 특징이다.

보통 《…듯》, 《…같다》와 같은 형태를 취하거나 명명문, 불완전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그림의 떡》, 《덮어놓고 열닷량금》, 《닭쫓던 개 울바자 쳐다보기》 등이 그 실례이다.

리언은 그자체로써는 뚜렷한 생활적교훈과 진리를 밝혀주지는 못하지만 다른 말과 결합되면서 대상의 본질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속담의 대부분은 그자체로써 뚜렷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일부 속담은 설화와 결부되여있기때문에 그 설화를 모르고서는 그 뜻을 알수 없는것이 있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격》, 《구두쟁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 등 그 설화를 알아야 그 의미도 잘 알수 있게 되여있다.

속담은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풍부히 하고 문예작품의 표현성을 높여줄뿐아니라 그자체로써 커다란 교양적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훌륭한 속담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는 실로 자랑할만 한것이다.

건축과 조각

고인돌무덤

고인돌무덤은 평양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창조된 고대시기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우수한 건축구조물이다.

고인돌무덤은 고조선의 지역이였던 조선반도 전 지역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 수만기가 분포되여있다.

특히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던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 고인돌무덤 14 000여기가 분포되여있다.

고임돌, 막음돌, 뚜껑돌 등 고인돌의 주요석재는 조립현장에서 가공되여 축조되였다. 뚜껑돌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타원형 혹은 제형으로 되여있다.

고인돌무덤의 안벽에는 남북막음돌과 맞물리는 부분에 2～3㎝정도 련결홈을 냈다. 이러한 홈은 일률적으로 다 낸것이 아니라 고인돌무덤에서 배가 나온 부분에만 만들었는데 이것은 고인돌무덤에 안기울임을 주기 위해서이다.

고인돌무덤은 청동기시기부터 써오던 침촌형고인돌무덤이 계속 쓰이다가 오덕형고인돌무덤과 묵방형고인돌무덤 등이 새로 나타났다.

오덕형고인돌무덤은 고임돌, 막음돌로 된 주검칸우에 뚜껑돌을 덮어 만들었고 묵방형고인돌무덤은 막돌이나 강자갈로 무덤칸을 만들고 그우에 뚜껑돌을 덮어 만들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시기 고인돌무덤들은 당시 다른 나라의 무덤건축에서 볼수 없는 독특하고 우수한 무덤건축유산이다.

안학궁

안학궁은 고구려가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길 때 건설한 왕궁이다.

단군릉과 동명왕릉, 두 시조왕릉의 가운데에 들어앉은 안학궁은 당시로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규모로 건립되였다.

안학궁의 네 성벽은 길이가 같은데 각각 622m이고 둘레길이는 2 488m이며 궁성안의 면적은 약 38만㎡이다.

이 방대한 면적에 5개의 건물군을 이루고 52채의 크고작은 건물들이 배치되여있었다. 또한 모든 건물들을 회랑으로 련결시켜 궁전의 조화와 위엄을 돋구고 회랑의 폭을 좁혀 건축군의 립체감과 깊이를 강조한것 등은 고구려건축예술의 높은 경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안학궁을 밖으로 둘러싼 궁성의 규모도 크거니와 그안에 들어앉힌 하나하나의 건물들도 큰것이 특징이다. 안학궁은 성문의 규모도 매우 크다.

당시 안학궁은 국가최고권력자인 왕의 거처지였을뿐만아니라 최고통치기관이였으므로 왕궁건설에 막대한 자재와 로력을 투하하였으며 당대에 가장 발전된 건축기술을 집중적으로 도입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안학궁건설에서 건축부재를 만들어 쓰는데서도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안학궁의 주추돌은 깨바위들을 둥글게 또는 네모지게 다듬어 만든것이였다.

기와는 종류와 무늬, 색갈이 다종다양하였고 그 질이 매

상 식

웅장한 대동강고구려나무다리

고구려의 나무다리는 5세기에 건설되였는데 길이 375m, 너비 9m나 되는것으로서 당시에는 대단히 길고 웅장한것이였다.

현재 그 위치는 미림갑문다리에서 아래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이다. 다리는 안학궁터앞에 전개되였던 고구려도시의 남북중심대도로와 직선으로 련결되여있었고 여기서 남쪽으로 곧추 가면 고구려시조왕릉인 동명왕릉에 가닿게 된다.

안학궁에서 나라의 정사를 보던 고구려의 왕과 봉건관료들이 이 다리를 통하여 동명왕릉에 찾아가서 제사도 지내고 락랑벌사냥터에서 사냥경기도 벌리군 하였다.

우 높았으며 독특한것은 막새가 달린 암기와, 수기와를 쓴 것이다.

안학궁은 당시 강대한 국력을 가진 고구려의 위력을 시위하는 거창한 창조물이다.

또한 안학궁건축에 적용된 궁전의 구획분할, 궁전건축계획과 형성방법 등은 우리 민족의 중세궁전건축의 본보기로 되였을뿐만아니라 세계건축발전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차지하였다.

고국원왕릉

고국원왕릉은 4세기 동방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서 고구려의 위력과 발전된 문명을 과시하고있다.

고국원왕릉은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고구려 고국원왕의 무덤이다. 이 무덤은 4세기 중엽에 만든것으로서 현재 무덤이 있는 위치에 따라 안악3호무덤이라고도 한다.

고국원왕릉은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벽화무덤가운데서 그 규모의 크기에서나 벽화내용의 풍부성에 있어서 으뜸가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봉분도 크지만 구릉우에 자리잡고 무덤과 구릉이 한덩어리처럼 되여서 그 모습은 산악처럼 웅장하다.

무덤칸은 언덕을 따내고 반지하에 돌로 쌓았는데 문칸, 앞칸, 앞칸 동서의 두 곁칸, 안칸, 회랑 등으로 이루어졌다.

고국원왕릉은 고구려사람들의 우수한 돌다루기수법도 잘

보여주고있다.

여러칸의 매 벽면이 거의 한장의 판돌로 세워졌으며 두짝 돌문이 가볍게 여닫기게 한것은 높은 돌다루기수법을 보여주고있다.

이 무덤의 벽화는 돌벽우에 직접 그렸는데 왕이 문무관들을 거느리고 정사를 보는 장면과 왕비가 궁녀를 거느리고있는 장면 그리고 부엌, 육고, 우물, 방아간, 마구간, 외양간 등 개별적그림들과 고구려왕만이 가지는 의장기들과 문무백관들, 고취악대와 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위풍당당히 나가는 대행렬도를 그렸다.

고국원왕릉은 땅속에 각이하게 가공한 돌로 무덤칸을 쌓고 흙을 덮은 고구려돌칸흙무덤의 전형으로서 높은 건축술과 회화술, 고구려인민들의 생활풍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세계적인 건축유산이다.

동방제일의 광개토왕릉비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업적을 찬양하여 414년에 그의 릉에 세운 기념비이다. 이 릉비는 당시 수도였던 국내성의 동쪽언덕에 거연히 솟아오른 바위처럼 웅장한 모습을 시위하면서 우뚝 서있다.

높이가 6.34m인 릉비는 비몸과 대돌의 두개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대돌은 잘 다듬은 화강암판석으로서 길이 3.35m, 너비 2.7m, 두께가 0.2m이다. 비몸은 4각기둥처럼 생긴 응회암 통돌이다. 비몸 밑면의 너비는 제1면 1.53m, 제2면 1.5m, 제3면 1.9m, 제4면 1.43m이고 비몸의 네 면은 글자들이 새겨져있는데 그 글자수는 약 1 800자이다.

비문의 내용은 크게 3개의 문단으로 되여있다. 제1단은 서문으로서 고구려시조 추모왕(동명왕)이 나라를 세운 경위와 그후 력대 왕들의 계승관계, 광개토왕의 공적에 대한 총평, 릉의 축조와 릉비건립의 목적을 쓴것이다.

제2단은 광개토왕의 공적을 년대별, 사건별로 서술한것으로서 북쪽에서는 비려, 식신, 동부여를 정벌하여 나라의 위신을 높이 떨치고 령토를 넓힌 사실, 남쪽에서는 백제, 가야, 왜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백제의 많은 성들을 차지하였으며 신라를 도와주는 동시에 더 강하게 통제장악함으로써 나라의 위력을 과시하고 령토를 넓힌 사실을 쓴것이다.

제3단은 왕릉의 관리와 수호를 위한 수묘인 연호의 구성과 그것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령조항들을 밝혀놓은것이다.

비문내용은 내외의 력사기록에는 전혀 없는 많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전하고있어 고구려의 력사는 물론 당시 동방의 력사를 정확히 리해하고 체계화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근본자료로 된다.

광개토왕릉비는 문장이 명문이고 글씨가 뛰여나며 또 글자파기에 편할 정도로 자연바위를 대충 다듬어 세운 웅장한 자태로 하여 고구려적인 독특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비문의 문장에 대하여 력사가들은 《비문이 간결하고 소탕하여 최고급력사책의 필법과 같다.》고 하였으며 비문글씨에 대하여 여러 금석학자들과 서예가들은 《어느 글자나 다 방정엄격하고 질박순수하니 진실로 동방제일의 보배》, 《박력있고 웅대하니 실로 료동제일의 고비》, 《웅건한 글씨는 창해도 내리누를듯이 장중하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고고학자들과 미술가들도 릉비의 독특하고 웅장한 모습에 대하여 《고구려사람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고유한 풍격과 체취, 고구려의 강대한 위력앞에 압도되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광개토왕릉비는 우리 선조들이 직접 쓴 금석문유산중에서 가장 오랜것의 하나로서 비문에 담겨진 귀중한 력사적자료, 그 풍부한 서술내용, 위풍있는 모습과 호탕하고 활달한 문장, 글씨로 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였다.

평양성

평양성은 6세기 중엽 고구려가 평양의 중심부 천연요새에 우수한 건축술로 왕궁성과 도시를 포함하여 건설한 평산성

식수도성이다.

평양성의 동쪽, 남쪽으로는 대동강, 서쪽으로는 보통강이 흐르는데 이것은 천연의 해자와 같은것이며 북쪽에는 산이 솟아있어 천연의 장벽과도 같은것이다.

하기에 평양성에 대하여 후세사람들은 《북쪽은 산이 막고 다른 3면은 물이 막았다.》(《신증동국여지승람》), 《평양은 앞강과 뒤내로써 성호를 삼고있으니 이것은 실로 하늘이 만들어준것이며 땅이 마련하여준 요새이다.》(《평양지》)라고 하였다.

성의 둘레는 모란봉기점으로부터 제자리에 되돌아오는 길이가 약 40리(16㎞)이고 전체 성길이는 약 23㎞이다.

성벽에는 치, 성가퀴, 황(성벽뒤에 판 도랑)과 해자, 장대, 수문 등이 갖추어져있다.

평양성은 기초부터 든든하게 쌓은 성이였다. 고구려인민들은 량면축조법과 외면축조법을 지형조건에 맞게 옳게 배합하고 능숙하게 활용하여 그 어떤 공성무기에도 파손되지 않는 훌륭한 성벽을 쌓아올렸다.

석성의 성돌은 주로 사암과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그 모양은 4각추형인데 앞면은 약간 볼록하면서 네 모서리의 각을 죽였고 뒤로 가면서 좁아지다가 길어진 형태를 보면 마치 강냉이알과 비슷하다.

성돌들은 고구려가 독자적으로 창조하여 위력한 산성과 도

성들을 쌓을 때 리용한것이였다.

이러한 성돌들에 글자를 남겨 축성당시 건설을 책임졌던 사람들과 쌓은 구간과 날자들을 새기였다. 고구려시기 평양성은 전체 구간을 이러한 성돌로 쌓았는데 후세에 와서 성의 일부 구간들에 흙을 덮어 방수성으로 리용하였다. 평양성안에는 여러가지 건축물들이 건설되여있었다. 성에는 10여개의 성문과 7개의 장대, 루정들이 있었는데 대동문과 보통문 등 5개의 성문과 을밀대, 최승대 등 장대들, 부벽루, 련광정 등 루정들은 오늘까지 남아있다.

상 식

성문건축의 표본-대동문

대동문은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6세기 중엽에 처음으로 세워진 후 여러차례 보수개건되였다.

대동문에 《읍호루》라는 딴이름도 있는데 이것은 문루에 서서 손을 아래로 드리우면 대동강의 맑은 물을 떠올릴수 있게 대동문이 아름다운 자연풍치에 잘 어울리면서 강기슭에 솟아있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대동문은 대동강을 건너 남쪽으로 통하는 곳에 서있는것으로 하여 평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성문이였다.

대동문은 장엄함과 아름다움, 경쾌성을 갖춘 우리 민족의 성문건축의 표본이다.

지붕은 합각식이며 지붕두공은 3포식으로 되여있다.

웅장하게 건설되였던 평양성은 동방의 대강국이였던 고구려의 위용과 건축술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평양성은 당시는 물론 후세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면서 여러 도성들의 본보기로 되였다.

유명한 황룡사유적

황룡사는 고구려의 금강사, 백제의 미륵사와 함께 세나라시기의 유명한 사찰이다.

황룡사터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전기신라시기의 사찰

기둥, 도리, 서까래 등 부재들은 모두 굵직굵직하며 부재의 조각처리도 잘되여 성문루로서 가져야 할 장중한 맛을 잘 나타내고있다.

문루는 밖에서 보기에는 2층집과 같은데 안에 통기둥을 높이 세워서 2층지붕을 떠받들게 하여 시원히 틔워놓았다.

대동문에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갈로 화려한 모루단청을 입혀 문루를 더한층 호화롭고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고있다.

외국의 한 건축가는 대동문을 보고 《이 건물은 그 하나로서도 건축학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박물관과도 같다.》라고 말하였다.

대동문은 주변의 대동강과 련광정, 평양종각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건축미를 나타내고있다.

이처럼 대동문은 중세성문건축의 박물관과도 같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터이다. 황룡사는 553년에 지은 궁전을 사찰로 고쳐짓기 시작하여 645년에 끝냈다.

황룡사는 초기에 동서회랑사이가 64.85m, 중문중심과 강당중심사이의 거리가 138m였다. 그후 여러번 고쳐짓고 새로 짓는 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황룡사의 회랑안면적은 8 700여평으로서 불국사에 비하여 거의 8배나 컸다.

회랑안에 탑이 하나 있고 금당이 3채 있는 건물배치형식은 금강사, 정릉사 등 고구려사찰의 건물배치형식을 본딴것이였다.

황룡사에는 신라의 이름난 화가 솔거가 벽에 그린 소나무가 있었는데 새가 가지에 앉으려다 벽에 부딪쳐 떨어져죽군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황룡사에 645년에 세웠던 9층목탑은 당시의 발전된 건축술을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탑이였다.

황룡사에는 754년에 주조하여 설치하였던 황룡사종이 있었다.

이처럼 황룡사유적은 당시 우리 선조들의 높은 목조건축술을 보여주고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돌탑—미륵사탑

미륵사탑은 전라북도 익산시 미륵사터에 있는 7세기 전반기 백제에서 세운 돌탑이다.

지금은 력사의 흐름속에 웃부분이 마사지고 6층까지만 남아있는데 그 높이는 14.24m이다.

이 탑을 본래의 형태로 복원하여보면 그 높이가 약 23m(9층)에 달한다.

옛 문헌인 《동국여지승람》에도 이 탑이 동방에서 제일 큰 돌탑이라고 씌여있다. 탑은 한단의 널직한 밑단과 9층의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져있었다.

밑단의 네 모서리에는 대각선방향으로 한마리씩의 돌사자가 놓이고 네 면 복판에는 각각 계단이 놓여있다.

탑몸의 첫 층은 앞면과 옆면을 다 3간으로 구성하였는데 가운데간들에는 나들문이 있다. 네 면의 가운데문사이는 서로 통하게 통로로 이어졌고 동서와 남북통로의 교차점에는 4각형의 중심기둥이 세워져있다.

탑은 7세기 전반기에 세워진것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초기돌탑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것은 탑의 요소들(밑단과 처마, 기둥돌, 처마돌, 고임돌, 지붕돌)이 토막돌로 무어졌고 탑의 규모가 나무탑들에서와 같이 매우 큰데서 나타나고있다.

미륵사탑은 우리 민족사에서 탑의 변천과정과 초기돌탑의 모습을 보여줄뿐아니라 그처럼 크고 굉장한 탑을 만들어낸 당시 사람들의 높은 건축술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은 8세기 중엽 후기신라에서 세운 기본탑으로서 당시 건축술의 발전면모를 보여주고있다.

불국사는 당시의 지상건물이 오늘까지 전해지지 않고있지만 현지에 남아있는 건축전체의 째인 립면구성과 평면배치, 다양한 수법을 적용한 돌축담, 기묘하게 쌓은 청운교, 백운교와 같은 돌다리 등 몇개의 구조물들만 가지고도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화려하고 잘 조화된 건물이였는가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

특히 이 사찰의 대웅전앞마당에 마주서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은 이름있는 건축물로 널리 알려져있다.

다보탑이 형태가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건설된 녀성적인 탑이라면 석가탑은 간명하면서도 강한 직선적효과를 강조한 남성적인 탑이다.

높이가 약 8.2㎙정도 되는 석가탑은 2층의 기단과 3층의 탑몸, 탑머리의 6개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탑의 2층탑몸에서 세계에서 오랜 목판인쇄물의 하나인 무구정광다라니경이 발견되였다.

천수백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고 그대로 보존되여온 석가탑

은 다보탑과 함께 기발한 형태구성과 높은 조형예술적형상수준을 과시하는 조선민족의 대표적인 건축유산의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뛰여난 재능을 보여주는 석굴암과 조각상들

석굴암은 8세기 중엽에 경주의 토함산중턱을 깎아낸 다음 그곳에 돌로 쌓아 내부를 만들고 그우에 흙을 덮은 돌칸흙무덤식불교사찰이다.

이 건축물은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잘 어울릴뿐아니라 건물내부의 구조와 공간구성에서도 뛰여난 솜씨를 보여주고있다.

석굴암은 평면상으로 보면 《지상세계》를 가상한 네모난 앞칸과 《극락세계》를 가상한 둥근 안칸으로 되여있다.

석굴암은 이처럼 그 형식과 구조, 축조방법 등 여러 면에서 당시의 뛰여난 건축술과 재능을 잘 보여주고있다.

석굴암에는 40여점의 돌조각상이 있다.

네모난 앞칸을 거쳐 안칸에 들어서면 둥근 방 한가운데 자리잡고있는 대돌우에 놓인 여래상이 있는데 이 여래상을 중심으로 둥근 벽면의 판돌마다에는 관음, 문수, 보현 등 보살상들이 새겨져있다.

1실굴의 여래상은 풍부한 조각적양감과 부드러운 질감을 훌륭하게 표현한 걸작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둥근 벽면에 부각한 각이한 자세의 조각상들은 대범한 수법을 적용한 여래상과는 대조적으로 섬세하고 아름답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여래상 바로 뒤벽면의 관음보살상은 세계중세미술사에서도 크게 일러주는 훌륭한 조각품이다.

굳은 화강암을 자유롭게 다듬어 녀성의 아름다운 몸가짐과 옷자락의 부드러운 질감, 경쾌한 률동 등을 능숙하게 표현한 솜씨는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제석천과 범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들도 잘된 조각으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석굴암과 여래상, 관음보살을 비롯한 조각품들은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슬기와 재능이 깃든 세계적인 건축물이며 조각품들이다.

발해조각의 대표작—상경돌등

상경돌등은 발해시기 우수한 건축술과 조각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만들어진 세계적인 걸작으로 알려져있다.

이 돌등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룡천부의 제2사찰터에 자리잡고있다. 돌등의 원래 높이는 6.3m였다. 지금 등머리의 웃부분이 일부 잃어진채 남아있다.

상경돌등은 검푸른 용암을 마치 나무다루듯이 정교하게 다듬어 만들었다. 이 돌등은 받침대, 기둥, 불집, 등머리의 네

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상경돌등에는 금강비례, 황금비례, 웅근수비례 등 여러가지 구성수법들이 적용되고있다.

상경돌등은 치밀한 설계에 따라 설계되고 시공되였다.

이 돌등에서 1자가 35㎝안팎의 크기를 가진 발해자의 기초가 산출되였다.

상경돌등은 조선을 비롯한 동방의 여러 나라 돌등가운데서 가장 오래고 큰 우수한 돌등에 속하며 다른 나라의 돌등 및 탑제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려의 왕궁터—만월대

만월대는 우리 민족사에 존재하였던 첫 통일국가 고려의 왕궁터이다.

만월대는 919년에 고려왕궁으로서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게 완공되였다.

고려사람들은 왕궁을 가리켜 《대궐》, 《어궐》 그밖에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고려왕궁의 면적은 125만㎡에 달한다.

궁성의 정문은 남쪽에 있는 승평문이였고 서쪽에 서화문, 동쪽에 동화문, 북쪽에 현무문 등과 그밖에 작은 문들이 있었다.

궁성의 북쪽언덕에는 정자터가 있다.

왕궁의 정자들에 이을 청자기와는 전라남도 남해바다가지 방에서 만들어서 1 000리가 넘는 개성까지 소로 날라왔다고 한다.

만월대의 고려왕궁유적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고려왕궁의 구성과 주요궁전터의 짜임새가 안학궁과 비슷하여 고구려의 강한 문화적영향을 보이고있는 점이다.

만월대유적은 고려시기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묘향산의 보현사와 8각13층탑

묘향산 보현사는 11세기초에 세운 사찰로서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과 훌륭한 예술적기교를 보여주고있다.

보현사는 남북으로 길게 중심축을 설정하고 그 축우에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만세루, 탑과 문들 그리고 여러 건물들이 배치되여있다.

보현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조계문과 해탈문, 천왕문이 놓여있다.

천왕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서면 4각9층탑과 만세루, 8각13층탑과 대웅전이 차례로 서있다.

8각13층탑은 굳은 화강암을 다듬어 쌓았는데 그 층수와 높이에 있어서 돌탑가운데서 가장 크고 우수한 탑이다.

탑은 우로 올라가면서 높이와 너비를 차례로 줄이였고 몸

돌모서리마다에 가늘게 모기둥을 나타내고 면들에는 테를 둘렀다. 지붕의 처마는 끝마다 가볍게 들어올려 경쾌한 느낌을 주며 매 층 지붕들의 추녀끝에는 풍경을 달아놓았다.

대웅전은 보현사의 중심건물로서 장중하고 화려하다.

대웅전은 앞면 5간, 옆면 3간크기의 합각집인데 기둥, 두공, 제공, 문짝 등에 빈구석이 없이 화려한 비단무늬를 배합한 금단청을 입혔고 꽃과 새, 부처, 룡과 봉황새를 조각 또는 그림으로 그려 건축미를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 대웅전의 동쪽에는 관음전이 있다.

보현사는 규모가 방대하고 건축물들이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력사가 오래고 갖춤새가 완전한 사찰로서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과 훌륭한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 문화유적이다.

관서제일루—백상루

백상루는 평안남도 안주시의 옛 내성 북쪽성벽 청천강가 언덕우에 있는 루정으로서 고려시기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 세웠다.

루정은 안주성의 북장대로서 그 전망이 좋고 아름다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명승고적이다.

백상루는 련광정, 인풍루, 통군정 등 루정들가운데서 첫째라 하여 《관서제일루》라고 불렀다.

백상루라는 이름은 백가지 좋은 경치를 다 볼수 있는 루정이라는 뜻에서 붙인것이다.

백상루는 잘 다듬은 돌로 정연하게 쌓은 밑단우에 세워졌다.

루에는 밑에 주추돌을 받친 두리기둥을 세우고 그우에 마루를 깔았으며 마루의 가운데칸에는 오르내리는 계단을 놓았다.

지붕은 합각지붕이고 건물의 몸체는 하나이면서도 네 면에 박공을 내여 마치 여러 건물을 잇대여 지은듯 한 느낌을 받게 하였다.

루정의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지 않았으며 천정은 통천정으로 하여 시원하면서도 장중한 맛을 내였다.

또한 모루단청을 하여 건축장식적효과를 돋구었다.

백상루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때 전투를 지휘하는 장대로 리용되였다. 이처럼 백상루는 루정이 아름답고 경치가 좋아 유명하다.

새로운 건축술로 건설한 수원성

수원성은 조선봉건왕조가 수도 한양성의 남쪽위성으로 18세기말에 경기도 수원시에 쌓은 성이다.

수원성은 임진조국전쟁의 경험과 교훈을 살리면서 지난 시기의 축성리론을 총집대성하여 정약용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설계하였으며 1794년-1796년에 건설되였다.

성의 기초는 땅을 깊이 파고 바닥을 다진 다음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모래와 잔자갈을 한벌 깔고 그우에 보드라운 흙을 덮고 두들겨 다졌다. 이런 방법을 되풀이하면서 땅걸면까지 다져올리고 거기에 돌기초를 놓았다.

성벽은 일정한 형태로 잘 다듬은 돌과 함께 중요한 구간에는 벽돌을 썼으며 성벽의 가운데부분을 안으로 휘여들게 하여 적이 기여오르지 못하게 쌓았다. 성벽의 둘레는 약 5.2㎞이고 높이는 평지대에서 약 7m, 산지대에서 약 5m이다.

성벽밖으로는 약 10m쯤 떨어져 깊이 4.5m의 해자(성벽두리에 파놓아 적이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 도랑)를 파놓았으며 성벽밖 일정한 구간에는 나무를 심지 않아 적이 접근하면 쉽게 발견되게 하였다.

성벽우에는 1 440개에 달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성가퀴를 군대가 대오를 지어 성벽우를 다녀도 보이지 않을 높이로 쌓았다. 팔달문루는 조선봉건왕조 후기를 대표하는 높은 건축기술이 반영된 문루건물이다.

이 성은 우리 민족의 중세성곽으로서는 구조가 완비된 성곽으로서 방어력이 강할뿐아니라 강한 공격력도 겸비하였다.

화포(화약을 쓰는 포)가 많이 쓰이는것을 고려하여 성벽의 높이보다 두께를 증대시켰다.

수원성을 쌓는데는 거중기(기중기)와 같은 기계들이 도입되고 각지에서 이름있는 석공, 목수, 야장공 등 건설기능자들과 수많은 인민들이 동원되였다.

수원성은 우리 민족의 성곽의 구조와 그 특성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문화유적이다.

회화와 공예

고대의 우수한 금속공예품들

고대시기 우리 선조들은 창조적인 생산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높은 수준의 금속공예품들을 창안하였다.

이 시기의 금속공예는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독자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대표적인것이 잔줄무늬거울과 청동방울이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잔줄무늬거울은 앞면이 반들반들하여 잘 비치게 되여있고 뒤면에는 여러가지 기하학적무늬를 새겼는데 그 장식이 매우 독특하다. 세밀한 잔줄을 평행시켜 채운 작은 2등변삼각형을 한 단위로 하여 그것을 반복전개한 잔줄무늬, 수많은 직선들은 그 어느 하나도 찌그러졌거나 맞붙은것이 없이 아주 정밀하다.

고대시기 청동거울의 무늬장식은 번개무늬와 전나무잎무늬, 잔줄무늬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무늬장식은 그 첫 시기에는 대체로 성글었으나 그후 차츰 잔줄무늬로 넘어가면서 금속공예의 극치를 이루었다.

청동방울 역시 고대시기의 금속공예의 높은 발전수준을 잘

보여준다. 말방울, 수레방울을 비롯한 당시의 여러가지 방울들은 그 형태와 장식이 기발하고 다양하다. 편종(악기)과 오이, 꽃, 종 등의 모양을 본따 만든 다양한 방울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이채롭다.

고대시기의 금속공예품들은 선조들의 예술적지혜와 정서, 높은 공예술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재부이다.

세계적인 걸작—강서세무덤의 사신도

강서세무덤의 사신도는 고구려무덤벽화로서 회화에서 세계적인 걸작으로 평가되고있다.

세무덤가운데서 남쪽의것은 큰 무덤, 북쪽의 2기가운데서 서쪽의것이 중무덤, 동쪽의것이 작은 무덤이다.

큰 무덤과 중무덤에만 사신도를 비롯한 벽화가 있다.

이 사신도들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그림은 큰 무덤의 청룡과 현무, 중무덤의 백호와 주작이다.

사신도는 무덤의 네 벽에 청룡(동쪽), 백호(서쪽), 현무(북쪽), 주작(남쪽)의 환상적인 방위신들을 그린것이다.

큰 무덤의 청룡과 중무덤의 백호는 달리는 상상속의 짐승들을 형상한것으로서 균형잡힌 구도, 힘껏 추켜올린 앞발과 예리한 발톱, 불날개가 달린 앞가슴, 마디마디에 힘이 맺혀있는 구불구불한 꼬리 등으로 하여 맹수의 특징을 실감있게 나타내고있다.

큰 무덤의 현무는 거부기와 뱀이 서로 엉켜있는 형상으로 된것으로서 빈틈없이 째인 구도와 힘있는 선으로 하여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있다. 날개를 활짝 펼친 중무덤의 주작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새를 형상하고있다.

고구려화가들은 실제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에 기초하여 억센 힘과 사나운 성격을 가진 동물의 기질을 일반화함으로써 환상적인 동물그림에 힘있는 박력과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특히 사나운 맹수들의 특징을 대담하게 과장하고 동물들의 미끄럽고 윤기나는 특유한 피부색의 질감까지 실감있게 나타내여 청룡이나 백호가 살아서 막 달려나오는것과 같은 생동함을 나타냈다.

강서세무덤의 사신도는 중세미술사의 걸작으로 높이 평가되고있다.

고구려의 금속공예—금동해뚫음무늬장식품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재능은 고구려의 금속공예술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금동해뚫음무늬장식품은 고구려시기의 금속공예품으로서 그 크기는 길이 24.5㎝, 높이 13㎝이며 오늘까지도 그대로 보관되여있다.

금동해뚫음무늬장식품은 높은 금속세공기술로 하여 마치

금동판에 뚫음새김을 하지 않고 가느다란 금동선으로 섬세하게 엮은듯 한감을 주고있다.

장식정면판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같은 구름무늬를 봉황무늬와 결합하여 뚫어새겼다.

뚫음무늬의 선들은 매우 정교롭고 치밀하며 약동적이다. 마치 청룡, 백호를 비롯한 고구려무덤벽화의 거침없고 박력있는 선들과 비슷하다.

장식판가운데에는 해를 상징하는 날개를 한껏 편 세발까마귀의 모습을 뚫어새겼다. 특히 금동투각판뒤에는 화려한 금록색의 딱정벌레날개를 깐 나무판을 대여 금동의 아름다운 색갈과 률동적인 선들이 더욱 선명하고 우아하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러한 착상은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 공예가들에 의하여 도입된 독특한 공예장식수법의 하나였다.

이처럼 금동해뚫음무늬장식품은 고구려사람들의 진취적이고 락천적인 기상과 정교로운 투각솜씨, 섬세한 예술적재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있는 세나라시기의 대표적인 금속공예품이다.

신비한 음향을 내는 봉덕사종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봉덕사종은 평양의 평양종, 개성의 연복사종과 함께 조선의 3대종의 하나로서 종의 신비로운 음

향으로 유명하다.

771년에 박한미를 비롯한 4명의 장공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봉덕사종이 에밀레종으로 불리워오는 전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있다.

봉덕사종은 주조술과 금속공예술이 우수할뿐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종들가운데서 제일 크다.

종머리에는 소리통(삽기)이 있고 종을 매달수 있도록 고리로 된 룡틀임조각을 붙였다. 룡조각은 종을 들어서 걸수 있게 만들었다.

이 종은 형태가 풍만한감을 주며 아름다울뿐아니라 겉면에 새겨진 우수한 장식조각으로 하여 어느 종과도 비교할수 없는 독특한 미를 가진다.

봉덕사종은 몸체의 륜곽선을 봉긋하게 하여 풍만한감을 느끼도록 하고 종아구리도 여느 종과는 달리 높은 조형미를 보장하였다.

종허리에 새긴 4명의 비천 역시 련꽃우에 앉아 가벼운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날아가는 형상으로 새기였는데 매우 아름답다.

종허리에는 이 종을 만들게 된 경위가 글로 새겨져있다.

봉덕사종은 그 종소리가 장중하고 여운이 있는것이 특징이다.

조선종의 고유한 민족적정취와 구조양식을 갖춘 봉덕사종

은 소리여운과 아름다운 자태, 높은 공예술로 하여 유명하다.

천하의 보물—고려자기

고구려시기부터 시작된 청자기술은 국토가 통일된 후 고려인민들에 의해 아름다운 모양과 부드럽고 우아한 색갈, 섬세한 조각과 아담한 무늬 등을 가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고려자기는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고려미술을 대표하며 세계중세공예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려자기의 형태를 이룬 륜곽선들은 물결같은 흐름이 부드러우면서도 률동적이다. 형태를 이루고있는 부분들의 량적인 대조가 명백하고 선의 흐름이 변화무쌍하지만 높이를 강조한것으로 하여 우아하게 느껴지며 곡선들의 조화로운 배렬로 하여 립체적감각이 부드럽게 안겨온다.

고려자기는 또한 형태가 다양하고 참신하다. 특히 기발한 착상에 의하여 형태구성이 이루어진 물형자기는 실재한 그 어떤 물체를 보는듯 한 생동한감을 주며 부분 하나하나가 다 실용적인 구조와 잘 어울리게 형상하였다.

고려자기의 색갈에는 청색, 흰색, 검은색, 진홍색 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하나와 같이 아름답고 고상하며 은근하였다. 그가운데서도 청색자기를 으뜸으로 놓았다.

가을하늘의 푸른색이나 깊은 산중에 맑게 흐르는 푸른 물색에 견주어 비색자기라고도 하는 고려자기의 색은 부드럽고 은근하고 우아한 정서를 자아내는 독특한 비색이다.

이 색은 비취옥과 같은 색갈이라는 뜻인데 세상사람들은 이 색을 천하제일로 찬양해왔다.

고려자기의 장식무늬(인물, 동물, 식물, 자연을 형상한것), 상징적무늬, 글자무늬 등 그 종류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데 하나같이 우리 민족의 감정과 취미, 기호에 맞고 누구나 자기 향토를 생각하게 하는 소재들이다.

이러한 무늬들은 홈파기, 돋을새김, 뚫어새김, 도장찍기 등 조각적장식수법과 붓으로 그리는 회화적수법, 무늬박이수법 등으로 표현되였다.

여기서 기본은 무늬박이수법(상감법)인데 그것은 그릇표면에 홈을 파서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흰흙과 검은흙, 붉은흙 등을 잘 메꾼 다음 그우에 사기물을 발라 구워내는 수법으로서 이것은 무늬의 립체감을 나타내여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결 돋구어주고있다.

고려자기는 잔, 병, 접시, 주전자, 단지 등 그릇의 품종에 따라 모양이 다를뿐아니라 같은 품종안에서도 그 모양이 각양각색이다.

이처럼 상감기법으로 만든 고려자기는 그 특출한 색갈과 무늬, 모양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우아하고 고상하다.

고려의 시인 리규보는 고려자기에 대하여 《얼른거림은 푸른 옥의 빛이요 령롱함은 수정의 모습이라 치밀한 옥무늬는 살결과도 같네》라고 하였고 조선봉건왕조의 서예가 김정희는 《500년 묵은 고려자기 오히려 비색을 자랑하누나 아름다운 광택 쉽게 변치 않으리》라고 하였다.

고려자기는 다른 나라들에 널리 수출되여 그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쳤다.

우리 선조들의 로동과 창조적지혜, 높은 예술적재능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려자기는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일뿐아니라 천하의 보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회화형식—조선화

조선화는 동양화의 일반적특징을 띠면서도 조선민족의 고유한 회화형식의 훌륭한 특성을 뚜렷이 갖추고 오래전부터 발전하여왔다.

고대시기부터 형성발전되여온 조선화는 우리 선조들의 민족적감정과 정서를 풍부하게 담고있으며 현실을 생동하게 그려내는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화면에서 선명성과 간결성은 중심이 뚜렷하고 대조가 선명하며 여운이 깊은 구도, 조형방법 그리고 선, 색채, 명암 등의 표현에서 나타난다.

조선화화법의 기초를 이루고있는 함축과 집중의 원리는 사

물현상의 가장 본질적이고 특징적인것을 뚜렷이 부각시켜 대상의 본질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는 예술적일반화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조선화에는 세화기법, 몰골기법, 선묘기법, 우림기법이 있다.

조선화는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시기인 4～7세기경에 더

상 식

명화 《소몰이군》

《소몰이군》은 18세기 전반기 김두량이 그린 필치가 생동하고 형상이 진실한 조선화작품이다.

작품은 무더운 여름날에 서늘한 버드나무그늘밑에서 자는 소몰이군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농민들의 고달픈 생활처지와 호방하고 소탈한 성품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농사일에 몹시 지친듯 그늘진 풀밭에서 베적삼을 풀어헤치고 곤히 잠든 소몰이군의 형상에는 로동에 시달리며 고생속에 살아가는 농민들의 고달픈 생활, 가난속에서도 농사군의 본분을 성실히 지켜가는 호방하고 소박한 성품과 근면성이 그대로 슴배여있다.

화면중심에 그려진 풀을 씹고있는 황소의 모습은 조선소의 온순하고 힘센 기질과 소를 아끼고 정성들여 거두는 알뜰한 일솜씨를 느끼게 하며 버드나무밑둥과 흐느적이는 나무가지, 주인공이 누운 풀밭 등은 농촌의 정서와 구수한 흙냄새를 정서깊이 받아안게 한다.

작품은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사실주의적특성으로 하여 18세기 진보적화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선화작품의 하나로 되고 있다.

욱 발전하였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무덤벽화들이 실증해준다.

조선화는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높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서양의 화가들도 《깊은 사색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조선화는 눈앞의 사실만을 화판에 가득 그려내는 서양화보다 훨씬 높은 리상을 가지고 현실을 반영하고있다.》고 감탄하고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유명한 서예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 다른 예술분야와 함께 서예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서예는 일정한 구성을 가진 글자나 글귀를 조형적으로 써서 인간의 사상감정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조형예술의 한 형태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유명한 서예가들로서 한석봉, 리용, 리광사, 김정희 등을 들수 있다.

한석봉은 어려서부터 글씨에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었다. 어머니의 방조밑에 스승을 찾아가 글씨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등 모든 서체에 능통하였고 크고작은 글씨 할것없이 자유자재로 묘기와 특기를 발휘하여 당대 명필로서 이름을 날리였다.

한석봉이 명필로 이름을 날리자 조선봉건왕조에서는 외국

사신을 영접할 때 그를 사자관으로 참가시켰으며 외교문서작성때에도 그에게 글을 씌우군 하였다.

한석봉의 서예솜씨는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져 높이 평가되였다.

그가 얼마나 글씨를 재치있게 잘 썼던지 이웃나라의 한 학자는 한석봉의 웅건한 필치가 《마치 노한 사자가 바위를 까부시는것 같고 목마른 천리준마가 샘물로 내닫는것과도 같은 기백을 보여주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당시 조선에 왔던 다른 나라 사신들은 한석봉의 글씨를 천하의 보물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갔다고 한다.

한석봉이 창조한 서체의 특징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우수한 조형미와 결구를 갖춘 해서체의 본보기서풍이며 서사속도가 빠르면서도 아름다운 결구를 가진 특유한 서풍이고 크고작은 글자 할것없이 묘한 특기와 필체를 발휘하여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서풍이라는데 있다.

이처럼 한석봉을 비롯한 서예가들이 남긴 서예체들은 우리 민족의 서예발전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주변나라 서예가들의 아낌없는 찬탄을 받았다.

민족음악과 무용

오랜 음악무용유산인 《공후인》과 《공막무》

고대시기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음악과 무용작품들가운데는 옛 기록들에 전해오는 《공후인》과 《공막무》가 있다.

《공후인》은 고조선사람들속에서 창조된 서정이 강한 민속가요이며 《공막무》는 그 노래에 맞추어 긴소매옷을 입고 춘 민속무용이다.

《공후인》의 창작경위에 대해서는 옛 문헌들에 자세히 기록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고조선의 배사공이였던 곽리자고라는 사람이 이른새벽 배를 저어 나루를 건느려 할 때 머리를 풀어헤친 한 늙은이가 사품치는 강물에 뛰여들어 건느기 시작했다. 이때 그의 안해가 남편의 뒤를 쫓아와 안타까이 부르며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고 물에 빠져죽었다.

그러자 그의 안해는 공후를 타면서 노래를 지어불렀는데 그 소리가 심히 슬프고 애처로왔다. 곡을 마친 안해는 자기도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곽리자고는 집으로 돌아와 안해 려옥에

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물에 빠져죽은 로인의 안해가 죽음을 앞두고 부른 노래를 불렀다.

려옥은 공후로 그 음률을 재현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고조선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타면서 정서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자기들의 감정정서를 즉흥적으로 노래할수 있는 음악적재능을 가지고있었다.

명곡에는 아름다운 춤가락이 따르기마련이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통하고 애절함에 눈물흘리게 하는 이 노래가 널리 불리워지는 과정에 그 곡에 맞추어 부드럽고 우아한 정서로 추는 춤도 창조되였다. 그것이 《공막무》였다.

옛 문헌인 《악서》에는 《공막무》가 《공막도하곡》(《공무도하곡》)의 춤이였다는데 대하여 기록되여있다. 이 춤은 애절한 정서의 음악에 맞추어 부드럽게 추는 긴소매옷춤이였다고 한다.

《공후인》과 《공막무》는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이른시기의 음악무용유산으로, 민족의 자랑으로 된다.

신선의 음을 내는 저대

고구려사람들이 만든 독특한 관악기인 저대는 우리 겨레의 사랑속에 발전하여온 고유한 민족악기이다.

고구려시기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십종의 악

기들이 만들어져 민족음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특히 저대연주를 좋아하였다.

저대는 독특한 음색을 가진 민족악기로서 력사책들에는 저대를 가로쥐고 부는 악기라고 하여 《횡적》이라고도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저대를 《하늘의 고운 음》을 내는 악기라 하여 매우 신비하게 여기였다. 강서큰무덤벽화에 《신선》이 저대를 부는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것이다.

저대는 보통 참대로 만들었는데 관에 바람을 불어넣는 취구와 음공이 있다.

고구려사람들이 만든 저대는 세나라시기 백제, 신라에서도 보급되였다. 신라사람들은 고구려에서 저대를 받아들여 대함, 중함, 소함의 《향3죽》을 만들어 썼다.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저대속악기가 그대로 리용되였다.

이와 같이 저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선조들의 정서생활과 음악예술활동에 리용되면서 친숙하여진 독특하고 훌륭한 민족악기이다.

특색있는 민족악기―가야금

가야금은 세계에 자랑할만 한 우리의 민족악기이다.

가야금은 6세기 초엽에 가야국의 우륵이 만들어낸 악기이기때문에 그 이름도 《가야금》이라고 불리웠다.

가야금의 롱현은 이 세상 그 어느 악기도 낼수 없는 독특한 음향이다.

가야금은 우리 겨레의 성음에 맞게 만들어졌기때문에 조선봉건왕조 전반기까지 형태상 큰 변화없이 계승되여왔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이르러 민간음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가야금의 구조와 연주법 등에서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민간기악분야에서 가야금방창과 가야금산조와 같은 연주양식이 발생하면서 가야금음악이 급격히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악기자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가야금은 탄력있으면서도 그 울림이 부드럽고 우아하며 연주자세가 률동적이고 아름다워 우리 민족의 정서와 기호에 잘 맞는다. 그리고 그 구조가 간편하고 이동괘로 음을 쉽게 맞출수 있으며 연주법이 다양하고 누구나 배우기 쉬워 널리 보급되고있다.

민요—《아리랑》

《아리랑》은 우리 겨레의 민족적감정과 정서를 풍부히 담고있어 오래전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아리랑》의 발생과 어원에 대한 많은 전설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성부와 리랑》이다.

옛날 어느 한 마을의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리랑이라는 총각과 성부라는 처녀는 흉년이 든 어느해 이 지방에서 일어난 인민들의 폭동에 참가하였다가 관군의 추격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리랑과 성부는 백년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후 리랑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싸움터에로 나갈것을 결심하고 사랑하는 안해와 리별하고 높고낮은 고개들을 넘고 넘어 떠나갔다.

그때 성부는 떠나간 남편 리랑이 넘은 고개들을 바라보며 그리움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아리랑》으로 되였다고 한다.

이 민요는 오랜 세월 우리 겨레의 사랑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는 과정에 지방에 따르는 여러가지 변종들이 생겨났으며 전국적으로 하나의 민요군을 이루고있으면서도 각기 고유한 지방적특색을 가지고있다.

《아리랑》은 평안도의 《서도아리랑》, 함경도의 《단천아

리랑》,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전라도의 《진도아리랑》 그밖에 《영천아리랑》, 《정선아리랑》 등 적지 않은 변종들을 가지고있다.

《아리랑》가운데서 우리 겨레와 세상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것은 1920년대에 보급된 《아리랑》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

조선민족의 감정을 그대로 담고있는 《아리랑》은 오늘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그 우수성과 특징으로 하여 2014년에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우리 민족고유의 농악무

세상에는 독특한 형식의 춤들이 적지 않지만 농악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색채가 짙은 춤은 찾아보기 힘들다.

농악무는 매우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원시시대 말기와 고대에 성행한 우리 선조들의 민속행사와 관련된 가무에 연원을 둔 농악무는 오랜 기간 농업로동과 생

활풍습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농악무는 전국각지에서 풍년을 바라거나 경축하는 군중적춤판으로 널리 진행되였으며 다양한 민족예술형식들이 결합된 종합적이고 대중적인 민간예술형식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당시 농악무는 우리 겨레의 공동로동형태인 두레나 황두의 공동로동, 민속명절과 풍년을 바라는 민속행사, 군영들에서 광범히 추어졌다.

농악대는 꽹과리, 징, 장고, 북, 새납을 연주하는 풍물잡이들과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소고수, 무동을 비롯한 춤군들, 각양각색의 인물로 분장한 잡색, 기타 한두명의 가수, 신호수들로 편성되였다.

농악무는 농악대가 행렬을 지어 걸어가면서 연주와 춤을 진행하는 길놀이, 여러가지 춤종목과 기악연주, 민요가창으로 다채롭게 구성되는 집체춤부분인 판놀이, 개별적인 인원들의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시위하는 개인놀이 등 세개의 춤부분으로 구성되는것이 특징이다.

농악무는 각 지방의 특징이 뚜렷한 열두채의 농악장단에 따라 집체적으로 추는 일채, 이채, 삼채, 사채, 오채, 륙채, 칠채춤가락이 있으며 상쇠춤, 소고춤, 북춤, 장고춤, 상모춤과 같은 소도구의 특성을 살린 각이한 형상의 춤들도 있다.

농악무는 춤판의 규모가 크고 형상이 다양하며 흥취 또

한 강하다.

농악무는 참가인원이 제한이 없는 집체적인 예술형식이며 남녀로소 누구나 다 출수 있는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춤이다.

농악무는 능란한 연주기법과 춤기량 그리고 열두발상모의 멋들어진 활용으로 춤판의 분위기를 돋구었다.

농악무의 실용적목적과 보급분야가 더욱 넓어지고 유명한 민속예술로 발전하게 된것도 상모춤형식을 받아들인 이후부터이다.

원래 상모춤은 전립에서부터 나온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전립(일명 벙거지라고 하였다.)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군모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군대들은 넓지 않은 채양을 두른 반구형의 전립을 쓰고 다니였는데 그 반구형 꼭대기에는 상모라고 하는 장식깃이 붙어있었다.

상모는 개꼬리털이라는 뜻이다. 머리를 움직이거나 바람이 불 때면 앞뒤, 좌우로 흔들리며 절로 가볍게 돌아가기도 하는 상모의 움직임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으며 독특한 률동감을 주었다.

흥겹고 다양하게 변주되는 농악에 맞추어 다리굴신과 목놀림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상모를 경쾌하게 돌리며 추는 상모춤은 우리 민족의 락천적인 생활감정을 독특한 무용기교로 보여주는 특색있는 춤으로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봉산탈춤

지난날 황해도는 어느 지역에서나 탈춤이 성행하여 탈춤고장이라 불리웠으며 그중에서도 봉산지방에서 추어진 봉산탈춤이 제일 유명했다.

봉산탈춤이 향토적색채가 짙은 민속예술형식으로 더욱 발전한것은 18세기부터였다.

당시 이 지방은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 상업중심지로서 각지의 큰 상인들, 보부상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다.

상업도시로 전변된 봉산지방은 례외없이 민간예술인들의 주요활동거점으로 되였고 장거리들에서는 상품을 사러 온 고객들 못지 않게 사당패나 광대패의 탈춤을 보러 온 구경군들도 많았다.

봉산탈춤은 근로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노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보충완성되였으며 그 내용과 형상이 인민적이고 통속적인것으로 하여 각지에서 환영을 받았다.

봉산탈춤은 12개 과장(탈춤의 구성단위)으로 구성되였는데 사상좌춤, 팔목춤, 법고춤, 사당춤, 로승춤, 신장사춤, 취발이춤, 사자춤, 량반춤, 포도비장춤, 미알춤, 남극로인춤이다. 탈춤은 《탈춤령산》에 맞추어 추어지는데 모든 춤들은 굿거리장단으로 시작하여 타령장단으로 마무리된다.

봉산탈은 종이탈인데 그 제작법을 보면 흙으로 만든 모형에 조선종이를 여러겹 발라 말리우고 색을 칠하며 탈면에 갖풀을 발라 윤기를 내였다.

탈면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한채로 색을 칠하여 우등불가에서 춤을 출 때 강렬한 느낌을 준다.

봉산의 경수대, 사리원 경암루는 봉산탈춤이 공연되던 대표적인 장소들이다.

민족의 넋이 살아숨쉬는 봉산탈춤은 오늘도 대중민속무용으로 널리 전해지고있다.

민속무용 장고춤

장고춤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악기인 장고를 메고 추는 무용이다.

세나라시기부터 우리 선조들이 널리 추어온 장고춤은 오랜 발전과정에 그 형상수법이 다양해졌으며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다.

조선봉건왕조 후반기 농악무가 각지에서 성행하고 그 형상수법이 발전하는 과정에 농악무의 연주를 담당하였던 장고잡이들이 연주와 춤이 결합된 장고춤으로 농악무의 형상을 한층 돋굼으로써 활달하고 락천적인 남성장고춤이 농악춤판에서 주도적인 춤으로 인기를 끌었다.

장고춤에서는 장고를 끈으로 매서 어깨에 메고 오른손과 왼

손으로 여러가지 장단연주를 하면서 다양한 춤동작들을 수행한다.

주요춤동작으로는 세걸음 앞으로 나갔다 뒤로 들어오면서 장단을 치는 동작, 장고를 치며 옆으로 걸어가는 동작, 잦게 장고를 치며 뒤걸음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 장고를 치고 두팔 메는 동작, 장고를 빠르게 넘겨치기하면서 앞으로 걸어나오는 동작 등이 있다.

장고채어겨치기, 장고전치기동작들은 장고의 울림을 목적으로 한 치기동작인것이 아니라 장고의 편둘레와 조임끈을 치는 동작, 장고의 량쪽채를 어겨치는 동작들로서 춤군이 흥이 날 때 멋을 돋구는 동작이다.

장고춤은 다양한 장고치기와 결합된 춤이므로 다른 춤들보다 장단성이 강하고 흥취가 한결 강하다.

장고춤은 독무로 추기도 하고 군무로 추기도 하였다. 독무로 출 때는 능란한 춤군이 변화무쌍한 기교와 춤동작으로 기교를 부리군 하였으며 군무로 출 때에는 시원스럽고 활달한 춤동작으로 안삼블을 잘 맞추면서 멋들어지게 추군 하였다.

우아하고 매력있는 춤가락과 장고치기수법으로 현대적양상을 돋군 장고춤은 오늘도 어른들뿐아니라 아이들속에서도 널리 추어지고있으며 국내외에서 절찬을 받고있다.

고대시기부터 발전해온 교예

고대시기에 발생한 조선교예는 고도로 숙련된 기교로서 인공적으로 조성해놓은 장애를 극복하거나 요술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또는 동물을 길들여 재주를 부리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창조적능력을 보여주고있다.

고대시기 교예의 발전면모는 황해북도 상원군 장리 1호고인돌무덤에서 나온 청동2인교예장식품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 청동2인교예장식품은 서로 어깨를 겯고 한쪽발목을 동여맨 두명의 교예사가 두개의 둥근 바퀴우에 올라서서 둥근 환을 한손에 쥐고 균형을 유지하며 재주를 부리는 장면을 형상한것이다.

단군조선시기것으로 판명된 이 교예장식품은 조선교예가 수천년의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그때에 벌써 상당한 발전수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있다.

락천적인 성격으로 하여 흥겹고 해학적인것을 좋아하는 고구려사람들은 교예를 한층 발전시키였다.

고구려시기에 크게 발전한 교예는 발해, 고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 시기 교예는 주로 외국사신을 영접할 때 수도와 지방들에서 진행하는 산대잡희에서 광대들이 벌린 공연종목의 하나였다.

광대들은 도시와 농어촌을 돌아다니며 각종 예술활동을 벌리면서 민족교예발전을 추동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땅재주, 줄타기재주, 장대우에서 물건중심잡기재주, 무동, 마상재, 요술, 어리광대극 등의 교예종목들이 창조되였다.

4. 민 속 편

민족음식 …………………………………… 170

옷차림과 생활풍습 ………………………… 184

민족체육과 민속놀이 ……………………… 193

민족음식

우리 민족의 주식—밥

밥을 주식으로 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식생활풍습의 하나로서 그 연원은 매우 오래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원시시대와 고대에 피나 조, 기장, 수수, 콩, 팥, 벼 등을 심어 밥을 지어 먹었다.

기록상으로 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것은 세나라시기부터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밥, 약밥이라고 씌여있다.

밥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 그 종류가 더한층 다양해졌으며 밥짓는 방법도 발전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끼니마다 상에 오르는 밥을 영양가가 있고 찰기가 있으며 부드럽고 기름기가 돌아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또 소화흡수률도 높게 하기 위해 애썼다.

또한 각종 낟알과 고기, 남새 등 부재료들을 섞어서 여러가지 종류의 밥을 지어 식사할 때마다 꼭같은 밥이 아니라 다양한 밥을 구미에 맞게 먹었다.

밥에는 다섯가지 알곡을 섞어서 지은 오곡밥과 찰밥에 꿀을 골고루 섞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 다음 밤, 대추, 참기름을 넣어 단지나 움푹한 그릇에 담아 큰 가마에서 오랜 시간 쪄서 만든 약밥, 밥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미나리, 시금치, 다시마, 닭알 등 여러가지 재료를 섞어 만든 비빔밥도 있다. 평양과 해주, 전라도 전주, 경상도 진주지방의 비빔밥은 널리 알려져있다.

이밖에 김치밥, 섭조개밥, 굴밥, 비지밥, 콩나물밥, 나물밥 등 우리 민족에게서만 볼수 있는 밥들도 많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백미로 지은 밥은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났다.

12세기에 조선을 다녀간 이웃나라 사신은 자기가 쓴 책 《고려도경》에서 《고려쌀은 알이 크고 맛이 달다.》고 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쌀이 크면서도 영양가가 있어 밥이 맛있다는것을 표현한것이다.

백미로 지은 밥은 기름이 흐르는듯 윤기가 돌며 눈처럼 하얀 색을 띠기때문에 정갈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민족적 특성과 생활정서가 한데 어울려 입맛을 돋구어준다.

이처럼 밥은 우리 민족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귀중한 식생활유산이다.

조선사람 누구나 즐겨 먹는 국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국은 그 다양성과 영양가치, 독특한 맛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 선조들은 국을 일상음식의 기본부식물로 삼았기때문에 아무리 진귀한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 밥상에도 국은 빠지지 않았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옛 기록에 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것으로 보아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국을 먹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의 식사에 국이 동반된 사실은 동천왕의 왕비가 왕의 성품을 알아보려고 시녀를 시켜 일부러 옷에 국그릇을 엎질렀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국은 원재료와 사람들의 식생활형편에 따라 그 질적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국을 끓여먹는것은 우리 선조들의 중요한 식생활풍습이였다.

국은 주로 아침과 저녁끼니때에 끓였으며 더운 국을 기본으로 하면서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랭국을 해먹었다.

국끓이는 방법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국을 만드는데는 찬물에 국거리를 넣고 끓이거나 끓는 물에 국거리를 넣고 끓이며 국거리를 볶다가 물을 넣고 끓이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적용되였다.

우리 선조들은 생선국을 좋아하였는데 특히 평양사람들은 대동강숭어국을 즐겨 먹었다.

이와 함께 토장국도 즐겨 먹었다. 겨울철에 토장국은 소뼈를 고은 국물에 배추속대나 콩나물, 무우를 넣고 끓였다. 토장국의 구수한 맛과 향기는 진수성찬에도 비길데 없는것으로서 민족의 향취를 짙게 해주었다.

상 식

삼복철의 특식－단고기장

단고기장은 단고기를 푹 삶아 잘게 찢어서 양념장에 재웠다가 더운 국물을 부어먹게 만든 국이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삼복기간에 더위를 이겨내고 영양을 보충할 목적으로 단고기국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이 단고기를 좋아한데로부터 《음식지미방》, 《산림경제》 등 많은 력사책들에 단고기 삶는 법, 찌는 법, 굽는 법들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여있다.

《동의보감》에 《단고기는 성질이 덥고 독이 없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며 혈맥을 통하게 하고 골수를 충족시키며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아픔을 멎게 하며 기력을 증진시켜 양기를 돋군다.》고 서술되여있다.

이러한 효능으로 하여 단고기장은 지난 시기는 물론 오늘도 우리 겨레가 즐겨 먹는 특색있는 민족음식으로 되고있다.

우리 민족음식의 자랑-국수

뛰여난 맛과 영양가,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국수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가 즐겨 먹어온 고유한 민족음식이다.

고려시기에 이웃나라 사신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고려의 특색있는 10여가지 음식가운데서 면식(국수)을 으뜸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여있고 《고려사》, 《해동역사》를 비롯한 여러 책들에도 고려시기 국수를 식생활에 리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어온 국수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만들었다.

《증보산림경제》에 의하면 메밀가루와 록두가루를 섞어 반죽한것을 국수분틀에 넣고 압착하여 가늘게 뽑은 오리를 끓는 물에 삶아내는 방법인데 이렇게 누른 국수를 실국수라고 하였다.

국수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국수는 만드는 기본재료에 따라 메밀국수, 밀국수, 농마국수, 강냉이국수 등이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서 칼로 가늘게 썰어 끓는 물에 삶는 방법인데 이렇게 만든 국수를 칼국수라고 하였다.

또한 국수는 그 조리방법에 따라 랭면, 온면, 비빔국수로 나눈다.

랭면은 말그대로 국수오리를 찬 국물에 만 국수이다.

《동국세시기》에 《메밀국수에 무우김치, 배추김치를 놓고 그우에 돼지고기를 얹은 랭면이 있다.》고 한 기록과 《시의방》에 《국수를 나박김치와 동치미물에 말고 우에 고기, 배, 배추통김치를 얹고 고추가루, 잣을 놓는다.》고 한 기록, 《부인필지》에 《국수를 동치미물에 말고 무우, 배, 유자를 얇게 저며놓고 돼지고기 썬것과 닭알지짐을 썬것, 후추, 잣을 놓는다.》고 한 기록들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랭면을 매우 다채롭게 만들어 먹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랭면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는것은 평양랭면이다.

평양랭면은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어온 고유한 민족음식으로서 그 맛이 하도 좋아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평양랭면은 메밀가루를 기본원료로 한다. 메밀은 사람의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많은 장수식품이다.

평양랭면은 메밀가루로 국수사리를 말아 그우에 김치, 고기, 닭알, 배, 오이 등을 꾸미로 얹고 시원하고 새큼한 육수를 부어 만든다.

평양랭면은 발이 질기고 육수가 시원하고 달며 새큼한 맛이 잘 어울리여 입맛을 감칠게 하는것이 특징이다.

예로부터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지방에서는 집집마다 국수분틀을 마련해놓고 일상음식은 물론 잔치상, 돌상 등 의례때에도 반드시 국수를 곁들이는것이 관습으로 되여있었다.

세계 5대건강식품의 하나인 조선김치

조선김치는 독특한 맛과 향기, 여러가지 질병의 예방치료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선조들이 즐겨 만들어 먹었다.

먼 옛날부터 김치는 우리 민족이 즐겨 먹는 음식의 하나로 저장발효식품인 된장, 간장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식품으로 되였다.

특히 겨울철에는 반년량식이라고 할수 있으리만큼 중요한 음식으로 되였다.

김치는 시원하고 쩡하면서도 독특한 향기와 상쾌하면서도 묘한 감칠맛을 조화롭게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장수식품의 하나로 세계에 널리 퍼지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잡지는 조선김치에 비타민A, C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젖산균이 많으며 다당류와 리그닌이 풍부하여 저지방건강조절식품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런 리유로 하여 조선김치가 세계5대건강식품의 하나로 선정되였다고 하였다.

특히 잡지에서는 조선김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소화가 잘되게 하고 암세포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조선김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맛의 으뜸인 장

콩의 원산지인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장을 담그어 먹었다.

장은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부식물의 하나이다. 장은 콩, 소금, 발효기술을 전제로 한다.

우리 선조들이 콩이나 소금을 원시시대나 고대에 식생활에 리용하였으므로 그 력사가 매우 오래다고 볼수 있다.

콩을 삶아서 그대로 먹는것보다 그것이 발효되면 맛이 구수하며 입맛을 돋구어준다는것을 알게 된 우리 선조들은 점차 콩을 삶아 띄워서 부식물로 리용하여왔다.

우리 선조들은 콩농사를 지어 소나 말에게 콩을 삶아먹이였다. 그런데 소나 말이 땅에 떨어져 곰팽이가 낀 콩을 특별히 맛있게 먹는것을 보고 삶은 콩을 일부러 띄워서 짓이겨 소금으로 간하여 먹어보았는데 별맛이였다. 이것이 장의 유래로 인정되고있다.

그후 사람들은 썩장과 같은 장에 물과 소금을 넣고 일정한 시일이 지난 뒤 채에 밭아서 가마에 붓고 달여 액체로 된 간장을 만들어내고 그 나머지에 메주가루를 섞고 소금을 다시 쳐서 된장을 만들어냈다.

5세기초의 고구려유적인 강서구역 덕흥리무덤의 벽화에 이 무덤을 만들 때 사람들이 백미밥, 고기, 술과 함께 장도 한

창고분이나 먹었다고 씌여져있는것은 장이 당시 고구려에서 널리 보급되여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선조들은 장을 맛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긴데로부터 장만드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위생보장을 철저히 한것은 물론 장을 담근 후에도 나쁜 균에 오염될수 있다고 하여 담근 사람외 다른 사람들은 장독근처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장의 맛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관리를 정성껏 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장담그기와 그 관리에 정성을 기울인것은 장이 주되는 기초식품일뿐아니라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매우 좋았기때문이다.

18세기말에 발행된 《증보산림경제》에는 《장은… 모든 맛의 으뜸이요. 장맛이 좋지 않으면 좋은 남새나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좋은 료리가 될수 없다. 촌야의 사람이 고기를 쉽게 얻지 못해도 여러가지 좋은 장만 있으면 반찬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장맛의 우수성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장의 우수성은 콩의 영양가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장의 재료인 콩에는 곡물가운데서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며 불포화지방인 리놀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하여 피속의 콜레스테롤을 녹여내는 작용을 한다.

《동의보감》에 《메주가 두통과 열을 다스리고 땀을 내게 한다. 따라서 메주와 파를 섞어먹거나 메주와 뽕잎을 함

께 달여서 한사발 마시고 이불을 덮고있으면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이열치열의 원리에 의하여 열이 내리게 된다.》고 씌여져있는데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콩으로 만든 메주로 장을 담그는것과 함께 치료제로도 사용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간장, 된장을 국, 찌개 등 부식물의 기본양념감으로 리용하였을뿐아니라 담북장, 고추장 등은 그대로 반찬으로도 리용하였다.

신선로

신선로라는 말은 원래 열구자탕을 끓이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그릇의 이름인데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그릇이름이 그 안에 끓인 음식의 이름으로 바뀌였다.

신선로는 고급하고 다양한 음식재료, 호화롭고 흥미를 자아내는 그릇, 먹음직스러운 음식물의 예술적꾸밈새, 숯불의 불빛과 끓는 음식감이 안겨주는 상쾌하면서도 후더분한 기분과 냄새로 하여 조선료리의 걸작품으로 되고있다.

신선로는 고기, 물고기, 남새, 산나물, 밤, 대추, 은행, 잣 등 20여가지의 음식재료들을 따로따로 가공하여 닭고기국물을 두고 끓인다.

신선로는 산해진미를 한그릇에 모아놓았다고 할만치 맛에서도 으뜸이고 볼품도 아름다와 음식상을 화려하게 하므로 연회상, 큰상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상료리로 많이 쓰이였다.

신선로는 우리 민족음식가운데서 음식재료와 조미료의 가지수에서 첫자리를 차지할뿐아니라 맛이 하도 좋아 음식이름도 열구자탕 즉 입을 기쁘게 해주는 탕으로 불리웠다.

신선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먹으면 화목을 도모할수 있고 1차 가공한것을 직접 끓이면서 먹기때문에 소화흡수도 잘되고 위생문화적으로도 좋다.

특색있는 주식물—떡

떡은 낟알 또는 낟알가루를 반죽하여 익혀서 만들거나 쌀을 쪄가지고 쳐서 만든 음식이다.

떡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겨 먹는 특색있는 주식물의 하나이다.

떡은 명절이나 생일, 잔치때 만들어 먹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였으며 항간에서는 떡방아찧는 소리와 떡치는 소리가 높이 울려야 명절기분이 나고 잔치기분이 난다고 하였다.

떡이 생겨난 력사는 매우 오래다. 청동기시대 유적들에서 시루가 많이 나타나는데 생김새는 각이하지만 기능상으로는 모두 낟알 또는 가루음식을 찌는데 쓴 일종의 증기찜가마였다.

우리 선조들은 시루를 가지고 쌀을 쪄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쌀가루를 반죽하여 시루에 쪄서 만들기도 하였다.

고구려 고국원왕릉의 앞칸 동쪽결칸벽화에 가마에 시루를 얹어놓고 무엇을 찌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떡을 만드는것

으로 볼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어온 떡은 발해와 후기신라때에 더욱 발전하였으며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그 종류와 가공방법, 맛과 영양가에 있어서 세상에 자랑할만 한 민족음식의 하나로 되였다.

떡에는 음식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다.

쌀을 쪄서 만든 떡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이 찰떡이고 쌀가루를 내서 만든 떡에는 흰떡, 송편, 쉬움떡, 설기, 경단, 수단 등이 있다.

인기있는 대중식품—두부

두부는 우리 선조들이 먼 옛날부터 즐겨 만들어 먹어온 전통적인 대중식품이다.

콩의 원산지인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두부를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두부의 종류에는 순두부, 모두부, 노끈으로 묶어들고 다닐만큼 단단한 막두부, 처녀의 섬세한 손이 아니고서는 문드러진다는 연두부, 명주로 굳힌 비단두부, 베천에 싸서 굳힌 베두부, 언두부 등 수십가지나 되였다.

두부는 맛이 좋을뿐아니라 부드럽고 연하여 특히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인기를 끌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책인 《동국세시기》에는 지금의 반찬중

에서 가장 좋은 음식은 두부라고 씌여져있다.

후세에도 두부만드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오늘은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대중식품으로 되였다.

조선술

조선술은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온 음료의 하나로서 그 양조기술도 이른시기부터 발전하였다.

그것은 고대시기의 질그릇가운데 술잔으로 인정되거나 술항아리로 쓰이였다고 볼수 있는 그릇들이 흔히 발견되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이웃나라 도서인 《삼국지》에 고구려사람들이 일찍부터 술을 잘 빚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세나라시기에 이르러 술빚는 기술이 발전하고 그 솜씨가 매우 높았다는것을 말해준다.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를 거쳐 고려시기에 이르는 기간에 술의 종류가 늘어나고 술빚는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였다.

이웃나라 도서인 《계림류사》에 고려사람들이 멥쌀로 술을 빚는다고 하였으며 《고려도경》에는 멥쌀에 누룩을 넣어 술을 빚는데 독하여 빨리 취하고 빨리 깬다고 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빚어온 전통적인 술은 막걸리, 청주, 소주로 나뉘였다.

막걸리는 밑술을 막 걸은것인데 탁배기라고도 하였다. 막걸리는 소주보다 주정이 높지 않고 맑지 못하나 시원하며 마시

기 좋기때문에 잔치나 명절에는 물론 일상적으로 마시는 청량음료로 많이 리용되였다.

특히 무더운 농사철에 민간에서는 막걸리를 만들어놓고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쉴참에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감홍로》, 《리강고》, 《죽력고》를 비롯한 명주들을 전통제법대로 만들어 마시였다.

옷차림과 생활풍습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

예로부터 우리 녀성들이 즐겨 입어온 조선치마저고리는 우리 민족의 생활양식과 정서에 맞게 그 형태와 색갈, 무늬가 조화를 이룬 옷으로서 세상사람들의 선망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우리 녀성들의 체질적특성과 기호, 취미에 맞게 그 형태가 조화롭게 다듬어져있다.

또한 그 륜곽선이 대체로 《하후상박》(치마는 길고 풍만하며 저고리는 작고 짧다는 뜻)의 형태로 되여있으므로 몸체의 륜곽보다 옷의 륜곽선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나서면 옷의 풍만하고 날씬한 자연선이 부각되여 우아하게 보인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색갈을 통해서도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 치마저고리의 색갈에는 조선민족의 감정과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진한 색보다 연하고 부드러우며 선명하고 깊이가 있는 색을 좋아하였다. 특히 우리 녀성들은 정

결하고 고상한 느낌을 안겨주는 흰옷을 즐겨 입었다.

우리 녀성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색채에 대한 미감을 더욱 발전시켜 아름다운 색조화를 창조하였다.

우리 녀성들은 《록의홍상》(풀색저고리에 다홍치마)차림을 명절이나 의례옷차림으로 즐겨 입었다. 특히 《록의홍상》차림은 자연색 그대로의 청신한 풀색과 선명한 빨간색의 색조화로 하여 민족적정서를 잘 나타내고있다. 치마색으로 붉은색갈래의 색갈을 제일로 여기였는데 《갈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이러한 풍습으로부터 나온것이다.

무늬도 조선치마저고리의 아름다움을 돋구는데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국화, 모란을 비롯한 여러가지 꽃무늬들과 넝쿨무늬, 나무잎무늬, 참대 등의 식물무늬, 물고기 등의 동물무늬 그리고 자연을 형상한 무늬들과 수, 복, 희, 부귀다남 등 좋은 뜻을 가진 글자무늬들은 주제내용이 풍부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처럼 조선치마저고리는 독특한 형태와 색갈, 무늬로 하여 우아하면서도 아름답고 황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있다.

색동옷

색동옷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어린이들의 대표적인 민족의상이다.

여러가지 색갈을 조화롭게 배합하고 그우에 특색있는 무늬

를 찍어 짠 아름다운 색동비단으로 만든 어린이첫돌옷과 의상들은 보기에도 귀염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준다.

색동옷에는 어린이들의 첫돌이나 명절날 등에 일상옷과 구별되게 곱게 입혀 내세우려는 어머니들의 웅심깊은 사랑이 스며있다.

이미 세나라시기에 색동옷이나 색동치마가 있었다. 그후 색동옷은 여러 시기를 거쳐 발전하였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그 형식과 종류가 다양하게 늘어났다. 색동옷은 계절에 따라 더운 계절에는 얇은 비단인 사나 항라 같은 천으로 만들고 추운 계절에는 단과 같은 두터운 비단으로 만들었다.

색동옷에서 특이한것은 오방장이라는것을 입는것이다. 오방장은 부분구조의 색배합에 따른 옷이름으로서 색동옷이라는데서는 같은 의미로 쓰이였다.

이렇듯 색동옷은 다양하면서도 아름다운 색들의 조화로운 배합에서 오는 독특한 미감과 정서로 하여 어린이들의 동심에 꼭 맞는 옷이였다.

색동옷은 주로 첫돌부터 6～7살까지의 어린이들속에서 즐겨 입었으며 생일과 명절날들에 어린이들이 색동옷을 입는것이 풍습으로 굳어졌다.

특히 색동옷은 까치설날 즉 섣달그믐날과 설날에 입는 옷이라고 하여 까치저고리, 까치두루마기라고 불리웠으며 설날에 입는 색동옷차림을 설빔이라고도 불렀다.

멀리서도 조선어린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는 색동옷은 그 아름다움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상 식

댕 기

댕기는 긴 머리를 한데 묶어 내리드리우는데 쓰는 끈으로서 세나라시기부터 널리 쓰인 치레거리이다.

세나라시기 녀성들이 매는 댕기에는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것과 폭이 넓고 길이가 비교적 긴것이 있었다. 좁고 짧은 댕기는 머리를 여러가지로 묶는데 쓰이였고 넓고 긴 댕기는 머리치레를 위하여 쓰이였다.

세나라시기에 댕기를 매는 풍습은 그후 발해에 계승되면서 더 다양해지고 5가지 빛갈이 나는 화려한 댕기들도 만들어졌다.

고려시기에 이르러 총각들은 머리를 검은 끈으로, 녀자들은 붉은 끈으로 묶었으며 나머지는 아래로 늘어뜨리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총각들은 머리를 외줄로 땋고 끝에 검은 갑사댕기를 매여 뒤로 늘어뜨리였다.

녀자들에게도 앞댕기와 뒤댕기가 있었는데 앞댕기는 혼례식을 비롯한 례식때 큰 비녀에 감아 내리드리우고 뒤댕기는 짧고 폭이 좁은 붉은색이나 자주색으로 얹은머리나 쪽진머리끝에 드리워 겉으로 약간 보이게 하였다. 뒤댕기는 앞댕기보다 길고 질도 고급한것으로 만들었다.

조선식건물의 지붕

조선식건물의 지붕은 부연(덧서까래)과 높낮은 기둥에 의한 조로곡선, 안우리곡선으로 하여 독특하다.

고조선때부터 기와를 이은 여러가지 류형의 고유한 조선식 지붕이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벽화, 세나라시기의 건축물, 벽돌에 새긴 건축물의 무늬들을 통하여 확증할수 있다.

세나라이후 지붕건축양식이 더욱 세련되고 지붕장식이 발전하였으며 지붕면의 표면재료인 기와의 품질도 더욱 개선되였다.

조선식지붕은 그 모양에 따라 배지붕, 우진각지붕, 합각지붕과 여러 각지붕으로 나눈다.

조선식지붕에는 여러가지 장식을 하였다.

룡마루 량끝은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시기,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에는 치미로,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추두와 룡두로 장식을 하였다. 이 시기 추녀마루에 여러가지 잡상을 놓고 기와도 장식기와를 많이 썼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지붕양식 하나만 놓고서도 우리 민족의 미적정서와 슬기로움을 엿볼수 있다.

조선구들

구들이라는 말은 원래 《구운 돌》이라는 뜻으로 오랜 옛날부터 항간에서 널리 씌여왔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이후 이것을 한자화한 《온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뒤섞여 불리워지게 되였다.

구들은 처음 화로를 리용하던 때부터 시작하여 고래가 하나인 외구들로 되였다가 점차 아궁이 생기고 여러개의 고래로 방전체를 덥힐수 있는 구들로 되였다.

그후 우리 선조들은 열효률을 높이기 위해 아궁과 고래로 넘어가는 어간에 《부넘이》라는것을 설치하였으며 연기와 찬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래와 굴뚝사이에 《개자리》라는것을 만들었다.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구들은 구조가 매우 간편하고 원리도 단순하지만 뜨거운 열기를 오래 보존할수 있기때문에 혈액순환이 잘되고 잠을 깬 후 기분이 좋아지며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조선구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그 기술이 급속히 보급되고있다.

서양사람들속에서도 신발을 벗고 바닥에 보다 많은 육체를 접촉시켜 휴식하려는 지향이 커가면서 구들이 주요관심사

로 되고있으며 그 수요가 높아지고있다. 온돌침대도 개발되여 인기를 모으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상품명으로 구들 또는 온돌이라는 말을 쓰고 사전에도 올리고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생활에 리용하여온것을 세상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인사례법—조선절

예로부터 례의범절이 특별히 밝았던 우리 민족은 우아하고 문명한 인사례법을 창조하여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사례법인 조선절에는 앉은절과 선절이 있다.

앉은절은 흔히 방안에서 하고 선절은 바깥에서 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있다.

앉은절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 정도에 따라 다시 큰절, 평절, 반절로 나뉘여진다.

앉은절의 큰절은 지난날 장가드는 신랑이 가시부모를, 시집오는 신부가 시부모를 찾아뵙거나 환갑과 같은 부모의 생일잔치, 고인을 추모하여 제사를 지낼 때에 하였다. 또한 설명절에 손자, 손녀나 젊은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웃어른들에게 하는 세배로 하였다.

앉은절의 평절은 평상시에 부모나 가시부모, 시부모나 스승과 같은 웃어른들에게 하였으며 사돈들이 인사를 나눌 때에도 하였다. 앉은절의 반절은 흔히 아래사람, 젊은이들의 인

상 식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숟가락과 저가락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숟가락과 저가락을 기본식사도구로 리용하여 식사를 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숟가락, 저가락리용관습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다.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적들에서 짐승의 뼈나 뿔로 만든 숟가락과 저가락유물이 발굴되였는데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숟가락과 저가락을 써온 력사가 매우 오래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선조들이 숟가락을 사용하게 된것은 밥과 국을 함께 먹는 식생활관습과 관련된다.

우리 선조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에 들지 않고 상에 놓은채로 식사하군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숟가락과 저가락을 일찍부터 사용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일정한 도덕규범에 맞게 리용하는것을 전통적인 관습으로 여겨왔다.

19세기 중엽 유럽의 한 상인은 조선에 와보고 조선사람들은 그릇을 입에 대고 그릇속의 음식을 저가락으로 입에 끌어넣는 식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음식을 담아먹는데 그 식사모양이 훨씬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숟가락 하나를 놓고도 일찍부터 문명한 생활을 창조하여온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잘 알수 있다.

사에 웃사람, 어른들이 답례를 표할 때 하였다.

선절은 선자리에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는 정도에 따라 역시 큰절, 평절, 반절로 나뉘여진다.

선절의 큰절은 곧바로 선 자세에서 허리를 90° 정도 깊숙이 굽히고 고개까지 숙이는 방법으로 하는 절이다. 이러한 큰절도 나이많고 항렬이 높은 웃사람, 어른들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시할 때 하였다.

선절의 평절은 동년배들사이, 나이는 비록 많지 않으나 사돈과 같이 어렵게 대해야 할 사람들사이에 하였다. 선절의 반절은 앉은절의 반절과 같이 아래사람, 젊은이들의 인사에 대하여 웃사람, 어른들이 답례를 할 때 선 자세에서 고개만을 가볍게 숙이는 방법으로 하였다.

이처럼 조선민족은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인사례법을 창조하여 민족성을 나타내고 상대방에 대한 례의를 표시하였다.

민족체육과 민속놀이

조선씨름

조선씨름은 두사람이 다리에 끼운 살바나 허리에 맨 띠를 서로 잡고 넘어뜨리기를 겨루는 민족체육경기의 하나이다.

조선씨름수법에서 흔히 적용되고있는 다리수법에는 호미걸이, 안걸이, 무릎걸이, 빗장걸이, 발치기가 있고 손수법에는 무릎치기, 목치기, 팔걸이, 다리당기기 등이 있으며 몸통수법에는 궁둥배지기, 들배지기, 돌림배지기, 동이배지기, 뒤집기 등이 있는데 이밖에도 여러가지 세부동작수법들을 포함하면 수없이 많다.

조선씨름은 우리 선조들의 로동생활과정에 발생한 운동종목으로서 고구려때부터 널리 보급되였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때의 쉴참에 밭머리나 강가의 모래판 혹은 잔디밭에서 흥겨운 씨름판을 벌리군 하였다. 평양지방에서는 영명사의 뜰과 내성 남문밖의 벌판에서 벌어진 씨름이 유명하였다.

조선씨름은 지방별풍습에 따라 그 형식에서 약간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이와 수준에 맞게 상씨름, 중씨름, 애기씨름

으로 나누어 판막이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명절때마다 황소를 상으로 걸고 2~4일씩이나 씨름경기를 성대히 진행하군 하였다.

임진조국전쟁때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무사들가운데는 김덕령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가 싸움을 얼마나 잘하였던지 말을 타고 내달리며 손에 든 칼을 휘두르면 그 칼놀림이 마치 바람개비가 도는것 같았으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왜적의 대가리와 팔이 수두룩하게 떨어져 한벌 깔렸다고 한다.

하여 왜놈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떨며 감히 범접하지 못하였다. 김덕령은 범을 따라잡고 공중으로 날아다녔으며 지붕우에 가로누워 굴러서 땅바닥에 떨어져도 손톱눈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있다.

그의 이처럼 날랜 동작과 억센 장수힘, 튼튼한 체력은 어려서부터 씨름을 계속하면서 익힌것이라고 한다.

씨름이 우리 선조들속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가장 널리 보급되여온 민족체육인것으로 하여 힘겨루기놀이인 팔씨름, 다리씨름이라는것이 생겨났고 어떤 일에 근기있게 지그시 달라붙어 노력하는것을 두고 《책과 씨름한다.》와 같은 말도 나왔다.

바줄당기기

바줄당기기는 같은 인원수의 두 단체가 바줄을 잡고 마주서서 제정된 시간안에 서로 많이 끌어당기기를 겨루는 민족체육종목이다.

바줄당기기는 오랜 로동생활과정에 발생하여 고대와 중세시기에 놀이로부터 하나의 경기로 발전하였다. 바줄당기기는 세나라시기에 흔히 하던 경기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민족의 단합된 기상을 보여주는 대중적인 체육으로 계승발전되여 여러 지방들에서 널리 진행되면서 많은 력사기록을 남기였다.

바줄당기기는 대체로 정월보름에 진행하였는데 지방마다 다른 명절때에 할 때도 있었다.

바줄은 흔히 벼짚이나 거기에 칡넝쿨을 섞어 꼬아서 만들었는데 경기규모에 따라 굵기와 길이를 달리하였다.

지난날 바줄당기기는 흔히 부락(마을) 또는 리, 면사이에 진행되였다.

큰 바줄당기기는 두 마을 또는 두 고을의 경계점으로 되는 큰 풀밭이나 마당에서 대낮에 진행하였다.

이 경기에 직접 참가하는 량편의 인원만 하여도 수백명에 달하였으며 직접 참가하지 않더라도 지역안의 모든 남녀로소가 떨쳐나와 열렬히 응원하였다.

경기가 진행되는 날에는 아침부터 량편에서 각기 농악대를 앞세우고 모여들었으며 경기장주변에서는 수많은 군중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기는 심판의 신호에 따라 시작되는데 량편선수들은 서로의 힘과 마음을 합쳐 하나의 구령과 동작으로 줄을 당기였다.

승부가 나면 이긴 편이 자기의 줄과 함께 련결되여있는 진편의 줄까지 메고 농악을 울리면서 마을을 한바퀴 돌았다.

이처럼 마음과 마음, 힘과 힘을 서로 합쳐야 이길수 있는 바줄당기기는 인기있는 체육종목으로 진행되였다.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일정한 높이에 바줄을 매여 발판을 걸고 그우에 올라 앞뒤로 구르면서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체육종목이다.

우리 녀성들의 높은 정서와 강의성을 잘 보여주는 그네뛰기는 오랜 전통을 가진 민속놀이이다.

일상적으로 진행한 그네뛰기는 큰 버드나무나 정자나무가지 또는 두대의 긴 나무기둥을 세우고 꼭대기에 건너댄 가름대에다 줄을 매여 설치하였다.

심한 봉건적륜리도덕으로 하여 대문밖도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던 젊은 녀인들도 명절날이면 너나 할것없이 떨쳐나와 그네뛰기로 하루를 즐기였다.

그네뛰기에는 한사람이 뛰는 외그네뛰기와 두사람이 마주서서 뛰는 쌍그네뛰기가 있었다.

승부는 그네줄앞에 꽃가지나 나무가지 혹은 방울을 매달고 그것을 누가 먼저 찼는가를 가르는 방법과 그네의 발디디개밑에 눈금을 매긴 줄을 매달아놓고 그네가 얼마나 올라갔는가를 재는 방법으로 갈랐다.

그네뛰기에는 처녀나 갓 시집온 새각시들뿐아니라 중년부인들도 끼여들었으며 심지어 늙은이들까지 달려나와 앉은그네라도 뛰여보군 하였다.

그네뛰기경기때 고운 색갈의 치마저고리에 날씬한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청춘의 힘을 과시하며 발을 힘껏 구르면서 날아오르고 내리는 녀성들의 모습은 바람을 헤가르며 재주를 부리는 제비의 날렵한 동작을 무색케 하리만큼 아름다웠다.

널뛰기

널뛰기는 고임목을 중심에 놓은 긴 널판의 량끝에 각각 한명씩 올라서서 공중으로 오르내리기를 엇바꾸어 진행하는 민족체육종목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널뛰기는 봉건적구속으로 마음대로 바깥출입을 할수 없었던 녀성들이 담장밖의 세상을 내다보기 위하여 담장곁에 널을 놓고 뛰였다고 한다.

널뛰기는 발방아의 원리에 따라 창안된것으로서 고구려이전

시기부터 진행된것으로 본다.

예로부터 우리 녀성들은 설명절과 대보름이 오면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한곳에 모여 저녁늦게까지 널뛰기를 하면서 즐겨 놀았다.

속담에 《정월에 널뛰기를 하면 그해에 발바닥에 가시가 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녀성들이 널뛰기를 하면 몸이 단련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널뛰기는 녀성들의 다리힘을 키워주고 폐활량을 높여주어 몸단련에 좋을뿐아니라 몸매도 곱게 해준다.

우리 녀성들이 즐겨해온 널뛰기는 그후 더욱 다양화되고 과학화되여 민족체육경기의 주요종목으로뿐아니라 민족교예예술로도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우리 민족의 칼쓰기무술

고대시기에 창조된 칼쓰기는 중세시기에 들어와 높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세민족무술의 여러 종목들과 함께 칼쓰기무술이 발전하게 된것은 우리 선조들의 상무기풍, 당시 사회력사적환경 및 조건과 관련되여있었다.

세나라시기의 칼쓰기무술은 당시의 유적유물들에서 그 면모를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의 경당은 민간무술교육기관으로서 고구려의 젊은이

들을 높은 애국심과 무술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지는 을지문덕장군의 검술이야기는 아주 신묘한데 청년시절 그가 어찌나 칼을 번개처럼 요령있게 썼는지 밖에서 소나기를 한바탕 맞고 들어온 그의 옷이 전혀 젖어있지 않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고려에 이어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칼쓰기는 중요한 무술종목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칼쓰기무술은 군사들속에서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널리 진행되였다.

기록에 의하면 민간의 어린이들이 칼쓰기를 많이 하여 익히였는데 칼쓰기에 능한 아이들은 훈련도감부에서 시험쳐 상부에 보고하고 상을 주게 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 조선봉건왕조에서는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고 훈련도감을 비롯한 군사들속에서 각종 칼쓰기무술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검법은 주변나라들에도 널리 전해졌다.

우리 선조들의 칼쓰기무술은 조선민족무술의 중요한 종목의 하나로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민족무술—활쏘기

활쏘기는 활에 화살을 메워 목표에 정확히 맞히기를 겨루는 무술경기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남달리 활쏘기를 잘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활을 생활에 리용하기 시작한것은 신석기시대부터였다. 당시 원시인들은 노끈의 탄력을 리용한 활을 창안하여 화살을 멀리 날려보낼줄 알았으며 중석기시대에 이르러서는 기본사냥무기의 하나로 널리 리용하였다.

세나라시기에 이르러 활쏘기는 남녀로소모두가 즐기는 대중적인 무술련마놀이로 되였다.

고구려에서는 활쏘기가 무술의 첫째라고 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여있었으며 수준 또한 높았다.

고구려가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위용떨칠수 있은것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활쏘기를 비롯한 무술을 꾸준히 련마해왔기때문이다. 고구려사람들의 뛰여난 활쏘기기술은 반침략투쟁에서 큰 은을 냈으며 그 이후시기에도 면면히 계승되였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이면 락랑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해동안 련마해온 활쏘기와 말타기를 사냥의 방법으로 겨루군 하였다.

강서구역 덕흥리 고구려무덤벽화에는 당시 사람들의 활쏘기경기장면과 사냥과 전투를 위하여 활쏘기기술을 익히고있는

모습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고구려시조왕인 고주몽은 태여나서부터 활을 잘 쏘아 주몽이라고 불리웠으며 그의 아들 유류도 어렸을 때 활쏘기를 잘하여 날아다니는 참새를 활로 쏘아잡는것을 식은 죽 먹기로 여기였다고 한다.

하루는 한 녀인이 이고 가는 물동이를 그만 잘못 쏘아 구멍을 낸적이 있었는데 그 녀인이 성을 내자 인차 화살에 진흙을 발라 다시 쏘아 그 구멍을 막았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활쏘기는 우리 선조들속에서 적극 장려되였으며 많은 전설적일화들을 남기였다.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말타기

말타기는 사람들이 말을 길들여 리용하기 시작한 오래전부터 있었다.

말의 장점을 속도로 여긴 우리 선조들은 산이 많고 험준한 지형조건에 알맞는 토종말을 많이 길렀다. 그것이 바로 고조선의 과하마였다.

과하마는 키가 3척(약 1m) 되는 작은 말로서 과일나무아래로도 지나갈수 있었다. 과하마는 험한 산발을 잘 오르내리는 날랜 말로 이웃나라들에서도 명마로 소문이 자자했다.

함경북도 무산군 범의구석유적을 비롯하여 고대 여러 유

적들에서 발굴된 수많은 말뼈들과 말편자, 말장식품들은 고대조선에서 말을 많이 사양하였으며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말타기를 즐겨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말타기는 상무기풍이 강하였던 고구려에서도 널리 진행하였다.

고구려벽화무덤들에는 말타고 활쏘기 또는 창쓰기, 사냥경기와 같은 그림들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고구려의 말타기는 고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이어졌다.

옛 기록에 의하면 조선봉건왕조 전반기 말타고 활쏘기는 일정한 동작을 수행하면서 5개의 목표를 맞혀야 하고 말타고 창쓰기는 3개의 목표를 맞혀야 하였다. 이때 말을 타고 제정된 시간에 들어서지 못하면 비록 목표를 명중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되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이 말타기는 무과시험종목의 하나로 되여있었다.

말을 타고 하는 장애물극복경기는 《해동명장전》(1794년 편찬)의 기록들에도 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유명한 장수였던 김덕령은 좁은 문안으로 말을 타고 달려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나오기를 잘하였고 정기룡은 여섯발이나 되는 넓은 함정장애물을 말을 타고 사뿐 뛰여넘기도 하고 절벽우를 나는 새와 같이 뛰여오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말을 키우고 리용하여온 우리 선조들은 생산활동과 무술, 싸움마다에서 뛰여난 기마술을 발휘하였다.

민족무도 태권도

태권도는 강한 정신수양과 육체적훈련을 통하여 단련된 손과 발,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활용하여 재치있고 날랜 동작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이다.

태권도의 《태》자는 발꿈치, 《권》은 주먹, 《도》는 정신적수양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이 용어에는 높은 발기술과 손기술, 강한 정신교육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태권도는 강한 정신수양과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한 훈련과정에 사람이 자기 몸에 지니고있는 모든 정신, 육체적힘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태권도의 력사적뿌리인 수박과 택견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서 창조되였다.

택견은 우리 민족의 맨몸무술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우리식의 무술명칭이다.

택견은 그 무엇에도 굽힘이 없으며 불의를 용서치 않고 단매에 짓뭉개버리는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을 반영하고있다. 또한 허리힘, 다리힘이 강한 우리 민족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발을 위주로 하는 위력한 기술수법을 갖추고있다.

특히 평양날파람은 민족무술의 중심지인 평양에서 발생발전하여온 무술로서 택견의 정수를 이루고있으며 택견발전의 기본주류로 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수박과 택견은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로, 태권도의 력사적뿌리로 되고있다.

단군조선시기 민족의 형성과 더불어 평양에서 발생한 수박과 택견은 우리 민족무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고구려—발해—고려—조선봉건왕조를 거쳐 계승발전되였으며 그 과정에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만방에 떨치였다.

상 식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통지》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에 오래동안 전해져내려온 여러 무술동작들을 체계화한 우리 민족의 무술도서이다.

한문으로 된 책과 별도로 조선글로 된 《무예도보통지언해》도 함께 간행되였다. 언해란 언문 즉 조선글로 풀이하였다는 뜻이다.

책은 칼쓰기, 곤봉쓰기, 말타기, 권법 등 여러가지 무술동작들을 그림을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 그림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유명한 화가 김홍도가 그린것으로 전해지고있다.

2017년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총회 제39차회의에서는 조선의 민족고전 《무예도보통지》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지능겨루기－바둑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두어온 바둑은 두사람이 바둑판을 중심에 놓고 마주앉아 바둑돌을 판에 하나씩 놓아가며 상대방의 돌을 포위하거나 《집》을 만들어 승부를 겨루는 민속놀이이다. 바둑은 고대사람들의 우주관과 결부되여 생겨난 놀이라고 전해지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소박한 견해를 가지고 바둑판의 평평한 곳은 땅을, 네모진 곳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의미하며 가로세로 그어진 바둑판의 361개의 교차점은 1년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바둑판의 중심점을 《천원점》이라고 부르게 된것도 땅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또한 바둑돌이 원형으로 된것은 둥근 우주를 상징한것이고 검은색과 흰색으로 된것은 밤과 낮을 의미한것이였다고 한다.

바둑이라는 말은 배렬해놓은 돌이라는 뜻인 《배돌》이 점차 《버독》→《바독》→《바둑》으로 변화된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단군조선때부터 바둑을 중요한 민속놀이의 하나로 진행하여왔다. 세나라시기에 이르러 우리 선조들의 바둑수준은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5세기 고구려에서 바둑을 잘 두는 도림을 백제에 들여보내여 백제의 국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고구려의 국토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후기신라시기에도 바둑술이 높았다는 력사자료가 전해지고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선조들의 바둑실력이 매우 높았다는것과 일상적으로 바둑을 많이 두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바둑은 고려시기에 와서 남성들뿐아니라 녀성들과 어린이들속에서도 널리 보급되였다.

고려시기에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국수》라고 하였다.

바둑은 조선봉건왕조시기 많은 사람들속에서 널리 보급되면서 그 방법과 묘기 등에 대한 참고서들도 편찬되였다.

이처럼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바둑은 그 이후시기에도 변함없이 계승되면서 많은 일화들을 남기였다.

조선장기

조선장기는 오랜 력사를 가진 대중적인 지능겨루기놀이의 하나이다.

조선장기는 두사람이 장기판우에 16개씩 서로 같은 장기쪽을 놓고 약속된 행마법을 지키며 승부를 겨룬다.

《삼국사기》에는 《백제왕 근개루가 장기와 바둑을 좋아했다.》고 서술되여있다. 근개루를 개로왕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5세기 중엽 백제의 21대왕이였다.

당시 개로왕이 장기를 좋아했다는 기록을 보면 장기가 5세기 이전시기에 이미 나왔다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장기

가 오랜 력사를 가진 장기라는것을 알수 있다.

옛 기록들에서는 흔히 바둑을 한자로 《碁》(돌석 변에 그 기)자로 썼으며 장기는 《棋》(나무 목변에 그 기)자를 써서 바둑과 구분하였다. 이것은 모두 말을 가지고 노는 놀이인데 그 말의 재료가 바둑은 돌이고 장기는 나무이기때문에 그렇게 구분한것이다.

예로부터 《장기는 무관》, 《바둑은 문관》이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는데 이것은 조선장기의 성격이 군사적측면을 반영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장기는 군사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놀이로서 처음에는 장수들이 전술을 연구하고 전투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다가 점차 모든 군사들이 즐겨하는 오락으로 되였다. 이런데로부터 놀이이름도 《장수 장(將)》자에 《장기 기(棋)》자를 따서 《장기》라고 불렀다.

우리 선조들은 세나라시기는 물론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장기를 즐겨 두었다.

15세기 봉건관료였던 로사신이란 사람이 장기를 즐기였는데 그가 《차》만 죽으면 애걸해서 자꾸 물리군 하였기때문에 당시 사람들속에서 《원컨대 로정승의 차만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도 나왔다.

조선장기는 직관적으로 볼 때 간단하면서도 명백한것이 특징이다. 조선장기쪽들에 새겨진 글자와 색갈은 편가름에서 적

아를 정확히 구별할수 있게 하고 쪽들의 규칙적인 움직임은 직관성과 시각적안정성을 보장해준다.

조선장기는 체계와 두는 방식이 다종다양하며 수법들이 독특하다.

《장훈 한번에 열두수 얻는다.》, 《한수때문에 졌다.》, 《한수를 잘못하여 ○쪽이 떨어졌다.》와 같은 말들은 장기수법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주고있다.

조선장기는 등장하는 말들이나 장기판의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그속에 많은 수가 들어있고 고상한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을 보여주는 대중오락의 하나로서 오늘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남녀로소 누구나 즐기는—윷놀이

윷놀이는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하며 때와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 대중적인 민속놀이다.

윷놀이의 윷판을 윷놀이판, 말판 또는 윷말판이라고도 하였다. 윷판의 말발은 둥글며 거기에 20개의 밭이 있고 방을 중심으로 상하좌우로 련결시켜 9개의 밭이 있다.

윷은 4개로서 가락윷, 밤윷, 콩윷 등을 쓴다. 말은 5개인데 모, 윷(숭), 걸, 개, 도와 같은 윷놀이의 말들은 고대부여의 관직이름인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과 결부시켜보면서 그 유래를 멀리 고대부여에서 기원되였다고 보고있다.

고대에 이어 고구려시기에도 윷놀이가 진행되였으며 그 도형이 오늘 현재 쓰이고있는 윷판과 꼭같다는것이 밝혀졌다.

고려시기에도 윷놀이는 누구나 즐기는 놀이로 되여있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서로 모여앉아 웃고 떠들며 윷놀이를 하였으며 머리흰 늙은이들까지도 29개 밭의 모나고 둥근 윷판에 홀수와 짝수로 나타나는 윷수의 결과에 따라 말을 움직여 승부를 겨루면서 즐거워하였다고 전해지고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윷놀이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놀이로 되고있었다.

15세기의 시인이였던 김시습은 윷가락과 윷판, 윷수에 따라 말을 옮기며 진행되는 윷놀이의 흥미진진한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상하였다.

우리 나라 윷가락은 쪽이 네개
말밭은 둘러서 다섯점씩
신수가 사나우면 개가 도로 되고
운수가 트이면 단숨에 모길이라

18세기와 19세기에 편찬된 《동국세시기》, 《오주연문장전산고》, 《성호새설류선》 등에도 윷놀이와 관련한 기록들이 있다.

문헌기록들에 의하면 윷판 29개 말밭의 둥근것은 하늘을

본딴것이고 윷판의 모난것은 땅을 상징한것인데 중심을 이루는 밭인 추성은 북진 즉 북극성을, 그 둘레의 28개의 밭은 28수를 상징한것이다.

이것은 윷놀이판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 났다는 천원지방설의 천체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놀이판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처럼 윷놀이는 고대로부터 천체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을 통하여 당시로서는 높은 천문지식을 지니고있던 우리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지능겨루기놀이이다.

일 화

《윷 진 애 비》

옛날 어느 외진 산골 외딴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있었다. 겨울이 되자 일감도 없고 눈길이 막혀 마실놀이도 가지 못하고 하루종일 방안에 들어박혀있자니 갑갑증이 났다.

어느날 아들이 아버지보고 심심한데 윷이나 놀자고 청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다했다. 아무리 갑갑하기로서니 자식을 상대로 놀음놀이를 하는것이 체면없기도 하거니와 윷놀이가 별로 재미있을것 같지 않았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아들의 거듭되는 청에 못이겨 윷을 놀기 시작했다. 처음 한두판은 별로 흥미를 못 느꼈지만 몇판이 지나서부터는 이기면 이긴 재미에 한판 더, 지면 분한김에 또 한판, 이렇게 하다나니 해가 지는줄도 몰랐다.

그러다가 연거퍼 두판이나 이긴 아들녀석이 오늘은 그만 놀자고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한판만 더 놀자고 하였다. 그래서 한판 더 놀았는데 이번에도 아버지가 졌다.

그쯤했으면 물러나야겠는데 아버지는 체면을 무릅쓰고 한판만 더 놀자고 했다. 그래서 져도 이겨도 마지막판이라는 단단한 약속밑에 한판 더 놀게 되였는데 이번에도 아버지가 졌다.

후끈 단 아버지는 방금전의 약속도 잊고 한판만 더 놀자고 했으나 아들은 약속대로 그만하자고 윷놀이판을 밀어놓았다. 아버지는 한판 더 놀자거니 아들은 그만 놀자거니 하면서 부자간이 싱갱이를 하였다.

이때부터 경쟁이나 내기에서 지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자꾸 달라붙는 사람을 비겨 《윷진 애비》라고 부르게 되였다.

이것은 윷놀이가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속에서 널리 보급되여왔을뿐아니라 얼마나 재미있는 오락인가를 말해주고있다.

력사를 통해 본 민족의 우수성

저 자	장숙영, 정룡수, 홍범식, 채대양
장 정	김영일
교 정	안순광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0(2021)년 7월 6일
발 행	주체110(2021)년 7월 10일

ㄱ—1504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44—9

ISBN 978-9946-31-144-9
9 789946 311449